



2016

전국 작은도서관대회

— 지역 독서운동의 뿌리, 작은도서관 —



2016. 4. 18(월) / 세종컨벤션센터

- 주제 : 지역 독서운동의 뿌리, 작은도서관
- 일시 : 2016. 4. 18(월), 09:30~17:00
-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진행 : 변현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참가자 등록 및 자료 배포
10:00~10:20	식전 행사	
10:20~10:25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10:25~10:30	환영사	김종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30~10:35	축사	신숙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10:35~10:45	유공자 표창	
10:45~10:50	감사패 전달	
10:50~11:25	기조강연	이용남 /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11:25~12:00	특별강연	쿠사가야 게이코(草谷桂子) / 토모에문고 대표
12:00~12:10	기념사진 촬영	
12:10~13:40	오찬	
13:40~15:20	〈강연 및 분야별 사례발표〉	
	생활속에 살아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서진순 / 원주군립중앙도서관 관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류반디 /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종교기관 작은도서관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정춘석 / 종이비행기작은도서관 관장
	우수 사례1 : 공립	김윤영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대표
	우수 사례2 : 아파트	신지호 / 전주 웅달샘작은도서관 대표
	우수 사례3 : 종교단체	문세이 / 서울 지혜의 숲작은도서관 관장
	우수 사례4 : 단체	김은미 / 고양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부관장
15:20~16:30	우수 사례5 : 기관	김진경 / 서울 환원어린이도서관 담당자
	〈주제별 발표〉	
	○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정기원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 도서관으로 통하는 문화자원봉사 활동관리 도통문(圖通文)	허태범 / 홍천 진리도서관 관장
	○ 리더스클럽 독서토론은 이렇게	유길문 / 리더스클럽 회장 저서 「된다 된다 책쓰기가 된다」 저자
16:30~17:00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사례	장동훈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 회장
	종합토론 및 폐회	전체

차 례

[기조강연]

- 작은도서관 전개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 9
이용남 /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특별강연]

- 모든 아이들에게 알찬 독서환경을! 33
쿠사가야 게이코(草谷桂子) / 토모에문고 대표

[강연 및 분야별 사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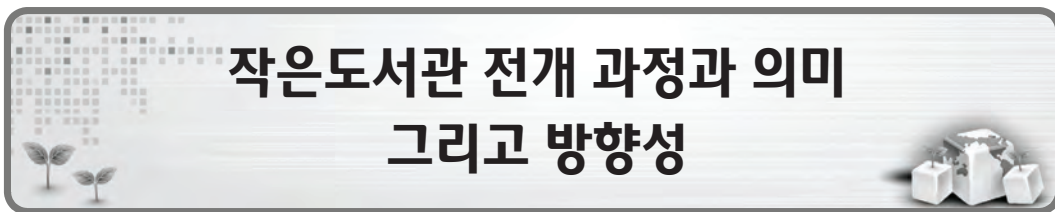
- 생활속에 살아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93
서진순 /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관장
-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105
류반디 /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종교기관 작은도서관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111
정춘석 / 종이비행기작은도서관 관장
- 우수 사례1 : 공립 –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 119
김윤영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대표
- 우수 사례2 : 아파트 – 웅달샘 작은도서관 127
신지호 / 전주 웅달샘작은도서관 대표

- **우수 사례3 : 종교 – 지혜의숲 작은도서관** 139
문세이 / 서울 지혜의 숲작은도서관 관장
- **우수 사례4 : 단체 – 책놀이터작은도서관** 147
김은미 / 고양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부관장
- **우수 사례5 : 기관 – 환원어린이도서관** 157
김진경 / 서울 환원어린이도서관 담당자

[주제별 발표]

-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167
정기원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 **도서관으로 통하는 문화자원봉사 활동관리 도통문(圖通文)** 187
허태범 / 홍천 진리도서관 관장
- **리더스클럽 독서토론은 이렇게** 197
유길문 / 리더스클럽 회장, 706회 토론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사례** 209
장동훈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장
- **전국 대회 설문 조사** 219

[기초강연]



작은도서관 전개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

이 용 남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1. 작은도서관, 우리의 특유한 도서관 현상인가?

우리의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정겹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쉬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도서관 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해시키기 쉽지 않은 용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선진국에도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모든 도서관은 그 지역의 ‘도서관시스템’에 속해 있어, 별도로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과 같이 독자적인 개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선진국에서 소규모(small) 도서관이라 하면 봉사인구수나 도서관 규모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되며, 보통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small library는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말하는데 전체 공공도서관 중 3/4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도서관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도서관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최근까지 ‘어린이문고, 가정문고, 지역문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문고’(文庫)란 용어입니다. 본래 ‘문고’란 말은 일본에서 ‘도서관’이란 용어가 쓰이기 전부터 library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도서관’이란 말이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나서, ‘도서관령’이 공포(1899)된 이후에도 도서관 용어 대신 문고란 말이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은 제도권 공공도서관 외곽의 민간 도서관 활동을 주로 ‘문고’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례는 토모에문고(トモエ文庫)를 운영하고 계신 쿠사가야 케이코 선생님의 오늘 강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도서관’ 형태는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2-3백 년 전에 도서관 선진국들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세계 도서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도서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우선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선진국, 민간 풀뿌리 도서관운동이 ‘공공도서관’의 싹을 틔워

잘 아시다시피, 과거시대의 도서관은 대부분 특수 계층에게만 서비스하는 기관이라서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15세기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도 시민대중의 독서를 위한 공적(公的) 기관은 없으면서, 책의 접근은 철저하게 시장(市場)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정치·사회적인 발달과 민권意識이 싹트기 시작한 18세기 전후해서 영국과 미국에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서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이나 무상의무교육 제도가 마련되기 1백 수 십여 년이나 앞선 시대에, 시민들이 스스로 책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시도했던 몇 가지 풀뿌리 도서관운동의 사례¹⁾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구(敎區)도서관

17세기 말 경에 영국에서 브레이(T. Bray)목사가 가난한 지역의 성직자와 일반 대중들의 이용을 위해 교구 단위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운동을 전개, 60여개의 교구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브레이 목사는 그 후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가서도 메리랜드주 등에 또 수 십여 개의 교구도서관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② 회원제(會員制)도서관

자발적으로 모인 중산층 시민들이 조합 형태로 참여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운영하던 작은도서관 형태입니다. 영국에서 1720년 경 북클럽 형태로 출발하다가 미국에서 B. 프랭클린이 1731년에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 조합’을 만들면서 공공도서관 제도가 생기기까지 1백여 년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였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에만 1천여 개 이상 설치되었는데 평균 존립기간은 35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③ 기술공도서관(technic institute library)

회원제도서관의 변형으로 공장지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도서관입니다. 1823년 영국

1) 이용남. 근대 공공도서관 개념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논문집』 299-311, 1990.

글래스고우에 최초로 설립된 후, 공공도서관 법제화(1850) 때까지 40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운영경비는 경영주나 독지기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적은 경비로 운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제도가 처음으로 생길 때에 몇몇 지역에서는 이 도서관 건물 장소에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④ 상업도서관

미국 보스턴 지역의 상인 우드(W. Wood)가 영국의 기술공도서관 아이디어를 도입해 19세기 초반 보스턴, 뉴욕 등지에 산업체 직공의 교육과 복지 개선을 위한 도서관으로 설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도서관의 회원 직공은 영국의 기술공도서관 회원보다 사회적 수준이 높았고 장서도 많으며 전문화되어 갔습니다.

⑤ 대출도서관

영국은 에딘버러(1725)에서, 미국은 메리랜드주(1762)로부터 영리목적의 대출도서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도서관은 대중의 독서기호에만 초점을 맞추긴 하였으나, 공공도서관 탄생 이후에 공공도서관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이용자의 독서 욕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독서활동들은²⁾ 시민들이 책임기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하여 매우 의미가 컸었는데, 시점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작은도서관’ 개념과 같은 도서관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특수 계층만 이용하던 중후한 도서관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이 약간의 경비 부담이 있더라도 자기 의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서는 학문적인 책보다는 젊은이들이나 시민의 요구에 따른 책을 구비하고 활용함으로써, 후대 공공도서관에 학술·종교 책들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컬렉션도 가능하다는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 차원의 임의롭고 자발적인 행위에 의거하기는 하였으나,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학술도서관, 귀족들의 개인도서관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난 경쾌한 분위기의 풀뿌리 ‘작은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1백여 년간 사회저변의 이러한 도서관운동 영향으로, 드디어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18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상류사회 인사들 중심으로 학술도서관 성격의 로마시대 아카데미를 일컫는 Athenaeum도 있기는 하였으나 사회 저변 층의 독서운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았음.

는 ‘법률에 바탕을 두고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민주적 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탄생시켜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 제도화 이전의 이러한 풀뿌리 민간운동을 후세에 학계에서는 ‘준공공도서관(semi-public library)’ 또는 ‘사회적도서관(social library)’운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공립의 공공도서관과 분관이 지역 곳곳에 확산되면서 과거 1백여 년 동안 풀뿌리 운동으로 활동하던 이들 민간도서관 중 규모가 큰 회원제도서관들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변형되어 아직도 명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소멸하거나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 작은도서관은 시민 대중에게 풀뿌리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책임기의 가치를 확산시켜 제도권 도서관을 갈망하는 토양을 다졌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저변의 욕구를 바탕으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관련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제도 촉매형’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이 다져놓은 토양에서 태어난 공공도서관 제도는 빠른 기간에 뿌리를 내려 민주사회의 핵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작은도서관,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 우리나라는 과거에 풀뿌리 도서관운동 흔적 안보여

우리나라도 과거에 훌륭한 도서관과 전적 문화의 전통을 지니고는 있었으나 역시 백성들이 도서관과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한말 개화기 때 유길준 선생의 서유견문록(西遊見聞錄, 1895)에서 서양의 도서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개념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공공도서관을 애국계몽을 위한 교육시설이며 개화문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근대 도서관 한 곳을 만들려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중도에 일본에 합병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몇 개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졌으나 일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우리 국민의 정서와 밀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공도서관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서양은 사회 저변 층

의 독서욕구를 조직화하며 풀뿌리 식 작은도서관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제도가 탄생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사회 저변에 자생적인 풀뿌리 운동의 바탕 없이 그 개념이 선각자에 의해 갑자기 수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공도서관 제도가 알려지기 이전에, 자유로운 책 읽기에 대한 사회적 갈증을 채우려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방안 모색이나 풀뿌리 활동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³⁾ 일제시대에 일부 지역에서 독서활동 권장 사례가 보이기는 했으나 ‘지식의 대중적 확산’ ‘시민의 읽을 권리 확보’ 등의 도서관적 가치보다는 독립운동이나 문맹퇴치 연장선에서의 국민계몽 운동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해방 직후는 혼란과 전쟁이 겹쳐 일제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수의 공공도서관 유지·관리에 급급하여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민간 도서관운동은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중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도서관운동의 바탕이 없는 여건에서 외부로부터 수입한 공공도서관 개념과 제도로서는 우리 사회에 공공도서관 뿌리를 정착시키기 그만큼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우리 공공도서관이 오랜 동안 시민과 유리되어 오거나 발전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이러한 사회·역사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풀뿌리 도서관운동의 시작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풀뿌리 도서관운동은 1961년에 시작한 마을문고 운동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전쟁 휴전 직후, 울산사립도서관·경주읍립도서관장과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엄대섭이, 우리의 실정에서는 농촌 마을 단위의 도서관운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공립 공공도서관은 대도시에도 18개관 정도인데, 그나마 학생들의 공부방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며, 농촌에까지 공공도서관이 보급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하청세월이니, 꼬마 도서관 격인 문고 설치운동을 벌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서습관이나 도서관 이용습관이 적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주민 가까이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만큼, 농촌 마을에 소규모이더라도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도서관운동을 민간차원으로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3) 한 예로, 조선조 어느 시대의 한 선비(許均)의 문집에는 자기가 중국에서 사온 서적을 고향 마을에 내놓고 유생들에게 돌려보게 했다는 등 극히 단편적인 기록이 전하기는 하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의미 있는 도서관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고운동 전개방법은 독지가들에게 고향에 문고설치를 권유하여 마을에 설치한 후, 문고는 독서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책을 사 보태도록 하여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전국 3만여 마을로 문고가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 자연히 부실한 문고가 늘어나고, 중앙단위 추진체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져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흡수되었습니다. 현재는 농촌 도시화에 따른 문고 통폐합 등의 정비과정을 거쳐 오늘날 새마을문고 또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1300여개 가량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동 출범 당시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열악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려는 운동’임을 초창기부터 표방하였습니다. 장차 공공도서관의 여건이 나아지고 마을문고도 좀 더 내실화 되면,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시켜 ‘공공도서관망(網)’을 형성하고, 마을단위 최 일선 도서관 조직 또는 봉사거점의 구실을 하게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일부 지역에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추진할 만한 여건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⁴⁾

■ 1990년대 전후 새로운 작은도서관 운동 태동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높아진 대중운동의 관심이 반영된 분위기 속에 민간의 소규모 도서관들이 생겨났습니다. 1987년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주민도서관’ 운동 등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공단지역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강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공공도서관의 부족과 서비스의 열악성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의 문고 또는 지역주민도서관 운동을 지역 공간에서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⁵⁾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권장하고자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문고’관련 조항을 넣었습니다. 즉,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문고라 정의하고, 제도권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의 틀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법조문에 명시된 문고라는 용어보다는 ‘작은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문고 · 새마을문고 등으로

4) 이용남.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 이런 사람 있었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5) 이연옥. 한국공공도서관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64-165. 2002.

오랜 기간 사용된 ‘문고’라는 용어에 대한 식상함, 관주도 인상의 탈피, 문고보다는 시설과 운영이 양호한 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려 했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고 형태의 다양한 독서시설 연합모임으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1994년에 생겨나는 등, ‘작은도서관’ 이름의 새로운 도서관운동이 공공도서관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21:문화비전’에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에 ‘작은도서관진흥팀’ 조직 신설로 작은도서관 용어를 정부 조직에 처음 사용하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연달아 펴내는 등⁶⁾ 작은도서관 확산과 진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2009년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이란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게 됩니다. 덧붙여 2012년에 작은도서관진흥법까지 별도로 제정하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법률로 권장해 왔습니다.

앞부분에서 선진국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지금부터 2-3백 년 전에 있었던 ‘공공도서관 제도 촉진형’ 도서관운동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도서관 개념을 들여온 지 120년, 건국 이후 최초 도서관법을 제정한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웅당 공공도서관이 감당하여야 할 지역 주민들의 지식, 정보, 문화욕구를 작은도서관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의 성격은 그동안 양과 질에서 부족했던 공공도서관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도서관 성격은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도서관 서비스 보완형’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2006.

남영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6.

3. 현 단계 작은도서관 운동의 가치와 방향성

■ 작은도서관 급속한 확산의 사회적 배경

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결핍 현상을 극복하고자

- 도서관의 접근성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해 접근성이 불편했던 실정에서 주민들은 작은 규모라도 마을 가까이에 도서관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자료 이용자 이외의 시민 대중들이나 어린이에게 도서관은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공립 도서관의 경직성을 벗어나고자

공립 도서관은 조직의 기본 성격상 민간 조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딱딱한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관료제 조직의 기본 바탕은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법률과 각종 규정에 의한 판단을 우선시하는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공부방 없는 도서관의 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 공공도서관의 고질적인 병은 공부방 위주의 운영이었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의 놀이 공간이고, 보고 싶은 책을 고르며, 주민의 사랑방으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② 주민들과 정서적으로 밀착한 운영

- 작은도서관은 마을 단위 지역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서적으로 주민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 머뭇대며 들어오는 어린이에게 이름까지 부르며 환대하는 직원의 모습은 바로 작은도서관의 매력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공립도서관은 주기적인 인사이동 원칙에 따라 어린이실 사서가 한군데 오래 있을 수도 없거니와 주민과 그 정도로 밀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겠지요.

③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정부의 관심

- 1990년대 전후의 시기는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 시민사회와 관련단체가 활성화되면서 당시까지의 도서관운동을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풀뿌리 작은도서관 운동은 자연스럽게 불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2천년대 전후해서는 작은도서관, 어린이 책읽기 등의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이 더욱 늘어나며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고 언론을 자극하여 작은도서관을 사회적 관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덧붙여 10여 년 전 부터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④ 풀뿌리 운동가들의 헌신

- 마지막으로 어린이 책읽기, 도서관 대중화 등의 의식을 가진 풀뿌리 지역운동가들의 헌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책읽기 문제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는 ‘운동성’인 만큼,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이끌고 운영했던 운동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밑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만족치 못한 현실에서 주민 가까이에서 정서적으로 밀착시켜 출발한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부족분을 메우는 보완적인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작은도서관 운동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관점에서 현 단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작은도서관, 민간 도서관운동으로서의 가치와 책무

작은도서관 운동의 핵심적 정신은 '풀뿌리 정신'과 '운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정신'은 마을의 저변 층 현장에 뿌리내리고 현장의 힘으로 지탱하며 도서관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며, '운동성'은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하여 주민의 공동참여를 바탕으로 도서관 문화의 개선을 이끌어 나가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본질적으로 민간영역의 도서관운동인바, 과거시대 선진국의 작은도서관이나 현대 일본의 문고운동 모두 그러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영역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후원금 활동, 자원봉사 등)를 바탕으로 하는 자조(自助)·자립(自立)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운 도서관운동입니다.

②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강화

• 필요성

현대의 도서관은 어느 나라이든, 어떠한 관종이든 독자적으로 존립하면서 홀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동일한 공공도서관 범주 안에 속하면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관내의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협력해야 하는 일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공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자세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 정책이나 재정지원 획득에서 공생의 관계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제로섬'의 관계로 인식하는 일부의 그릇된 시각에 대해 언론⁷⁾에서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7) 경향신문 2013. 6. 4일자 컬럼 [경향의 눈] 작은도서관의 함정, 신동호 논설위원

...전략...

작은도서관에 대한 곱잡은 얘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자, 도서관 운영자, 사서, 서점주, 도서관 운동가, 출판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어느 모임에서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건 당연했지만 작은도서관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뜻밖이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큰 혼란을 겪었고, 말귀를 알아들은 뒤에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생략...

작은도서관이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동과 진흥 정책이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향상에 놀라운 기여를 해온 점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는 점을 도서관계 일각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런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전국에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첫 번째다.

...생략...

‘공중의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규모 공공도서관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작은도서관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출발하여 평생 공공도서관 공부를 해오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양측은 인식의 전환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공공도서관 측에서 :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 늘리기 · 주민의 도서관 이용습관 키우기 등 공공도서관의 잠재고객을 양성하여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필요.
- 작은도서관 측에서 :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거점 도서관으로서 우뚝하게 제몫을 할 수 있어 야만 비로소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며 육성하는 실무를 감당 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 보완 운동이라는 인식 필요.

즉, 작은도서관만으로 모든 주민의 망라적(網羅的)인 도서관서비스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역단위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면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 ·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4천개 작은도서관(문고)의 중심조직인 일본의 '부모독서 지역문고 전국 연학회'(親子讀書 地域文庫 全國 連絡會)의 여러 역할 중에 지역의 공공이나 학교도서관 진흥 활동도 중요시하고 있다 합니다.

- 연계 · 협력해야 하는 일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양측이 지방정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정책과 행정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도서관의 가치와 정신을 함께 인식하며 쌍방 소통과 교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순회사서 지원 체제 운영, 작은도서관 실무운영 교육, 자료 상호대차 업무, 작은도서관에서 충족 못한 이용자를 공공도서관으로 유도,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합 행사, 공동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등 실정에 맞는 일을 찾아 협력할 수 있겠습니다.

③ 양적 확산보다 정비와 질적 성장 유도해야

현재 작은도서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5,234개(14년말 통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많지만 부진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2011년도 실태조사 분석 자료와 그 후 2014년까지의 분석 자료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절반에 가까운 작은도서관들이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⁸⁾ 이러한 현실은 자율적인 민간운동에 있어서는 어쩔 수

...후략...

8)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없이 뒤따르는 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지원과 개선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확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으로 정비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강화하고, 질 문지 실태조사⁹⁾는 물론 방문조사 자료를 지자체 당국이나 관내 공공도서관이 세밀하게 평가토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평가결과를 엄격히 연계시켜,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지원액을 늘리거나 정비해 나가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④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명료한 정책 필요

현재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립의 작은도서관은 전체 작은도서관의 1/4에 해당하는 1302 개관(2014년 말)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새로운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보다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교육, 정비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도서관을 신설한다면 제대로 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설치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육성하게끔 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취약하다 하여 직접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든가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이나 ‘소분관(sub-branch)’으로 설립하고 정규직원을 두어, 전체 ‘공공 도서관 시스템’(인사, 재정을 한곳에서 통괄)의 일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양적인 실

293-314, 2013

- 2011년도 실태조사를 분석한 위의 자료에 의하면 총 200점 만점에 70점 이하인 C등급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36%에 달한다.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 정보학 회지』 49(4): 31-52, 2015

- 2012-14년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위의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력의 경우, 상근직이 1인이라도 있는 곳이 사립은 51.9%, 공립은 66.5%밖에 안 되어, 전체의 1/2 내지 1/3의 작은도서관들은 상근 인력 없이 운영하는 실정이다.

9) 작은도서관진흥법 12조는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게 했었는데, 실태조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2016년 2월에 이 법을 개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까지 하도록 하였다.

적을 내세우면서 상근인력과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 민간 도서관운동 영역인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세우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몇 개의 공립 작은도서관 보다는 그 예산으로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정비·육성에 투입하는 것이 명분이나 효율성에서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왕 설치되어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속히 공립 ‘공공도서관시스템’에 편입하고,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변환시켜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외국의 경우 산간벽지에서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만 개관하는 규모가 작은 공립의 공공도서관 ‘분관’도 꽤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작은도서관 운동과 지방정부 고유영역인 도서관행정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도서관계가 우려하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혼란도 방지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공립 공공도서관들이 관내에 설치된 민간주도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아우르고 ‘도서관네트워크’(독립적인 운영주체 유지하며 연계협력)를 구축하여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 정책을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정부는 기존 사립 작은도서관이 민간 도서관운동으로 특성화 되도록 행·재정 지원에 집중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중앙정부는 작은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구현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小さな図書館の展開過程と意味、その方向」

イ・ヨンナム

漢城大学校名誉教授

1 小さな図書館、韓国特有の図書館現象なのか？

韓国の「小さな図書館」という言葉は、親しみの感じられ誰でも分かりやすい美しくてやさしい言葉で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外国の図書館員に説明する際には、理解してもらうにはやさしくない用語の中で一つでしょう。先進国にも多様な規模の図書館がありますが、すべての図書館がその地域の「図書館システム」に属して、韓国の「小さな図書館」というような独特の概念がないからです。すなわち、先進国において小規模（small）の図書館は、サービス対象人口数や図書館の規模などのような環境的な要因によって定義され、普通の公共図書館の「分館」として地方自治体によって運営される図書館をいいます。一例をあげますと、アメリカでいう small libraryは、人口25,000名以下の地域にサービスする小規模の公共図書館を意味し、全体公共図書館のうち、4分の3をこえるといわれます。

韓国の小さな図書館と最も類似な形の図書館は、日本で探すことができます。日本において、最近まで「子ども文庫、家庭文庫、地域文庫」などのようにいわれている「文庫」という用語があります。元々「文庫」という言葉は、日本で「図書館」という用語が使われる前、libraryを意味する言葉でした。そうする中、1880年「図書館」という言葉が公式的に使用されはじめ、「図書館令」が公布（1899）された後にも図書館という用語の代わりに文庫という言葉がよく用いられました。現在は、制度内の公共図書館の外の民間図書館活動を、主に「文庫」という用語で表現しています。具体的な活動事例については、トモエ文庫を運営されている草谷桂子先生の今日の講演で詳細な説明があると思います。

韓国の「小さな図書館」の形態は、今日の欧米の国では探しがたいとしても、これから2、3百年前図書館先進国において活発に展開され、世界の図書館の歴史に大きい影響を与えた図書館運動でした。韓国と比較しながら示唆するところを探るため、まずこれを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

◆ 先進国、民間の草の根のような図書館運動が「公共図書館」の芽を出し

ご存じのように、過去時代の図書館は、大体特殊階層だけにサービスする機関であったため、一般公衆は近づきがたいところでした。15世紀印刷術の発明以後にも市民大衆の読書のための公的機関はなく、本へのアクセスは徹底的に市場にまかされたからです。政治・社会的な発達と民権意識が芽を出しはじめた18世紀前後、イギリスとアメリカにおいて過去には見られなかった新しい図書館運動が始まりました。近代的な公共図書館や無償義務教育制度が設けられる1百数十年を先駆けた時代に、市民自ら本にアクセスする方法を模索し始めたのです。その時代に試みたいいくつかの草の根図書館運動の事例イ・ヨンナム『近代公共図書館概念の形成過程に関する研究：イギリスとアメリカを中心に』、『漢城大学校論文集』299-311.1990. は次の通りです。

① 教区図書館

17世紀末頃、イギリスでブレイ（T.Brady）牧師が貧しい地域の聖職者や一般大衆の利用のため、教区単位で小規模図書館を設置する運動を展開し、約60ヶ所の教区図書館を設置しました。ブレイ牧師は、その後植民地であったアメリカに発令されてからもメリーランド州などに、数十ヶ所の教区図書館を設置したという記録が伝わっています。

②会員制図書館

自発的に集まった中産層市民たちが組合の形で参加し、基金を設け設立・運営した小さな図書館の形態です。イギリスにおいて1720年ごろブッククラブの形態から出発したが、アメリカにおいてB. フランクリンが1731年「フィラデルフィア無料図書館組合」をつくって、公共図書館制度ができるまで1百年余り様々な地域に拡散しました。ニューイングランド地方のみで1千ヶ所余り設置されましたが、平均存立期間は35年程度であったそうです。

③技術工図書館 (mechanic institute library)

会員制図書館の変形として、工場地帯の勤労者向けに設立された図書館です。1823年イギリスのグラスゴーに初めて設立された後、公共図書館の法制化(1850)の時期まで400ヶ所まで増えました。図書館運営経費は、経営主あるいは有志者などが支援する場合もありましたが、ほとんどは勤労者が負担する少ない経費で運営されました。公共図書館制度が初めてできた際いくつかの地域はこの図書館の建物のあった場所で公共図書館を開館する場合もあったそうです。

④商業図書館

アメリカのボストン地域の商人ウッド(W. Wood)がイギリスの技術工図書館からアイデアを導入し、19世紀初ボストン、ニューヨークなどにおいて産業体職工の教育と福祉改善のための図書館として設立運動を展開しました。この図書館の会員の職工は、イギリスの技術工図書館の会員より社会的なレベルが高く蔵書も多く専門化しました。

⑤貸出図書館

イギリスはエディンバラ(1725年)において、アメリカはメリーランド州(1762年)においてから、営利目的の貸出図書館が増えました。これらの図書館は大衆の読書傾向のみ焦点をあてましたが、公共図書館の誕生以降公共図書館が大衆の支持を得るため利用者の読書欲求に迅速に対応するようにし、その競争関係へ影響を与えたともいわれます。

このようタイプの読書活動は、市民が本を読む必要性を自覚し自らの意思で始めたので、その意義は大きいでしたが、時点は違っても今日の韓国の「小さな図書館」という概念と同じ図書館運動であるといえます。とりわけ過去の特権階層のみ利用した重厚な図書館とは違って、一般大衆の若干の経費負担があっても自分の意志によってアクセスできる敷居の低い図書館でした。これのみならず蔵書は学術的な本よりは若者や市民の要求にあわせた本を揃え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後代の公共図書館が学術・宗教の本のみならず大衆的なコレクションもできるという意識変化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特定の個人や団体など民間レベルの任意で自発的な行為によるものでしたが、中世からきた学術図書館や貴族の個人図書館などの重い雰囲気から離れた軽快な雰囲気の草の根「小さな図書館」でした。

1百年間社会底辺のこのような図書館運動の影響から、いよいよ19世紀中ほどイギリスとアメリカにおいては「法律にもとづき政府財政で運営する公共図書館」という民主的な制度を法制化され、地方自治団体が直接運営する公共図書館を誕生させ、世界に広めました。公共図書館が制度化する前、このような草の根の民間運動は後世に学界において「準公共図書館(semi-public library)」あるいは「社会的図書館(social library)」運動とよんでいます。

その後、公立の公共図書館と分館が地域の処々に拡散し、過去一百年間草の根運動として活動したこれらの民間図書館の中で規模の大きい会員制図書館は私立の公共図書館へ変形されいまでもその名声を続け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が、ほとんどは時代的な任を全うし消えてしまうか当地域の公共図書館体制に組み入れました。一言でいうと、この時代の小さな図書館は市民大衆に草の根の読書活動の機会を提供し、本を読む価値を拡散させ制度圏の図書館を求める土台をつくり、政府当局はこのような底辺の欲求にもとづいて税金で運営する公共図書館関連法を制定・施行しました。先進国の小さな図書館は「公共図書館制度の触媒型」運動であったといえますが、この運動が築いた土壌から生まれた公共図書館制度は、早いうちに根を下ろし民主社会の中核機関として成長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2 小さな図書館、韓国の過去はどうだったか？

◆ 韓国は過去に草の根の図書館運動の跡形は見られず

韓国も過去に充実した図書館と典籍文化の伝統をもっていました。民が図書館と本にアクセスできる社会的な制度はありませんでした。大韓帝国の開化期に俞吉濬(ユ・キルジュン)先生の『西遊見聞録』(1985)において西洋の図書館が紹介され、韓国に初めて公共図書館という概念が知られました。開化派の識者は公共図書館を愛国啓蒙のための教育施設と開化文明のシンボルとして受け入れ、近代図書館を一つつくる運動を始めたこともありますが、その中日本に合併され霧散し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日帝強占期にいくつかの公共図書館が設立されましたが、日本の植民政策の一環として認識され韓国の国民の情緒と密着するには限界がありました。

ところが、韓国の公共図書館運動を考えると切ないことがあります。西洋は社会底辺層の読書欲求を組織化して草の根のような小さな図書館をもとにして公共図書館が誕生したことに比べ、韓国は社会底辺の自生的な草の根運動の基盤が無いままその概念が先覚者によって急に輸入されたことです。韓国には公共図書館制度が知られる前自由な読書についての社会的な渴求をいやす大衆による自発的な方法の模索や草の根活動の事例は探し難いです。一例をあげると、朝鮮時代のある士人(許均)の文集には、自分が中国で購入した書籍を故郷の儒生と回覧したというように、極めて短編的な記録が伝わっているが、継続的で体系的な意味のある図書館活動につながっては言い難い。

。日帝強占期に一部の地域において読書活動を進めた事例は見られますが、「知識の大衆的な拡散」「市民の読む権利の確保」などのような図書館的な価値というよりは独立運動や文盲退治の延長線からの国民啓蒙運動の性格でした。解放直後は混乱と戦争が重なったため日帝強占期から受け続けられた少数の公共図書館の維持や管理に汲々とし、自発的で自主的な民間の図書館運動は期待することが難しいでした。

このような歴史的な観点からみると、大衆の自発的な草の根の図書館運動による基盤の無い条件で、外部から輸入した公共図書館の概念と制度を通じて社会に公共図書館の根を定着させることはそれほど大変であるしかないことで、韓国の公共図書館が長い間市民と離れてきたり発展が難しかったりした理由には、このような社会・歴史的要因が作用したと考えられます。

◆ 韓国における草の根の図書館運動の始まり

韓国の本格的な草の根の図書館運動は1961年に町(村)文庫運動から始まったといえます。この運動は韓国戦争の休戦直後、蔚山(ウルサン)私立図書館・慶州(キョンジュ)邑立図書館長と韓国図書館協会事務局長として活動した嚴大燮(オム・デソップ)が、韓国の実情においては農村の町レベルの図書館運動がなにより緊急であるという考えから始まった運動です。当時、公立の公共図書館は大都市に18ヶ館程度で、それも学生の勉強部屋ぐらいにとどまっている状況であり、農村まで公共図書館が普及されることを待つことはとても時間がかかるから、ちび図書館のような文庫を設置する運動をはじめようとしてしました。読書習慣や図書館利用の習慣が少なく社会経済的な水準が低いほど住民と近いところに図書館が求められるから、農村の町に小規模でも住民と密着できる図書館運動を民間レベルで広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理でした。

文庫運動の展開方法は、有志者が故郷に文庫を設置することを進め町に設置した後、文庫は読書会が自律的に運営し住民共同努力によって新しい本を購入し増やして育成するという戦略でした。70年代から全国の3万ヶ所の町に文庫が急速に拡散しましたが、その中自然に不十分な文庫が増え中央の推進体は財政難に陥って1980年セマウル(新しい町)運動中央本部に吸収されました。現在農村の都市化による文庫の合併などの整備過程を経て、セマウル文庫あるいはセマウル小さな図書館という名で1,300ヶ所ぐらいが運営されています。

町文庫運動が始まった当時、この運動の究極の目的は「公共図書館を代替する運動ではなく、劣悪な公共図書館を補完する運動」であることを最初から標榜しました。将来公共図書館の環境がよくなり町文庫もより充実すれば、その地域の公共図書館と連携する「公共図書館網」を形成し、町レベルの最一線の図書館組織あるいはサービス拠点の役割を果たせるという戦略でした。そこで70年代後半一部の地域は公共図書館との協力活動を試験的に実施しましたが、全国的に推進する条件にはありませんでしたイ・ヨンナム、図書館運動家 嚴大燮 評伝：このような人がいたね、ソウル：韓国図書館協会、2013。

◆ 1990年代前後の新しい小さな図書館運動の胎動

1980年代後半民主化運動を経ながら高まった大衆運動の関心が反映された雰囲気の中で民間の小規模図書館ができ

ました。1987年以後釜山地域を中心に「図書館」「住民図書室」運動などがありましたが、この中の一部は工団地域を中心に労働運動を支援する目的が強かったため図書館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ずしばらくの間しか支えられず消滅してしまいました。そうしながら1990年代前半には公共図書館の不足とサービスの劣悪さを取り返すため文庫や地域住民図書室運動を地域において活発に展開しました イ・ヨンオク, 韓国公共図書館運動史, ソウル: 韓国図書館協会, 164-165, 2002.

これにあわせて政府はこのような運動を進めるため1994年制定した「図書館及び読書振興法」において「文庫」に関する条項を入れました。すなわち、「図書館の一般的な目的と機能を遂行しているが、図書館の基準に未だ達していない規模の読書施設」を文庫であると定義し、制度圏の図書館との連携・協力のための枠を提示したのです。しかし、社会においては法条文に明示した文庫という用語よりは「小さな図書館」あるいは「子ども図書館」という用語がより使用される雰囲気でした。町文庫・セマウル文庫などのように長い間使用された「文庫」という用語に食傷し、官がリードするというイメージから脱皮し、文庫より施設や運営において良好な図書館としての新しいイメージを表現しようとした結果であると考えます。このような過程の中で文庫型の多様な読書施設の連合会として「小さな図書館協議会」が1994年できるなど、「小さな図書館」という名の新しい図書館運動が公共図書館の制度圏の外から起こり継続的に拡散しました。

いよいよ2004年には文化観光部が政策報告書である「創意韓国21:文化ビジョン」において1万ヶ所の小さな図書館、隣りの図書館拡充運動」を提示しました。つづいて国立中央図書館は2005年に「小さな図書館振興チーム」の組織を新設し小さな図書館という用語を政府組織において初めて使用し関連研究報告書を引き続き発行するなど 韓国文化観光政策研究院, 小さな図書館の分館システムの構築方案, 国立中央図書館, 2006.

ナム・ヨンジュン, 小さな図書館(文庫を含める)中長期発展方案研究, 国立中央図書館, 2006.

小さな図書館の拡散や振興に力を込めました。2009年改定図書館法においては小さな図書館を「公衆の生活圏域において知識情報および読書文化サービスの提供を主な目的とする図書館として公立の公共図書館の施設および図書館資料の基準に達していない図書館」という表現で定義づけ使用することになります。ちなみに2012年には「小さな図書館振興法」を別に制定し小さな図書館の設置や振興に関する様々な事項を法律によって進めてきました。

冒頭で先進国の小さな図書館運動は今から2~3百年前行われた「公共図書館制度の促進タイプ」の図書館運動であっ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我々は公共図書館の概念を取り入れて120年、建国以後最初の図書館法を制定して50年の経った今日まで、当然ながら公共図書館がこたえるべき地域住民の知識、情報、文化についてのニーズを小さな図書館が一定の部分を担っているといえます。この点から韓国の小さな図書館運動の性格は、その間量と質において不足した公共図書館を補完するための方策として始ま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そして我々の小さな図書館の性格は先進国とは違う「公共図書館サービスの補完タイプ」運動であると規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現段階における小さな図書館運動の価値と方向

◆ 小さな図書館の急速な拡散の社会的な背景

① 公共図書館サービスの欠乏現象を克服するため

・ 図書館へのアクセス

公共図書館の数が不足しアクセスが不便であった状況であったため、住民は小さな規模でも町近くの図書館を求めたからです。専門的な資料の利用者のほかに、市民大衆や子どもにとって図書館は歩いて10分程度の距離にある方がよいという論理は検証された事実であるからです。

・ 公立図書館の硬直性を切り抜けるため

公立図書館は組織の基本的な性格上民間組織よりは相対的に固い印象を与えます。官僚制組織の根幹は人の恣意的な判断よりは法律や種々の規定による判断を優先する運営をしなければならず柔軟性が相対的に落ちるからです。

・ 勉強部屋のない図書館の夢

最近非常に良くなりましたが、その間韓国の図書館の根深い問題は勉強部屋を主とする運営でした。勉強部屋の

ない小さな図書館は子どもの遊び場であり、読みたい本を選び、住民の出居として隣近所の人と交わることのできる魅力的なところであるからです。

②住民と情緒的に密着した運営

- ・小さな図書館は、町レベルの地域運動と軌を一にする場合が多いでした。それほどその地域の住民とともに参加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交流する「コミュニティー空間」として根を下ろし情緒的に住民に近づいたからです。
- ・もじもじして入ってくる子どもに名前まで呼びながらもてなす職員の姿は、間違いなく小さな図書館の魅力でした。大きい規模の公立図書館は周期的な人事異動の原則によって子ども室の司書が同じところに長くいることができず、住民とそれほど密着することも難しい状況でしょう。

③市民社会の積極的な対応と政府の関心

- ・1990年代前後の時期は民主化の雰囲気の中で市民社会と関連団体が活性化し当時までの図書館運動をじっくりと考える機会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社会的な背景から草の根の小さな図書館運動は自然に火がつきました。
- ・2000年代前後には小さな図書館、子ども読書などの専門的な市民団体がより増加し社会的雰囲気をつくりあげメディアを刺激して小さな図書館への社会的な関心を引き出したことも重要な事実です。
- ・つなみに10年ぐらい前からは文化観光部による政策的な関心や支援も少ない役割を担ったと考えます。

④草の根活動家の献身

- ・最後に子ども読書、図書館の大衆化などについて意識のある草の根地域活動家による献身があげられます。小さな図書館は本質的に施設中心ではなく、読書問題についての信念を現実化する「運動の性格」をもつため、その間小さな図書館をリードし運営した活動家たちの情熱と献身から支えられたと考えます。

◆ これからの課題と提言

公共図書館のアクセスが不便であり、サービスに満足できない現実において住民の近くに情緒的に密着して出発した小さな図書館運動は、公共図書館サービスの足りなさを埋める補完的な役割が大きかったと考えます。このような背景からその間社会的な関心や反響を受けた小さな図書館運動がこれからも継続的に成長し社会において望ましい公共図書館の文化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念願し、いくつかの観点から現段階の問題点とその対策を提示したいと思います。

①小さな図書館、民間図書館運動としての価値と責務

小さな図書館運動の核となる精神は「草の根精神」と「運動の性格」であると考えます。「草の根精神」は町の底辺層の現場に根を下ろし、現場の力で支えて図書館の価値を追求する精神であり、「運動の性格」は自発的な意思によって始め住民の共同参加に基づいて図書館文化の改善を導いていくボランティアとしての姿勢であると考えます。そして小さな図書館は本質的に民間領域の図書館運動であり、過去時代の先進国の小さな図書館も現代日本の文庫運動も同じでした。地方政府の支援を受けても民間領域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自立性を壊さないようにし、そのためには住民の自発的な参加（ドネーション活動、ボランティアなど）をもとにした自助・自立の基盤が前提として求められる難しい図書館運動です。

②小さな図書館と公共図書館の連携強化

- ・必要性

現代の図書館は、どの国でもどの種類の図書館でも独自に存立して一館で運営することは不可能な状況です。なお同一

の公共図書館の範疇に置かれていながら公立の公共図書館と管内の小さな図書館が互いに連携・協力することは、自然であり必然的です。しかし、公立の公共図書館と小さな図書館が互いに連携・協力する姿勢が消極的であり、その上に政府政策や財政支援の獲得において共生の関係というよりは相互競争する「ゼロサム」の関係のように認識する一部の間違った視点についてメディア 京郷新聞 2013年6月4日コラム

「京郷の目」小さな図書館の落とし穴、シン・ドンホ論説委員

・・・前略・・・

小さな図書館についての美しい話がよく聞こえるからだ。文献情報学者、図書館運営者、司書、書店の店主、図書館運動家、出版業従事者などで構成されたある会のことであった。図書館に関する様々な問題点が出てくるのは当然のことであったが、小さな図書館が批判の対象になったことは意外であった。「小さな図書館が図書館発展の障害」という話まで出た。最初は小さな図書館に持っていた既存の信念に大きな混乱が巻き起こり、その意味が分かってから少なくないショックを受けた。

・・・省略・・・

小さな図書館がその名通りきちんとされたらこれ以上のことはない。その間小さな図書館運動と振興政策が図書館の発展と読書文化の向上に驚くべき寄与をしてきた点をけなす理由もない。ただ、政府と地方自治団体が小さな図書館を中心に図書館政策を展開する際、相対的に公共図書館全般に関する関心と支援がおろそかになった点を図書館界の一角が非常に危惧しているのが気になった。そのような要素は様々なところで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全国において小さな図書館がどのぐらい有り、どのように運営されるかきちんと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構造がその第一である。

・・・省略・・・

「公衆の情報利用・調査・研究・学習・教養・生涯学習などに資する施設」になるためには中・大規模の公共図書館がしっかり位置づけられ小さな図書館の緊密につながなければならない。

・・・後略・・・

も危惧していることは、小さな図書館運動から出発して一生公共図書館について勉強した人として恥ずかしいぐらいです。これに関しては両側における認識の転換が最優先的に求められます。

一公共図書館の側から：小さい図書館は読書人口の増加、住民の図書館利用習慣の育成など公共図書館の潜在した顧客を養成し、結果的には公共図書館のインフラを丈夫にするのに大いに助けになるという認識が必要。

一小さな図書館の側から：公共図書館は地域の拠点図書館としてよききりと自分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たら地域内の小さい図書館を抱いて育成する実務を担うことができ、小さな図書館は窮極的に公共図書館の補完運動であるという認識が必要。

すなわち、小さな図書館のみで全ての住民の網羅的な図書館サービスを満足させるのは容易ではないため、地域レベルにおいて公共図書館が小さな図書館を抱きながら「図書館のネットワーク」を構成し連携・協調体制を構築してこそシナジー効果を出せます。3～4千ヶ所の小さな図書館（文庫）の中心組織である日本の「親子読書地域文庫全国連絡会」はその多様な役割の中で地域の公共図書館や学校図書館の振興活動も重要視するといわれます。

・連携・協力すべきなこと

公共図書館と小さな図書館の両方は地方政府の小さな図書館のための行政・財政支援政策と行政内容を共有し、地域図書館の価値と精神をともに認識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交流に役立つ活動を探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一例をあげると、巡回司書支援体制の運営、小さな図書館における実務運営に関する教育、資料の相互貸借業務、小さな図書館で満たされなかった利用者を公共図書館へ誘導、読書文化プログラムの連合行事、共同図書管理システムの運営など実情にあわせたことを探し協力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す。

③量的な拡散より整備および質的な成長を誘導すべき

現在小さな図書館の数は全国的に5, 234ヶ所（2014年末統計）に至っています。しかしよく運営されている館も多いですが不振な館も少なくないです。2011年度実態調査の分析資料とその後2014年までの分析資料はこのような現象を明らかに示しています。だいたい半分近くの小さな図書館が自分の役目を果たすことが難しいように見えますキム・ボイル、ジョ・ミア、ビョン・ヒョンジュ、運営診断を通じた類型別小さな図書館の事例分析研究、『韓国文献情

報学会誌』・47(2):293-314,2013.

・2011年度実体調査を分析した上記の資料によると、総計200点満点で70点以下のcレベルの小さな図書館が全体の36%に当たる。

キム・ボイル、ジョ・ミア、ピョン・ヒョンジュ、小さな図書館の運営実体分析を通じた活性化方案に関する研究 『韓国文献情報学会誌』・49(4):31-52,2015.

・2012～14年までの実体調査結果を分析した上記の資料によると、図書館運営の成敗を左右する人の場合、常勤の人が1人でもいるところは私立が51.9%、公立は66.5%にしかならず、全体の2分の1あるいは3分の1の小さな図書館は常勤の人がないまま運営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このような現実はいわゆる民間運動には仕方なくついていくことであるため、継続的な指導・支援と改善の措置を強力に推進するしかありません。

そして、これからは量的な拡散ではなく、きちんとした公共図書館、きちんとした小さな図書館として整備し育成する方向へと政府政策の焦点を当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小さな図書館の基準を強化し、質問紙による実態調査 小さな図書館振興法12条は、毎年市長・郡首・区長が小さな図書館の運営実体を調査しその結果を図書館情報政策委員会に提出するようにしたが、実態調査の効用性を高めるため2016年2月この法を改定、図書館情報政策委員会をして実体調査結果を公表するようにした。

のみならず訪問調査資料を自治体の当局あるいは管内の公共図書館が綿密に評価するようにし、地方自治団体の支援は評価結果と厳格に連携させ選択と集中の方法を通じて支援金を増やし整備していく案の検討が必要な時期になりました。

④小さな図書館に関する政府の明確な政策が必要

現在にも複数の地方自治団体が政府の予算から「公立小さな図書館」を設置し運営している地域が少なくないです。現在全国的に公立の小さな図書館は全体小さな図書館数の4分の1に当たる1,302ヶ館(2014年末)に至ります。地方自治団体の小さな図書館政策は、私立小さな図書館への支援、教育、整備などに集中すべきであり、新しい公立小さな図書館の設置は望ましくないと考えます。

なぜかという、地方政府が図書館を新築するならば、きちんとした「公立の公共図書館」の設置に集中すべきからです。それからその公共図書館をして周辺に設置されたが運営に大変な私立小さな図書館を支援・育成しめるのが無理であり、この時点で政府が管内の私立小さな図書館が脆弱したとして直接に公立小さな図書館を設置・運営することはしるべきではないです。

もし地方政府の予算が不足したり小さな規模の図書館が仕方なく必要な地域であれば、公立の公共図書館の「分館」あるいは「小分館(sub-branch)」として設立し正規職員を配置して全体の「公共図書館システム」(人事、財政を一カ所で総括)の一環として運営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治団体が量的な実績を押し立たせながら常勤職員と運営費を最小化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誘惑のため、民間による図書館運動の領域である小さな図書館を公立として設立することはもう中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いくつかの公立小さな図書館よりは、その予算で私立小さな図書館の整備や育成に投入した方が名分としても効率性としても望ましいです。

むしろ私はすでに設置された公立小さな図書館を迅速に公立「公共図書館システム」に取り入れ、公共図書館の「分館」として変換させ運営することを主張してきました。外国の場合、山間僻地では特定の曜日や時間のみ開館する規模の小さい公立の公共図書館の「分館」も相当あります。民間領域の小さな図書館運動と地方政府の固有領域である図書館行政がもとの場をさがしてこそ、図書館界が危惧する公共図書館の生態系の混乱を防ぎ私立小さな図書館の育成にも効果的であると考えます。

このような観点から地域における公立の公共図書館が管内に設置された民間の私立小さな図書館をどのように抱き「図書館ネットワーク」(独立的な運営主体を維持しつつ連携・協力)を構築して支援するかについての長期・短期の政策を地方政府が優先的に樹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基盤の上地方政府は既存の私立小さな図書館が民間の図書館運動として特化していくように行政・財政の支援に集中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なお、図書館情報政策委員会と中央政府は、小さな図書館の長期的な発展のためこのような中核的な政策が地方自治団体において具現される実践的な方策を設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提案します。

[특별강연]



쿠사가야 게이코(草谷桂子)

토모에문고 대표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쿠사가야 게이코라고 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와 책을 소중히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 기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한가운데 위치한 후지산이 있는 인구 370만 명의 시즈오카현의 현청 소재지인 시즈오카시(인구 70만 명)에 살고 있습니다. 토모에문고(トモエ文庫)라고 하는 가정문고를 운영하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온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문고를 운영하고 자녀 3명과 손주 7명에게 그림책을 읽어준 경험을 살려서 동화와 에세이, 어린이책 서평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첫 방문에는 '무스비메카이(매듭모임)'라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는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로 와서 도서관 4곳을 견학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일본에 살고 있는 친한 한국인 친구(현재는 미국 거주)에게 초대 받아 친구의 서울 본가에 4일간 홈스테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민속촌, 전쟁자료관, 동대문 시장 등을 안내 받았고, 친구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많은 김치를 주었는데 공항에서 풍선처럼 발효된 김치 때문에 공항 관리관에게 검사를 받았던 재미있는 추억도 있습니다. 관리관에게 옆에 있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 통과시켜주었습니다.

2008년에는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모자독서·지역문고 전국연락회 대회에서 당시 한국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서관 행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의지에 의한 추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억들 덕분에 한국은 저에게 무척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매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오

늘 강연도 제가 하기에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뜻을 가진 여러분과 만난다는 즐거움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문고가 일본 문고의 전형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가정문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후반부에는 가정문고에서 발전하여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토모에문고에 관하여

(1) 가정문고를 시작하게 된 이유

저는 현재 72세입니다만 1981년 37세에 문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15세, 12세, 6세였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와 관계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에게 딱 맞는 활동이 문고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때, 몇 십 년에 한번 있는 큰 태풍이 와서 마루 밑까지 침수되는 수해를 입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집을 다시 지을 때 방을 개조해서 문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다음 사항을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 가정도 학교도 아닌 제3의 평가는 하지 않는 장소로
-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즐거운 추억을 주는 장소로
- 책을 통해서도, 생활체험으로써도 다양한 모델과 만날 수 있도록
- 지역 아이들이 행복할 때 내 아이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 동화를 쓸 때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고민과 기쁨을 알고 느끼고 싶다.
-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보은을 하고 싶다(저도 어렸을 때 가까이 사는 언니가 많은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 문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주 1회 개최해왔으나 작년부터 월 2회 실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회비는 현재 무료. (처음에는 입회금 100엔, 대출카드 40권당 100엔)
- 장서수는 성인 대상 장서가 약 5천권, 어린이 대상 장서가 1만권(처음에는 시립도서관에서 단체 대출을 했으나 현재는 기부 등 소장 책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하지 않고 있음)
- 초등학교에 가까워 자녀나 손주들의 친구가 많이 오는 이점이 있음.
- 어린이책 대출, 스토리텔링, 그림책 읽어주기, 카미시바이(그림연극), 패널시어터, 손을 이용한 놀이, 콘서트, 차와 전통악기를 즐기는 모임, 마술, 과학놀이 등을 기획.

(3) 문고로 보는 어린이 독서환경의 변화

35년 간 어린이들을 보면서 일본에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문고를 보아도 옛날 아이들이 더 잘 놀고 책도 잘 빌려 읽었습니다. 또한 학원 등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게임, 스마트폰, 텔레비전에 시간을 빼앗긴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원도 있기 때문에 독서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스토리텔링 모임에는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온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어도 50명 정도입니다. 대출 책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이나 게임 등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놀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충실해졌다는 기쁜 일도 원인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부모들과 핵가족화 문제도 있으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풍부한 자연 환경도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은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도서관이 잘 갖추어진 다 하더라도 과연 모든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부모 자신이 독서와 멀어지고 있는 현황도 있고, 가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자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독서환경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고 전체적으로 최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인구 70만명의 시즈오카시의 경우, 20년 전에는 2개였던 공공도서관이 지금은 지역관과 분관을 합쳐 12개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도서관실에도 비상근직이지만 사서가 배치되어 충실하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 자원봉사자와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는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시즈오카시는 국내에서도 풍족한 편으로 일본 전체적으로는 아직 발전 도상에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본 어린이문고의 상황

한국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전국에 퍼져 있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들어서 부럽게 생각하였습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 독서 환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자치체에 큰 도서관 하나 보다도 작더라도 어린이들 생활권에 거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문고 활동은 단체 대출 이외에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개인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어린이 문고의 성립과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문고에는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2종류가 있습니다.
- 두 문고 모두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가정문고는 개인이 자택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문고는 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공민관, 절, 교회, 유치원 등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장서량, 기획내용, 이용료 부가여부 등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독서추진운동협의회 조사(2013년)에 따르면(발췌)

문고 수 1,215(어린이 대상)

382(어린이와 성인 대상)

합계 1,597

대표자의 평균 연령 59.6세

라는 조사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게이오기주쿠대학의 시오자키 준코(汐崎順子)씨는『일본의 문고: 운영 현황과 운영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2013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문고 활동의 여명기는 1951~1960년으로 무라오카 하나코(村岡花子), 이시이 모모코(石井桃子) 등과 같은 저명한 아동문학자에 의한 선구적인 문고 창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

책과 독서'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이후 계몽적인 활동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 1960~80년대 전반에는 문고가 크게 발전, 보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린이 책의 출판 상황도 활발해지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그림책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 1970년에는 모자독서·지역문고전국연락회가 생겨나 이 모임을 중심으로 공립도서관 설치를 요구하거나 독서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주민 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되었습니다(이 모임은 『어린이와 독서』라는 기관지를 격월로 출판하는 등 현재도 전국 독서활동을 인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980년 전후에 정점을 맞이하여 문고 수도 4,406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고가 발전했던 시기는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와 겹치고 도시화, 전업주부의 증가, 공공시설의 부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과 같은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2013년 조사) 문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장서수: 가정문고 약 3,035권 지역문고 약 2,425권 자원봉사자수: 가정문고, 지역문고 모두 10명 이하가 많고, 가정문고는 1명인 곳이 많아 33.1%(이 숫자의 크기가 갖는 의미가 커서, 개인이 전근하더라도 이사한 곳에서 문고를 계속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 고령화, 저출산, 이용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4%나 있습니다.
- 문고를 시작한 동기와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나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손수 건네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네 항목이 '동기'와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 비슷하게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3. 도서관지원 활동에 관하여

(1) 가정문고의 한계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겸허하게 지역분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과 만나는 행복을 제일로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 운영자는 장소와 공간의 제공자. 아이와 부모와 책이 주인공. 운영자가 자아실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 어린이에게 독서와 책을 건넨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 즐거운 공간에 책이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즉각적인 효과를 구하지 않는다.
- 공공도서관 발전에 이어진다는 관점을 중요시한다.

라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마지막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이어진다는 관점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문고는 어디까지나 공공 업무의 빈틈을 채우는 것입니다. 혹시 ‘문고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도서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고를 하는 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원봉사인 문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언제 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다. 영원히 계속한다는 보증이 없다.
- 전문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조화로운 도서 선택을 할 수 없다.
- 책 수와 종류에 한계가 있다.
- 언제나 문을 열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레퍼런스(조사학습에 대한 대응, 독서 상담)를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인해 한계를 자각하면서 공공도서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경우 가정문고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활동을 하면서 넓은 시야에서 공공 전체의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발전을 바라는 모임’이나 ‘도서관지원모임’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사는 시즈오카시의 도서관 활동에 대하여

다음으로 도서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 이용자들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문고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즈오카시내의 문고연락회인 ‘시즈오카 어린이책을 읽는 모임(이하 독서회, 1972년 발족)’에 입회하였습니다.

‘어린이 · 책 · 도서관’을 중심 테마로 하고 있는 이 모임의 활동 방침은 명확하여서, 모임 안내 팸플릿인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기쁨을’에는 활동의 4가지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 어린이책을 즐기고 배우며 정보를 교환함
- ‘어린이책을 배우는 강좌’를 시즈오카시립중앙도서관과 공동 주최로 기획 · 운영
- 어린이책에 관한 홍보 활동(강연, 교류, 책 소개 등)
- 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한 활동

이상에서 충실한 내용을 갖춘 ‘어린이책을 배우는 강좌’를 통해 저는 어린이책과 도서관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웠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도 타아가 있었던 것과 매년 ‘도서관 문제’에 관한 강좌가 있었던 것이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 속에서 독서환경을 생각하는 ‘독서회’로써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즈오카시에는 많은 도서관 관련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관과 분관이 세워질 때마다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 모임이 탄생해왔습니다. ‘언제나, 어딘가의 모임이 활발했다. 그랬기 때문에 시즈오카시 도서관은 어떻게든 발전해왔다’고 했던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개의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 시즈오카’가 발족하여 학교도서관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학교도서관에 전임, 전문, 정규직 인력을’ 목표로 오랫동안 착실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시 전체를 시야에 넣은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은 1988년에, 시민, 도서관 직원, 연구자, 학생, 의원, 각 지역의 모임 대표, 시 노동조직 관계자 등 폭넓은 층이 참가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시즈오카시민의 도서관 기본 구상’이라는 책자를 작성하고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홍보 등 실천 보다는 이론과 데이터로 도서관을 생각하고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3) 도서관 민영화 반대 활동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던 2005년 지역도서관에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문제(민영화)가 부상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본래 역할을 의원들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알리기 위한 자료 만들기과 공부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왜 도서관에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기다려! 민영화’라고 하는 저희들이 만든 팸플릿에서 발췌해 보겠습니다. 내용 해설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① 타 도서관,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도서관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관에 없는 자료도 전국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를 통해서 제공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면 고도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끊겨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 ② 단시간에 관리자가 바뀌면 계속적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서가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서 선택 방침, 장서 구성은 100년 단위의 업무입니다. 단기간 고용 된다면 장기적 전망을 가진 계획성 있는 업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직원도 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레퍼런스와 다문화 서비스,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노하우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즉 우리들 시민의 공유재산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술과 방침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윤이 요구되는 지정관리자와 민간위탁 도서관에 공립도서관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법상 문제가 됩니다.
- ③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걱정됩니다. 공무원에게는 비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민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에는 시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있지만(‘일본 도서관 2003년’ 참고), 이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관리하면 정보 유출이 우려됩니다. 또한 그 정보가 고객정보로써 매매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본래 이익이 없는 도서관이 이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서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은 효율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더하는 일이 요구되는 민간 기업이 경영한다면 어딘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어떤 대가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도서관법 17조)라는 무료 원칙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효성만을 목적으로 도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컬렉션 장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면 경험 없는 임시직 또는 아르바이트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고도의 서비스가 버려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⑤ 시민의 체크 기능과 목소리를 듣는 체제가 없어집니다.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문화수준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관리자에 있어서 첫 번째 고

객은 사업을 주는 행정이며, 시민과 이용자가 아닙니다. 책임이 간접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지정관리자’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주민감사청구와 정보공개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도서관협의회의 설치의무도 없어집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집니다.

- ⑥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서는 도서관 직원이 자신의 기호나 정서, 사상적, 종교적 입장에서 마음대로 도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이용자의 입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지만 민간인에게는 없습니다. 공평성, 공정성이 결여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 ⑦ 전문직이 경시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서, 전문가로써 일할 수 있는 사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최신 지식을 배우고, 이용자와 접하며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것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의욕 있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책임과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 전문가를 기르는 것, 이것이 결국 도서관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는 시(市)소속 직원에 비하여 대우가 열악하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가 길러질 리 없습니다. 인재가 없다면 도서관도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⑧ 시가 정책을 입안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도서관을 지정관리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도서관 운영을 ‘전부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도서관운영 경험자가 없어지고 맙니다. 노하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없는 가운데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왜 민영화가 되면 좋지 않은지’를 이곳저곳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관련 모임과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개별적으로 반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역대 시즈오카시 중앙도서관협의회(도서관 자문기관)의 위원들도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며 과감하고 성실하게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서관협의회도 여러 번에 걸쳐 보고서와 답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를 다음에 소개합니다.

■ 시즈오카시도서관협의회 보고서(2011년 8월 제출) 요지

- 시립도서관 운영은 직영이 바람직하며 지정관리자 제도는 어울리지 않는다.
- 전문 능력을 가진 정규 직원의 안정적 배치, 비상근 직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보장할 수 있

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앞으로 사회, 경제의 변화, 재정 상황 악화 시기에도 업무 합리화 등을 통해 가능한 직영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시외 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매년 기획하고 있는 현(縣) 단위의 시즈오카현 도서관교류회에서는 2007년에 ‘도서관이 좋아요!’라는 주제로 에세이와 시민 도서관정책을 모집하여 ‘도서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현 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서관이 좋아요!’에세이에는 49편, 시민 도서관정책 ‘우리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것’에는 282항목, ‘우리들이 도서관에 할 수 있는 것’에는 186항목이 응모되었습니다. 이 정책안을 바탕으로 ‘시즈오카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에서 정리한 것이 다음의 ‘시민 도서관정책’입니다.

※ 시민 도서관정책(발췌)

학교에 갈 수 없어도

장애나 병이 있어도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도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도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알 기회, 배울 기회, 읽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아는 방법, 배우는 방법, 읽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사회

‘아는 기쁨, 배우는 기쁨, 읽는 기쁨’을 얻을 수 사회

‘앎의 인연(知緣), 배우의 인연(學緣), 읽는 인연(讀緣)’을 기르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도서관은 건물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 권리, 배울 권리, 읽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이며 보다 나은 기능을 함으로써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100년 후의 아이들이 ‘시즈오카시에 살아서 좋았다!’고 말해주는,

시즈오카시를 그런 곳으로 바꾸어 갑시다.

‘시민의 도서관정책’에서는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친 이상적인 도서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것: 즐거움, 평온함, 미래가 있는 도서관’으로는

- 책과 정보와 사람이 만나는 광장
- 과거에서 미래로, 지역을 한 자리에, 세계를 한 자리에
- 곤란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전문가에 의한 전문 서비스
- 연결되고 서로 나누고 넓어지는 곳
- 학교, 어린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곳
- 정보 공개와 시민 참가

‘우리들이 도서관에 할 수 있는 것: 시민과 도서관이 함께 성장한다’로는

-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기른다.
- 도서관을 확장시키고, 도서관을 돕는다.
- 시민의 힘을 도서관에 모은다.
- 자료와 자금 모집에 협력한다.

(4)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 모임 성립에 관하여

도서관 민영화가 무효화 된 것은 6년 후인 2008년의 일이었습니다.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은 앞서 기술한 ‘시민 도서관정책’을 구현시키는 모임으로써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됩니다.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는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의 닳을 올린 것은 2008년 9월입니다. 20년에 걸친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 활동의 축적을 소중히 하면서 한층 폭넓은 범위의 도서관지원단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280명이고 고문 6명, 운영위원 13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연간 1000엔입니다.

입회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은 시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배우고, 도서관을 확장시키고, 도서관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도서관의 친구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도서관을 목표로 도서관과 도서관협의회와 협동하여 도서관 서포터로써 활동할 것입니다.

- 책과 정보가 풍부한 도서관

-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도서관
- 과거에서 미래로, 지역을 한 자리에, 세계를 한 자리에 모으는 도서관
- 곤란할 때 도와주는 도서관
-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연결되고, 서로 나누고, 넓어지는 도서관
- 학교, 어린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서관

(5)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가 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

현재 활동의 중심은 크게 2가지 목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과의 협동 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는 세미나와 ‘도서관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도서관 축제는 시 미술관과도 협력하여 미술관의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열고 학예원을 초청하여 치히로미술관 소장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종이접기 교실, 공작 교실, 스토리텔링 등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는 본 모임의 회원이 즐겁게 준비하였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만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덧붙여 이 원화 전시회 중에는 매주 토요일 미술관에서 본 모임 준비한 전시 그림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와 어린이들에 관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어떤 조직과도 협력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원 활동은 먼저 ‘시즈토모 기금’을 들 수 있는데 매년 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귀중본을 구입하기 위해 2015년까지 누계 350만엔 남짓이 기부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잡지 스폰서 제도에도 협력하기 시작하여 어린이 관련 잡지 3종을 연간 합계 18,000엔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서 선정에 있어서 본 모임의 ‘어린이를 소중히 하고,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응원하고자’하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에 대한 제언과 바람 등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안테나를 세우고 시즈오카시의 도서관협의회에는 회원 모두가 빠짐없이 방청에 참가하고, 의원, 교육위원회, 협의회의원에게 부지런히 회보와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 등의 시기에는 공개질문서 제출 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언서는 시즈오카시에는 2011년 봄과 2014년 가을에, 시즈오카현에는

2014년 가을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즈오카현립도서관의 경우 행정관계자의 노력도 있어서 즉각 효과가 있었고, 자료비 1,150만 엔을 증액하고 서고정비비 1,100만엔이 승인되었습니다.

시즈오카시에 대한 제언서(2014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도서관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영 체제의 유지
- ② 10년 이상 사서로써 경험을 쌓고 고도 정보사회에 대응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규 직원을 육성하는 것
- ③ 비정규 직원이 관(官)이 만든 빈곤 노동자가 되는 것(working poor)을 막고, 경력 유지와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5년 고용 후 계약 해지 제도를 폐지할 것

시즈오카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다면 민영화는 면하였지만 정규 직원의 감소, 직원의 비상근직화, 5년 고용 후 해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직원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일하는 보람이 있는 직장일 때 비로소 서비스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영화에 의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서관의 기본과 어린이에 대한 고려, 직원 처우를 경시한 민영 Tsutaya 도서관 모델이 일본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도서관'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치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로서 파악해야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에 가깝게 관계된 것으로 문제가 알기 쉽게 보인다 하더라도 국가적 정책과 흐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6)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저희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도 소속해 있는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4월 발족하여 '손을 잡고 도서관을 뒷받침하는 도서관의 친구 연학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메일링리스트 등으로 정보교환, 행정에 영향력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만 올린 회원이지만 운영위원 여러분은 자신의 지역과 나라 전체 모두를 시야에 넣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81개 단체, 122명의 개인(2015년 10월 현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원들 서로 뜨거운 토론을 거쳐 만든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2009년 채택)에 대해 해설(2011년 채택)을 더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

- ① 알 자유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우리들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로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얻으며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과제를 해결합니다. 도서관의 자료 수집을 제약하거나 검열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서가에서 철거, 폐기하는 것은 이용자 판단의 폭을 좁히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표현도 제한되는 일 없이 도서관에 축적되는 것으로 후세의 사람들도 알 자유와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깝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서관은 아기들부터 어르신까지,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일반 자료로는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외국인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책과 정보가 있는 광장’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 정보 격차를 없애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 ③ 자료와 정보가 풍부하고 수집, 정리, 보존,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와 정보는 폭넓고 풍부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에는 세계를 아는 자료부터 지역이나 생활에 관한 최신 정보까지 동서고금의 예시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보존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서의 즐거움을 위해, 과제해결을 위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 ④ 사서직 제도가 확립되고, 경험을 쌓은 관장과 직원이 있는 도서관완벽한 자료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가 과다해지면 질수록 수집, 정리, 보존, 제공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무 윤리를 갖추고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직원, 관장이 있는 사서직 제도가 확립한 도서관이 공공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질을 향상시킵니다.
- 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도서관우리들이 언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프라이버시 문제이며 도서관은 업무 상 알 수 있는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어떠한 종류의 자료와 정보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되는 일 없이 안심하여 입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개인 존엄을 배려하는 성숙 사회로 이끌어 줍니다.
- ⑥ 정보 공개와 시민의 뜻(民意)에 기반한 도서관협의회가 기능하는 도서관도서관협의회는 보다 나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 대표가 관장의 자문에 대응하며 관장의 의견을 말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공개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⑦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설치하고, 직접, 관리 운영되는 도서관‘도서관’은 법령 상 ‘교육기관’입니다. 평생학습의 거점인 도서관은 여러 가지 개입이나 간섭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수장부국(首長部局)에서 독립한 교육위원회에서 공적 책임 아래 직접,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계속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쉬워집니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의 이상향을 목표로 해서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 활동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활동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빠르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면담하여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지방 모임에 대한 지원까지 폭넓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에 의한 시민의 도서관 평가’도 2012년에 책정되었습니다. 지정관리자 제도 문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팸플릿 등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 모임은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에 가입하여 횡적인 연계가 가능해졌고, 일본 전체의 도서관 관련 과제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와 힌트를 공유하고 자치체와 입장을 바꾸어 활동함으로서 시야도 넓어지고 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시 미술관의 그림책 전시회에서 한 스토리텔링 이외에도 과학박물관에서 어린이 대상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폭 넓은 정보로부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도서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와 약자의 시점을 기본에 두는, 착실히 지역에 뿌리를 내린 활동을 중요시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새로움’에 안이하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시류에 단순히 편승하지 않고 도서관의 본래 역할을 안팎에 정확히 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이라는 시대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민과 직원 모두 관계자가 서로 정보를 부지런히 발신하고 팔짱을 끼고 연대하여 이해자를 착실히 넓혀가는 것이 ‘보다 나은 도서관’으로 최단시간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어린이와 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말은 저희 문고에 왔던 어린이들이 써준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와 같은 교

육적인 해석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책은 마음의 영양’, 몸이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먹는 것으로써 영양을 빠뜨릴 수 없듯이 마음을 풍요롭게 성장시켜주는 것은 책이라고 독서의 역할을 정곡을 찌르듯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 ‘토모에 문고로 사이 좋게 지내자’도 깊은 맛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책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많은 어른과 어린이, 또는 어린이들끼리의 대화가 생겨납니다. 책에 대한 감상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책을 읽는 기쁨, 삶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그림책을 읽고 꿈의 나라로’도 책으로 판타지로 들어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곤란과 고민이 있습니다. 엄격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읽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잊는 아늑한 시간이 되고 이 풍요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마음을 리셋할 수 있을 때 냉엄한 난국에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책을 읽는 것을 항구에 비유하여 말하곤 합니다.

험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돌아온 배는 연료를 채우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휴식해서 활기를 찾고 또 다시 거친 바다에 항해하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곳하게 살아가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독서하는 시간이며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문학자로 ‘카츠라 문고’의 창설자인 이시이 모모코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들이여, 어린 시절을 꼭 즐기세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당신”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소녀 말랄라는 ‘어린이 한 명, 교사 한 명, 책 한 권, 그리고 펜 한 자루. 이것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오직 한 가지 해결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쟁도 난민도 많은 오늘날 세계 정세 속에서 펜은 커녕 무기를 쥔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린 문고 활동과 사회에 시야를 넓힌 도서관 활동을 미력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가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알찬 독서환경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활약과 건강, 한국 도서관의 발전을 마음 깊이 기원하며 변
변찮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알찬 독서환경을!



쿠사가야 게이코

1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 도쿄에서 느티나무 도서관 박관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변변치 않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걱정이었지만 이번은 제가 배우러 왔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 일본 한가운데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 거주
- 35년 간 가정문고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활동
- 문고 경험과 자녀 및 손주 양육을 통한 그림책 경험을 살려서 동화, 에세이, 어린이 책의 서평을 쓰고 있음



- 한국 방문은 이번이 3번째
첫 번째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도서관 발전을 바라는 다문화 서비스 모임(무스비메카이)으로 도서관 견학
또 한 번은 한국인 친구(지금은 미국 거주) 집에 홈스테이 민속촌, 전쟁자료관, 동대문 시장 등을 견학.

2

문고 소개



가정문고를 위한 방은 4개가 있음. 3~4평 되는 그림책 방의 한 가운데 테이블에 대출 카드가 있음. 집 현관 옆에 문고 운영일만 문을 열어둠. 왼쪽 아래는 고학년 대상 아동서, 오른쪽 위는 어른 책과 아동 도서가 있고 이 방에서 행사를 함. 오른쪽 아래는 업무에 쓰는 책. 어른들에게만 대출.

문고에 대한 생각

- 가정도 학교도 아닌 제3의 평가는 하지 않는 장소로
-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즐거운 추억을 주는 장소로
- 책을 통해서도, 생활체험으로써도 다양한 모델과 만날 수 있도록
- 지역 아이들이 행복할 때 내 아이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 동화를 쓸 때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고민과 기쁨을 알고 느끼고 싶다.
-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보은
(저도 어렸을 때 가까이 사는 언니가 많은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고 활동

- 주1회 개최했으나 작년부터 월 2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회비는 현재 무료(처음에는 입회비 100엔, 대출카드 40책에 100엔)
- 장서수는 성인대상 약 5000권, 어린이대상 1만권(처음에는 시립도서관에서 단체 대출을 받았음. 현재는 기부 등으로 소장 도서가 늘어서 대출하지 않음)
- 초등학교가 가까워 자녀나 손주의 친구가 많이 오는 장점이 있음
- 어린이 책 대출. 스토리텔링, 그림책 읽어주기, 카미시바이(그림연극), 패널시어터, 손을 이용한 놀이, 콘서트, 차와 전통악기를 즐기는 모임, 마술, 과학놀이 등을 기획.

5

대출카드



대출 카드는 도서관에서 만들어 준 것.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종이접기나 색깔을 이용해서 자기 카드를 표시함.



← 문고의 장서 라벨
빨강은 그림책, 파랑은 중학생용,
초록은 고학년용

6

대출 카드는 도서관에서 만들어 줌.
자신의 카드를 표시하기 위해 아이들이 종이접기나 색깔로 표시함. 빨간 라벨은 유아, 저학년 대상, 파랑 라벨은 중학년 대, 초록 라벨은 고학년 대상으로 기준 잡고 있음.

여러 가지 독서 스타일



7

여러 가지 독서 스타일이 있음.

왼쪽 아래는 작은 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큰 아이가 듣고 있음. 나이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계는 대등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함.

여러 가지 독서 스타일



8

스토리텔링과 전래동요 모임을 하고 있음(책과 친해지기 위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스토리텔링, 전래동요



9

많이 오는 일도 있지만 인원 수가 적은 일도 있음.
날씨나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달라짐. 즐거운 모임 날에는 집 앞에 간판을 꺼내 둬.



10

이것도 스토리텔링 모임의 모습. 오른쪽 아래는 패널 시어터.

다른 연령의 아이들과 교류하는 장
책을 통해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과 만나는 곳



11

다른 나이와 교류하는 장. 책을 비롯하여 실제 경험으로부터도 다양한 모델과 만나는 곳.
왼쪽 위는 호주인, 오른쪽 위는 핀란드인, 왼쪽 아래는 근처의 할아버지가 풍선 아트를
가르쳐 주는 모습, 오른쪽은 과학 선생님이었던 분이 종이접기 교실.

야외놀이



12

어린이들은 야외 놀이를 아주 좋아함.
상자로 미로 놀이를 하고 있음. 풀의 꽃이 모르는 사이 소꿉놀이에 쓰이고 있음. 계절감이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대나무로 7월 7일 칠석에 쓸 장식을 만듦.

곤충놀이와 조사



13

벌레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들. 개구리, 공벌레, 가재 등을 자주 문고에 가져옴.
나비 이름을 도감에서 찾아보는 등 실물과 책을 연결하고자 함.

차와 전통악기를 즐기는 모임

매년 1월 연례 행사



14

새해 1월에는 전통악기를 배경음악으로 차를 정식으로 우려서 과자와 함께 맛 봄.
어린이들은 뜰에서 놀고 어른들은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보냄.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고, 흉내 내며 자라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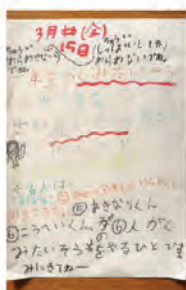
15

어린이들은 흉내 내면서 큼. 나이차가 있는 것이 학교와 다른 문고의 좋은 점.
귀여움을 받았던 아이도 다음번에는 귀여워하는 입장으로 성장함.



16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까지 한데 어울려 탑쌓기 놀이를 함.
자연스럽게 큰 아이는 아래로 작은 아이는 위로 역할이 나뉨.



← 실패하더라도 웃지 않기!
웃기지 않기!



17

다음의 문고에서는 1학년이 즉시 따라하여 자기들끼리 완성시킴.
자기 힘으로 팸플릿도 만들. '실패하더라도 웃지 않기' '웃기지 않기'라고 씀.



미니 콘서트



18

큰 아이가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와 춤을 보여줌. 수영모자와 물안경.
사회자가 '처음이니까 따듯한 눈길로 봐주세요'라고 하자 작은 아이들이 '따듯한 눈...
어떤 눈이야?'라고 하자 각자 제멋대로 눈을 치켜 올리고 같은 자세로 들고 있음.

감자 캐기



19

아이들은 흙을 좋아함. 감자를 손으로 캔 후에도 계속 흙으로 눕. 캔 감자는 바로 삶아서 그림책을 읽으며 다같이 먹음.

과학놀이



20

과학놀이를 하고 있음. 실제 사물이나 체험을 책과 연결하고자 함.
오른쪽 아래는 눈에 사는 모기나 쥐가 사는 동지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관련한 책을 읽음.



시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이 도움을 줌. 문고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음.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음.
 왼쪽 아래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해서 피곤해 잠든 남자아이, 베게에 '깨우지마, 조용히해'라고 써 있음. 이것은 언제나 싸우던 형이 동생을 위해 쓴 것.



아이들은 공작을 잘함.
종이인형극은 어린이들 작품. 후에 자신들이 만든 인형극을 실연으로 보여 줌.



수선화를 만듦. 똑같이 배웠는데 모두 개성이 있음! 인형은 선생님 작품. 문고에 선물로 주심.

문고의 특별한 즐거운 모임 (일 때문에 평일에 문고에 올 수 없는 가족을 위하여) 나무 쌓기 놀이 국수 놀이



25

여름방학, 봄방학 등에 특별한 즐거운 모임을 함.
이것은 일하고 있어서 평일에 문고에 올 수 없는 가족을 위한 것. 왼쪽 위는 나무 조각을
높이 쌓는 놀이. 오른쪽 아래는 여름에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것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안에국수를 떠다니게 해서 먹는 것. 아래는 떡 만들기.

독서환경의 변화

- 책과 멀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음. 문고에 오는 아이들이 적어짐
- 게임, 스마트폰, 텔레비전의 보급, 바쁜 부모들, 자연환경의 악화, 학원 수업 등
- 가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어린이 생활권에 독서환경이 있는 것이 중요함
- 공공도서관이 개선된 것은 기쁜 사실이기도 함.

26

가정문고로 보는 현재 아이들의 독서 경향, 유아

‘탈 것’, ‘먹거리’, ‘동물’
그림이 뚜렷하고 리듬이 있음
스테디셀러나 옛날 이야기



27

가정문고에서 보여지는 현재 어린이들의 독서 경향
유아의 경우, ‘탈 것’, ‘먹을 것’, ‘동물’그림이 명확함. 리듬이 있음.
스테디셀러나 전래동화가 인기.

가정문고로 보는 현재 아이들의 독서경향, 초등학생

무서운 책, 사전류, 지식서적, 과학책, 공작, 말놀이



28

크면 문학적인 책보다 무서운 책, 사전, 만담 및 익살 책, 역사책, 자연과학, 지도나 지식 책,
가벼운 책을 보다 좋아함. 그러나 어떤 시대라도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있음.

한국 어린이책



29

이번에 한국 그림책을 다시 한 번 읽어 봄. 좋아하는 그림책이 많이 있음.
또 일본에도 비슷한 옛날 이야기가 많음. 앞으로도 보급하고 싶음.

한국 그림책



30

이번에 한국 그림책을 다시 한 번 읽어 봄. 좋아하는 그림책이 많이 있음.
또 일본에도 비슷한 옛날 이야기가 많음. 앞으로도 보급하고 싶음.

★일본 어린이 문고 현황

- 어린이 문고에는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2종류가 있음
- 모두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설립됨
시즈오카시의 경우, 도서관은 단체 대출이나 카드를 작성해 주고 있음
- 가정문고는 개인이 자택에서 운영
- 지역문고는 지역의 뜻 있는 사람이 협력하여 공민관, 절, 교회, 유치원 등을 사용해서 운영
- 개최시간, 장서수, 기획내용, 유무료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
- 공익법인 독서추진운동협의회조사(2013년)에 따르면(발체)
문고수 1,215(어린이 대상)
382(어린이 및 성인 대상)
합계 1,597
대표자의 평균 연령 59.6세

31

게이오기주쿠대학 시오자키 준코에 의한 조사(2013년 발표) 『일본의 문고: 운영 현황과 운영자의 인식』(발체)

- 문고활동의 여명기는 1951~1960년
무라오카 하나코, 이시이 모모코 등 아동문학자에 의한 선구적인 문고로
‘어린이 책과 독서’에 가치를 두고 이후 계몽적인 활동 지침이 됨
- 1960~1980년대 전반 문고가 크게 발전, 보급됨
- 1970년 모자독서·지역문고전국연락회가 탄생하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공립도서관 설치를 요구, 독서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 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됨.
- 1980년 전후로 정점에 달해 4,406곳
- 문고 발전기는 고도경제성장기와 겹 도시화, 전업주부 증가
- 공공시설 부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과 같은 시대배경과 가치관이 있었음

32

- 문고의 평균장서수: 가정문고 약 3.035권
지역문고 약 2.425권
 - 자원봉사자수: 지역문고, 가정문고 모두 10인 이하가 많음
가정문고는 1명인 많고 33.1%
 - 계속 의사: 고령화, 저출산, 이용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싶다' 85.4%
 - 문고를 시작한 동기와 계속하는 이유
(수치가 높은 항목이 일치함)
- 아이들이 좋아서
어린이 책이 좋아서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좋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건네 줄 수 있어서

33

★문고 운영자로서 신경 쓰고 있는 점

- 운영자는 장소와 공간의 제공자. 어린이와 부모와 책이 주인공.
- 아이들에게 독서나 책을 강제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 즐거운 공간에 책이 있다는 것에 의의
- 공공도서관 발전에 연계한다는 관점을 중요하게



34

가정문고의 한계

문고는 어디까지는 공공 업무의 빈틈을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문고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도서관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문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 언제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영원히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 전문지식 공부를 하지 못해서 조화로운 도서 선택이 불가능하다.
- 책 수와 종류에 한계가 있다.
- 언제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레퍼런스(조사학습에 대한 대응, 독서 상담)이 불가능하다.

35

☆시즈오카시(인구 70만명) 도서관 운동의 특징

(1988년 2개 관이었던 구 시즈오카시, 24년 후에는 분관을 합쳐 9개 관이 됨. 합병한 시미즈와 칸바라 지역의 3개 관을 합쳐 현재 12개 관)

- 도서관과 관련한 단체가 여러 개 존재. 지역관과 분관이 생길 때마다 이용자 모임이 만들어짐.
- 행정, 직원, 언론, 의원,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에 강력한 지원자
높은 뜻을 가진 분이 있음
- 현 단위로 직원과 이용자 네트워크가 있음
(시즈오카도서관교류회)
- 현립도서관, 타관으로부터의 지원
- 도서관협의회(도서관 자문기관)가 지탱하고 있음

36

☆시즈오카시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역사

보라색: 현재도 활동 중인 모임 녹색: 이름을 바꿔 발전적으로 해산한 모임

- 1972년 문고연락회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 발족
- 1987년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시즈오카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에서 독립한 단체)
- 1987년 '남부에도 좋은 도서관을 모임'
- 1987년 '하토리에 좋은 공민관과 도서관을 만드는 모임'
- 1988년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
- 1989년 '나가타 모두의 도서관을 바라는 모임'
- 1989년 '케야키 모임, 동부에도 좋은 도서관을'→니시나도서관의 친구 모임 '케야키'
- 1993년 '미와에 가까운 도서관을 만드는 모임'→'미와 도서관 친구 모임'
- 1997년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 시즈오카'
- 2000년 '북부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북부도서관 친구 모임'
- 2008년 '아사하타 도서관, 시민 모임'
- 2008년 '시즈오카 도서관 친구 모임'(시즈오카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의 발전적 이행)
- 그 동안 현 전체의 조직으로는**
- 1991년 '도서관문제연구회 시즈오카지부'
- 1995년 '시즈오카현도서관만들기교류회' (도서관문제연구회 시즈오카지부와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이 2009년부터 시즈오카 도서관이 친구 모임 기획운영으로 이행)
- 2000년 「'현립도서관 서포터 네트워크'(현립도서관 예산 증가 서명 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생겨난 이후 도서관 만들기 교류회에 흡수됨)
- 2011년 '시즈오카현도서관교류회'로 바꾸어 직원, 이용자의 실행위원회 방식

37

‘시즈오카 어린이책을 읽는 모임’(문고연락회)의 활동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기쁨을』 중

- 어린이책을 즐기고, 배우고, 정보를 교환
- ‘어린이책을 배우는 강좌’를 1972년 이래 시즈오카시립중앙도서관과 공동개최로 기획, 운영 (연간 8회) 매년 150명 정도 참가
- 어린이 책에 관한 홍보활동 (강연, 교류, 책 소개 등)
- 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한 활동

38

‘어린이책을 읽는 모임’의 특징

- 기획운영은 시내 각 문고, 각 스토리텔링 모임 등의 대표
- 현재는 개인이 많음
- 탁아서비스가 있음
- 매년 ‘도서관문제’ 강좌가 있음
(독서를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끝내지 않는 사회적 관점)

보고집→



39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의 주요 역사

- 1988년 발족
- 1989년 ‘시민참가 도서관 기본구상을 책정’
- 1990년 ‘시즈오카시민의 도서관 기본구상 제1차 시안’ 책자 작성
- 1993년 신 지역도서관 위탁에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위탁 회피)
- 1996년 시립도서관 소장 ‘다이 매춘 독본’에 관한 활동
- 1998년 ‘시즈오카 시민의 도서관 기본구상 제2차 시안’ 책자 작성
- 1998년 ‘심포지엄 시즈오카, 시미즈 합병과 도서관을 생각하다’ 개최
- 2005년 미유키초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6년 ‘시민 참가 도서관 만들기’ 책자 발행
- 2005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직원 삭감에 반대하는 일련의 활동
- 2008년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 모임’에 발전적 확충

모임의 발행 책자



40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이 ‘시즈오카시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임’. 20년간 활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 5년의 시간이 걸려 저지가 성사됨.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에 반대한 이유

1. 다른 도서관,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수 없게 됨
2. 단기간에 관리자가 바뀌면 계속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를 기대할 수 없음
3.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배려가 우려됨
4. 본래 이익이 없는 도서관이 이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5. 시민 감시 기능, 목소리를 듣는 체제가 없어짐
6.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될지 우려됨
7. 전문직이 경시되고 인재를 키울 수 없음
8. 자치체에 정책 입안 능력이 없어짐

시즈오카시에서는

- 이미 일정 수준에 달함
-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직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음
- 많은 지역관이 있고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자치체에는 무리임
- 사전 설명이 없이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음(내부에도)

41

시즈오카시 도서관협의회 보고서 (2011년 8월 제출) 요지

- 시립도서관 운영은 직영이 바람직하고 지정관리자제도는 어울리지 않음
- 전문적 능력을 가진 정규직원의 안정적인 배치, 비상근직원의 동기부여를 보장하는 제도 검토를 요구함
- 앞으로 사회 경제의 변화, 재정 상황의 악화에도 업무합리화 등을 통해 가능한 직영을 유지해야함.

‘도서관의 친구 모임’에서는 6월에 제언서를 제출
도마에 오른 분관의 모임도 요구서를 제출



시즈오카신문 2011. 9. 1 조간

42

도서관 자문기관인 도서관협의회나 시민 모임 등 여러 가지 부서의 활동이 있었음.

공모!

‘시민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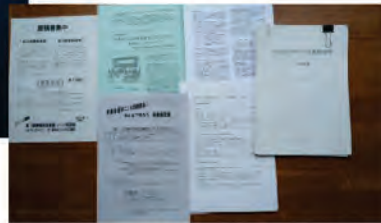


‘시민이 만드는 도서관 선언’
2007년 현도서관관료회에서 발표



→ 49편 모집됨(문집 작성)

A4・35쪽



도서관에 바라는 것 282 항목
도서관에 할 수 있는 것 186 항목

43

민영화 저지 운동을 할 때 ‘도서관의 역할’을 많은 사람에게 알림.
‘도서관 체험’과 ‘도서관 정책’을 모집하고 신문에 게재하여 PR함. ‘도서관 체험’에는 49편,
‘도서관 정책’에는 ‘도서관에 바라는 것’ 282항목으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186항목이 모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서관 선언’을 만들.

‘시민의 도서관 정책’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도서관의 이상향을

‘우리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것: 즐거움, 평온함, 미래가 있는 도서관’

- 책과 정보와 사람이 모이는 광장
- 과거에서 미래로, 지역과 세계가 한 자리에
- 곤란할 때 도와주는 도서관
- 프로에 의한 전문 서비스
- 연결되고 서로 나누고 넓어지는 도서관
- 학교, 어린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 정보공개와 시민참가

‘우리들이 도서관에 할 수 있는 것: 시민과 도서관이 함께 성장하는 것’

-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기른다.
- 도서관을 확장시키고 도서관을 돕는다.
- 시민의 힘을 도서관에 모은다.
- 자료와 자금 모집에 협력한다.

44

‘시민의 도서관정책’에서는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친 도서관의 이상향으로써 다음의 항목을
들고 있음(본문 참조). 이 정책을 목표로 설립한 것이 ‘시즈오카 도서관 친구 모임’

☆ ‘시즈오카 도서관의 친구 모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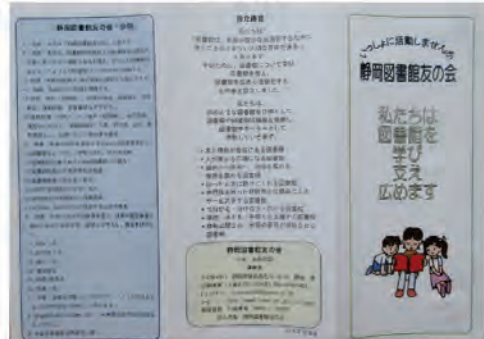
2006년에서 준비에 들어가 2007년 4월에 준비모임을 설립
2008년 9월에 발족 시민의 도서관 정책을 구체화 하고 싶다!

현재 회원 280명으로 고문은 6명, 운영위원 13명을 중심으로 활동. 회비는 연 1천엔

입회안내서(앞)



(뒤)



45

‘시즈오카 도서관 친구 모임’ 입회안내서 그림에 도서관을 ‘배우고’‘뒷받침하고’‘확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함.

《설립취지》

‘도서관은 시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서관에 관해서 배우고, 도서관을 확장시키고, 도서관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는 도서관의 친구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도서관을 목표로 도서관 및 도서관협의회와 협동해서 도서관 서포터로서 활동해 갈 것입니다.

- * 책과 정보가 풍부한 도서관
- *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되는 도서관
- * 과거에서 미래로, 지역과 세계를 한 자리에 모으는 도서관
- * 곤란한 때 도와주는 도서관
- * 전문성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 연결하고 나누고 넓어지는 도서관
- * 학교, 어린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 *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서관

46

★도서관의 친구 모임과 도서관과의 최근 주요 협동사업

- 도서관 강좌 및 도서관 축제 공동 개최
- 잡지 스폰서 제도『어린이의 친구』연장판과『모두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을 구입(연간 18,000엔)
- 시즈토모기금 누계 약 350만엔으로 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었던 귀중본을 구입

다른 단체에 대한 협력
시 미술관과 과학관에서
스토리텔링 및 팸플릿 배부 등



47

★도서관의 친구 모임은 도서관에 대한 제안, 요구 등의 활동

- 협의회는 빠지지 않고 방청에 참가
- 의원, 교육위원회, 협의회의원에게는
부지런히 회보와 정보를 전달
- 시장선거 등에서 공개질문장을 제출, 발표



- 제언서 작성

2011년 봄과 2014년 가을에 시즈오카시에 제언서 제출

2014년 가을에 시즈오카현에 제언서 제출

(자료비 1,150엔이 증가하고 서고정비비 1,100만엔이
추가됨)

48

도서관의 친구 모임 전국연락회에 대하여

- 2004년 4월 발족하여 캐치프레이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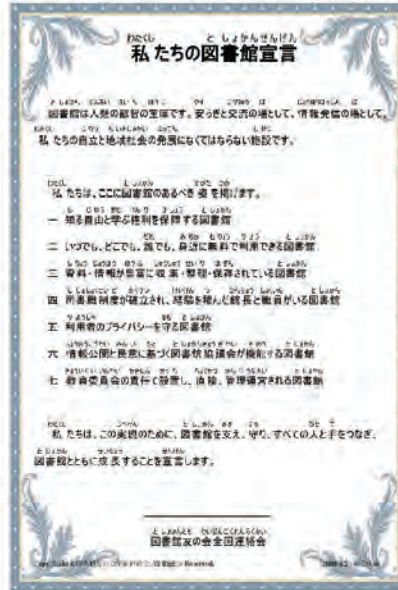
‘손을 잡고 도서관을 뒷받침하는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락회’를 표어로 메일링 리스트 등에서 정보 교환과 행정제안 등 다채로운 활동

- 일본 각지에 81개 단체, 개인 122명이 가입(2015년 10월 현재)

-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안

-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 ‘도서관평가표’, ‘민영화 반대 팸플릿’ 등을 작성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 도서관의 친구 모임 전국연락회 채택(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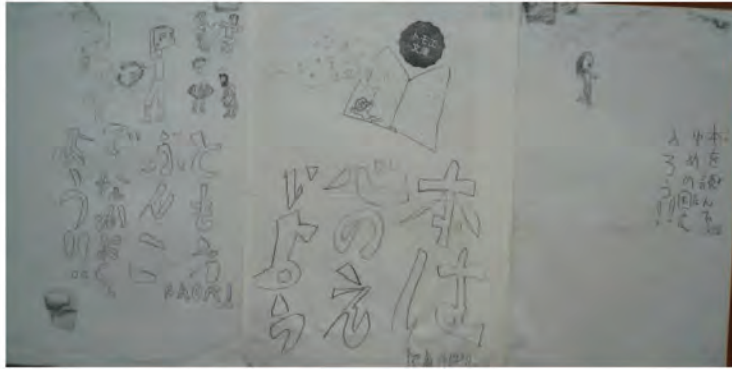


50

‘우리들의 도서관 선언’(2009년 채택)을 소개(해설은 본문 참조)

1. 알 자유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
 2.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깝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3. 자료와 정보가 풍부하게 수집, 정리, 보존, 제공 되는 도서관
 4. 사서직 제도가 확립되고, 경험을 쌓은 관장과 직원이 있는 도서관
 5.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도서관
 6. 정보 공개와 시민의 뜻(民意)에 기반한 도서관협의회가 기능하는 도서관
 7.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설치하고, 직접, 관리 운영되는 도서관
- ‘시민의 도서관 평가’, ‘민영화 반대’ 팸플릿 등도 작성.

마치며 문고 아이들의 포스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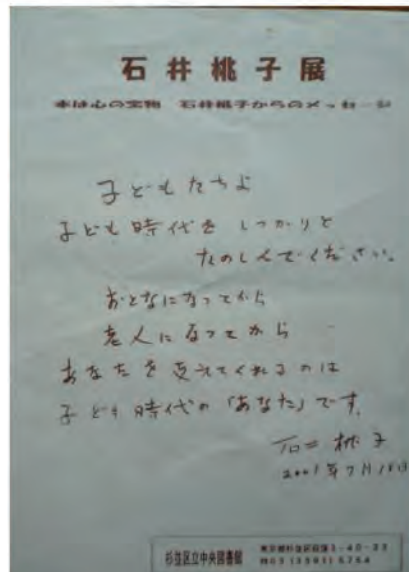


51

끝으로 문고 어린이들이 그린 포스터를 소개.

- ‘책은 마음의 영양: 책은 마음을 기른다.
- ‘토모에 문고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책이 있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
- ‘그림책을 읽고 꿈의 나라로’: 엄한 현실에서 떠나보는 시간

아동문학자로 ‘가츠라 문고’를 창설한 이시이 모모코씨의 말



52

아동문학자로 ‘가츠라 문고’ 창설자인 이시이 모모코씨의 말
 ‘어린이들이여, 어린 시절을 꼭 즐기세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당신”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알찬 독서환경을!

뜻을 함께 하는 한국 여러분의 앞으로 활약과
도서관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3

어린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저도 여러분도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알찬 독서환경을!’ 여러분들의 앞으로 활약과 건강, 한국 도서관의 발전을
마음 깊이 바라며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の子にも充実した読書環境を！」

草谷桂子

1 自己紹介

こんにちは。私は草谷桂子といいます。お招き有りがとうございます。子どもと本を大切にする同じ志の皆さんとお会いす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きました。

お会いできてうれしい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私は、日本の真ん中に位置する富士山のある人口370万人の静岡県の県庁所在地である静岡市（人口70万人）に住んでいます。トモエ文庫という家庭文庫を主宰し、同時に図書館の発展のための活動をして35年たちました。

また、文庫体験や3人の子育て、7人の孫育てでの絵本体験を活かして、童話・エッセイ・子どもの本の書評を書く仕事をしています。

韓国訪問は今回で3回目です。1回目は「むすびめの会」と言って図書館に於ける多文

化サービスの発展を考え、支援する会の主催行事で図書館を4つくらい見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との1回は日本に在住していた親しい韓国の友人（今はアメリカ在住）にお招きいただき彼女のソウルの実家に4日間ホームステイ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民俗村・戦争資料館、東大門市場などをご案内いただき、ご家族と一緒にキムチを作りました。お土産に頂いたたくさんのキムチが、空港でパンパンに発酵して空港の係官に止められた楽しい思い出もあります。こちらの友人ご家族と一緒に作ったといったら通過させてもらえました。

また、2008年には東京で行われた第17回親子読書地域文庫全国連絡会の大会で、当時の韓国・ヌティナム図書館長朴英淑さんの講演も聞かせていただき、韓国の図書館行政とそれを支える多くの皆さんの熱い志による取り組みに感銘を受けました。

そんなわけで、韓国は私にとって、とても尊敬と親しみを感じている大好きな国です。今日の講演も私には荷が重いと思いましたが、同じ志の皆さんにお会いするのを楽しみに私のほうで勉強させていただくつもりでお受け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私の主宰する文庫が、日本の文庫の典型ではありませんので、あくまでも私個人の体験と考えとしてお聞き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また、前半は家庭文庫の話を、後半は家庭文庫から発展して公共図書館を支援している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2 トモエ文庫の事

(1) 家庭文庫を始めたわけ

私は現在72歳ですが、文庫を始めたのは1981年の37歳の時です。子どもは当時15歳・12歳・6歳、夫は公務

員で、私は姑と二人で農業をしていました。私も結婚する前は公務員として働いていたので、家で子育てと仕事をしながら、社会と関われる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本と子どもの好きな私にぴったりの活動が、文庫を主宰することでした

実はその時、何十年に一度の大きな台風が来て床下浸水の被害に遭う、というピンチが訪れてました。そのピンチをチャンスに変え、家の建て替えをするとき、部屋を改装して文庫を始めました。(文庫の部屋の中と全体像をパワーポイントで紹介)

その時、次の事を目標に考えました。

- ・家庭でも学校でもない第3の評価しない場として
- ・子どもたちにひとつでも楽しい思い出を
- ・本からも生活体験からも多様なモデルに出会ってほしい
- ・わが子の幸せは地域の子どもの幸せがあつてこそ
- ・童話を書く上で、頭の中でなく実際の子どもの悩みや喜びを知りたい。
- ・子ども時代の体験への恩返し(私も子ども時代に近所のお姉さんにたくさん本を読んでもらってきたので本好きになりました)

(2) トモエ文庫をパワーポイントで紹介

文庫の活動を具体的にご紹介します。

- ・週1回開催だったが去年から月2回に。午後3時から5時まで。
会費は、現在は無料。(当初は、入会金100円、貸出カード40冊で100円)
- ・蔵書数は大人向き約5000冊。子ども向き1万冊。
(当初は市立図書館から団体貸し出しを受けていた。現在は寄付などで手持ちの本が増えたので借りていない)
- ・小学校に近く、自分の子どもや孫たちの友人が多く来るという利点がある。
- ・子どもの本の貸出。おはなし、絵本読み、紙芝居、パネルシアター、手遊び、コンサート、お茶とお琴を楽しむ会、手品、科学遊び等を企画

(3) 文庫で見る子どもと読書環境の変化

35年間子どもたちを見ていて、日本においての本離れは確実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私の文庫でも、昔の子のほうがよく遊び、本もよく借りたり読んだりしていました。又、塾などもなく子どもたちにも時間がたっぷりありました。

現在は室内でゲーム・スマホ・テレビに時間を取られる子どもが増えています。塾もあるので読書時間は削られている傾向にあります。

昔は特別なお話会には100名近くの子どもたちが来た時期もありますが、今は多くて50名です。貸出の本の数も減少していますが、少子化と、ゲームなど子どもにとって魅力のある遊びが多くな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公共図書館や学校図書館が充実してきたという嬉しいことも原因の一つかと思います。

親の多忙化、核家族化もあり、安全に遊べる豊かな自然も少なくなり、子どもを取り巻く環境は確実に悪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せっかく図書館が充実してきても、果たしてすべての子が利用しているか疑問です。親自身が読書離れしている現状もあり、家庭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問題も多くあります。

そのためには自治体関係者やボランティアが読書環境のレベルアップを支え、全体の底上げをすることが必要になっています。

私の住む人口70万人の静岡市の場合、20年前は2つだった公共図書館が今は地域館、分館をいれて12館に増えました。学校図書室にも、非常勤ですが司書が配置され、充実してきています。読書ボランティアや図書館の発展を支える会も多くなりました。

静岡市は国内でも恵まれている方で、日本全体では、まだまだ発展途上です。

(4) 日本の子ども文庫の状況

韓国では小さな図書館が全国に散らばっていて、政府が支援していると何ってうらやましいな~と思います。子どもにとって必要なことは身近に読書する環境があることで、自治体に大きな図書館が一つよりも、小さくても子どもの生活圏に拠点があ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日本の場合、文庫活動には団体貸し出し以外には行政の支援はほとんどなく、個人のボランティアで成り立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ここで、日本の子ども文庫の成り立ちや特徴をご紹介します。(パワーポイント使用)

- ・子ども文庫には、家庭文庫と地域文庫の2種類があります。
- ・いずれも基本的にはボランティアで成り立っています。
- ・家庭文庫は個人が自宅で運営している場合が多いようです。
- ・地域文庫は地域の有志が協力し合って公民館・寺・教会・幼稚園などを使用して運営しています。
- ・開催時間・蔵書数・企画内容・有料か無料か等様々な形態があります。

公益法人・読書推進運動協議会調査(2013年)によると、(抜粋)

文庫数 1,215 (子ども対象)

382 (子どもと大人対象) 合計1,597

代表者の平均年齢 59.6歳

という調査結果があります。

慶應義塾大学・汐崎順子氏は『日本の文庫：運営の現状と運営者の意識』の調査

2013年に発表しました。一部を抜粋してご紹介します。

- ・文庫活動の黎明期は1951年~1960年で、村岡花子・石井桃子などの著名な児童文学者による先駆的な文庫創設から始まっています。
「子どもの本と読書」に価値を置き、以後の啓蒙的な活動の指針となっています。
- ・1960年~1980年代前半 文庫が大きく発展・普及されました。日本における子どもの本の出版状況も盛んになり、今でも読み継がれている絵本がたくさん出版されました。
- ・1970年 親子読書地域文庫全国連絡会(親地連)が生まれ、この会を中心に公立図書館の設置を要求したり、読書環境の充実を願う住民運動が各地で展開していきます。(親地連は『子どもと読書』という機関紙を隔月で出版するなど、現在も全国の読書活動の牽引役となっています)
- ・1980年前後にピークを迎え、文庫の数も4,406件もあったようです。
文庫の発展期は、戦後の高度経済成長期と重なり、都市化、専業主婦の増加、公共施設の不足、教育の重要性の認識の高まり・・・などの時代背景と価値観があったといえます。
- ・現在(2013年調査)においての文庫の状況は下記のとおりです。
平均蔵書数・・・家庭文庫約3,035冊
地域文庫約2,425冊
世話人の数・・・地域文庫、家庭文庫共に10人以下が多い。
家庭文庫一人が多く・・・33.1%
(この数字の大きさの意味は大きく、個人が単独しながらも引越先で文庫を続けるという熱い志の人が結構いるそうです)
- ・高齢化・少子化・利用者の減少にも拘らず「継続したい」と考える方が85.4%もいます。
- ・文庫を始めた動機と継続理由は、
子どもが好きだから
子どもの本が好きだから

お話や読み聞かせをするのが好きだから
自分の好きな本を子どもに手渡せるから
の4項目が「動機」と「継続したい理由」の両方で同じように高い数字となっています。

3 図書館支援活動の事

(1) 家庭文庫の限界

私はいつも下記のことに気を付けています。「正しいことをしている」とか「人の役に立っている」とかという意識ではなく、謙虚に地域の皆さんの支援をいただきながら、自分自身が子どもの笑顔に出会える幸せを第1に考えて大事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

- ・主宰者は場所と空間の提供者。子どもと親と本が主人公。主宰者の自己実現の場ではない。
- ・子どもに読書や本を手渡す目的はあっても、強制しない。あるがままを受け入れる。
- ・来る者拒まず、去る者追わず。
- ・楽しい空間に本があるという位置づけ。すぐに効果を求めない。
- ・公共図書館の発展につなげる目線を大切に。

・・・と、心掛けています。

上記の項の最後に「公共図書館の発展につなげる目線を大切に」と挙げましたが、そのこと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触れてみます。

文庫は、あくまでの公共の仕事の隙間を埋めるものです。もし、「文庫があるから公共の図書館はいらない」となったら、文庫をしていることがマイナスになります。

ボランティアである文庫には限界があります。

- ・いつできなくなるかわからない。永遠に続く保証はない。
- ・専門知識の勉強をしていないから、バランスのいい選書ができない。
- ・本の数と種類に限界がある。
- ・いつでも開いているのではない。
- ・レファレンス(調べ学習の対応・読書相談)が出来ない。

などの理由から、限界を自覚しながら、公共図書館の充実のための活動をしてきました。

日本の多くの場合、家庭文庫は地域に根を張った活動をしなが、広い視野で公共全体の図書館サービスに関心をもち、「図書館の発展を願う会」や「図書館の支援の会」の中心を担っています。

(2) 私の住む静岡市での図書館活動のこと

次に図書館の発展を支えるための市民・利用者としての活動についてお話します。

私は、家庭文庫を始めたと同時に、静岡市内の文庫連絡会である「静岡子どもの本を読む会」(以下「読む会」1972年発足)に入会しました。

「こども・本・図書館」を中心テーマに据えているこの会の活動方針は明確で、会の案内パンフレット「子どもたちに読書のよろこびを」の中で4つの活動の柱をあげています。

- ・こどもの本を楽しみ、学び、情報を交換
- ・「子どもの本を学ぶ講座」静岡市立中央図書館と共催で企画・運営
- ・こどもの本に関わる広報活動(講演・交流・本の紹介など)
- ・公立図書館・学校図書館の充実のための活動

上記の充実した内容の「子どもの本を学ぶ講座」で、私は子どもの本と図書館に関しての基礎知識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当時は珍しい言説があったことと、毎年「図書館問題」の講座が入っていたことが、読書を単なる個人的な楽しみだけで終わらせないで、社会の中での読書環境を考えるという「読む会」の性格をあらわしていると思います。

静岡市にはたくさんの図書館関連の会があります。地域館や分館ができる度に、要望を伝え、支える地元の会が誕生しています。「いつも、どこかの会が元気だった。だから、静岡市の図書館はなんとか発展してきた」という仲間の言葉にうなずけます。

私も複数の会に入っています。

1997年には「学校図書館を考える会・静岡」が発足し、学校図書館の充実と発展のため「学校図書館に専任・専門・正規の人を」を目標に、長く地道な活動を続けています。

市全体を視野に入れた「静岡市の図書館をよくする会」は1988年に、市民、図書館職員、研究者、学生、議員、各地域の会代表、市労組関係者などの幅広い層の参加で生まれました。

「静岡市民の図書館基本構想」の冊子作成。「図書館の自由」についての発信など、どちらかと言うと実践よりも理論やデータで図書館を考え、深め、広めることが多かったです。

(3) 図書館の民営化反対の活動

私が会長をしていた2005年に地域図書館への指定管理者制度導入問題(民営化)が浮上したことから、ストップに向けての様々な活動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まずは図書館の本来の役割を議員にも一般の人にも知っていただくための資料づくりや勉強会をしました。なぜ図書館への指定管理者制度に反対したかの理由を「ちょっと待って！民営化」という私たちが作ったパンフから抜粋してみます。内容の解説については、文をお読みください。

1・ほかの図書館、教育機関などとのネットワークが弱めくなります。

ほかの公共施設に比べ、図書館はネットワーク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す。自館にない資料も、全国の公共図書館の相互貸借を通じて提供してくれるからです。そうしたネットワークがなければ、高度化する利用者の要求に応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が漸次切られてしまう恐れがあります。

2・短期間で管理者が変わると継続した責任ある仕事が期待できません。

司書が1人前になるのに、10年がかかると言われます。選書方針、蔵書構成は100年単位の仕事です。短期間の雇用だと、長期の見通しにたった計画性のある仕事は期待できませんし、職員も育ちません。

また公共図書館では、レファレンスや多文化サービス、障害者向けサービスのノウハウを、すべて全国の公共図書館と分け合ってきました。つまり私たち市民の共有財産となったのです。しかし、民間のスキルやマニュアルは、企業秘密だからと公にならない例もあるそうです。逆に、利潤が要求される指定管理者や民間委託の図書館に、公立図書館が資料や情報提供することは、図書館法上問題となります。

3・個人情報やプライバシーへの配慮が心配です。

公務員には守秘義務があり守らないと罪になりますが、民間人にはありません。図書館には市民の約30%に当

たる個人情報があります(「日本の図書館2003年」参考)が、この個人情報を民間企業が管理すると、情報の流出が懸念されます。また、その情報が顧客情報として商売に利用されないとも限りません。

4・もともと儲けのない図書館が利潤の対象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図書館などの社会教育施設は、効率では図れない役割を持っています。利潤をだすことを要求される民間企業が経営すると、どこかでサービスの質を落としたり、「いかなる対価も徴収してはならない」(図書館法17条)という無料の原則がくずれる方向にいきかねません。

即効性だけを目的に選書が行われれば、コレクションとしての蔵書が作られなくなります。人件費を節約すれば、経験のない臨時やアルバイトばかりがふえます。いずれも、高度なサービスが切り捨てられる結果になるでしょう。

5・市民のチェック機能・声を聞く体制がなくなります。

図書館は市民と共に育つものです。いわば、市民の民度が反映されるものです。しかし指定管理者にとっての第一のお客は、仕事をくれる行政であって、市民・利用者ではありません。責任が間接的になってしまいます。

また民間企業が「指定管理者」になれば、議会に報告する義務がなくなり、住民監査請求や情報公開の対象外になります。図書館協議会の設置義務もなくなります。市民の意見が反映されにくくなります。

6・誰にも公正で公平なサービスはできるでしょうか。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では、図書館職員が自分の好みや心情や、思想的、宗教的立場で勝手に選書できないように、利用者の読書の権利を保障するということを細かく決めています。公務員が守らないと罰則がありますが、民間人にはありません。公平、公正を欠くサービスにならないとも限りません。

7・専門職が軽視され、人材が育ちません。

本当によいサービスを生み出せる司書、プロとしての仕事ができる司書は、資格を持っているだけでな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絶えず最新の知識を学び続け、利用者に接して、経験を積み重ねることで育つものです。やる気がある者が長期にわたり、責任と夢をもって働ける場を作り、プロを育てる、それが結局、図書館にとって最も効率的な運営方法なのです。しかし今行われている指定管理者運営の図書館で、司書は一般の市職員にくらべ待遇が劣悪でし、権限もありません。これで有能な人材が育つはずはありません。人がいなければ図書館も成長していく事はできないでしょう。

8・市の政策立案力がなくなります。

図書館を指定管理者にまかせるということは、いわば図書館運営の「丸投げ」です。そうしてしまうと、行政内に図書館運営の経験者がいなくなります。ノウハウも失われます。経験も知識もない中で、効果的な図書館政策がどうして作り出せるでしょうか。

以上のことを中心に「図書館の役割と、なぜ民営化になるとよくないか」を、あちこちに訴えました。市内の様々な関連の会も時に共に、時に別個に反対のための運動を展開しましたが、歴代の静岡市立中央図書館協議会(図書館の諮問機関)の委員の皆さんも情報を収集し、学び、果敢に誠実に意見を述べてくれました。図書館協議会としても、なんども報告書、答申書を提出して下さいましたが、下記がそのひとつです。

○ 静岡市図書館協議会の報告書(2011年8月提出)骨子

- ・市立図書館の運営は、直営が望ましく、指定管理者制度はなじまない。
- ・専門的能力を有する正規職員の安定した配置、非常勤職員のモチベーションが保てるような制度の検討を要望する。
- ・今後の社会・経済の変化、財政状況の悪化に際しても、業務合理化などで可能な限り直営を維持すべき。

また、市外の関係者の支援もいただき、毎年企画している県単位の静岡県図書館交流会では、2007年に『図書館っていいね!』のエッセイと、市民の図書館政策の募集をし、「図書館のあり方」について県内外の多くの人の関心をよぶことになりました。

『図書館っていいね!』には49編、市民の図書館政策の「私たちが図書館に望むこと」には282項目、「私たちが図書館にできること」には186項目の応募がありました。その政策案をもとに、「静岡市の図書館をよくする会」でまとめたものが、下記の「市民の図書館政策」です。

※市民の図書館政策(抜粋)

学校に行けなくても、
 障碍（しょうがい）や病気があっても、
 資産や職がなくても、
 組織に属していなくても、
 日本人でなくても、
 どんな立場にあったとしても、
 「知るチャンス・学ぶチャンス・読むチャンス」が得られる社会
 「知り方、学び方、読み方」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社会
 「知る喜び、学ぶ喜び、読む喜び」が得られる社会
 「知縁・学縁・読縁」を育む社会

そんな社会を作ることが図書館の役割です。

図書館は建物ではなく、あらゆる人々に、「知る権利、学ぶ権利、読む権利」を保障する社会システムであり、よりよく機能することで、市民を幸せにし、住みよいまちづくりを応援します。

100年後の子どもたちが「静岡市に住んでよかった!」と言ってくれる。

静岡市を、そんなまちに変えていきましょう。

具体的な内容として「市民の図書館政策」では下記の項目を市民と行政が力を寄せ合う理想の図書館像として挙げています。

「私たちが図書館に望むこと～楽しさ・安らぎ・未来がある～」には

- ・本と情報と人が集まる広場
- ・過去から未来へ、地域を集める、世界を集める
- ・困ったときに助けてくれる
- ・プロによるプロのサービス
- ・つながる・分け合う・広がる
- ・学校・子ども・子育てを支援する
- ・情報公開と市民参加

「私たちが図書館にできること～市民と図書館が共に成長する～」には

- ・図書館を使って図書館を育てる。
- ・図書館を広める・図書館を助ける。

- ・市民パワーを図書館に集める。
- ・資料や資金集めに協力する。

(4) 静岡図書館友の会の成立まで

図書館民営化が回避されたのは、6年後の2008年のことでした。「静岡市の図書館をよくする会」は上記の「市民の図書館政策」を具現化する会として、「静岡図書館友の会」に発展解消します。

静岡図書館友の会が4年の準備期間を経て産声を上げたのは2008年9月です。20年に亘る「静岡市の図書館をよくする会」の活動の蓄積を大切にしながらも、更に広範で幅広い図書館支援団体として生まれ変わりました。現在の会員は280名弱で、顧問は6名。運営委員13名を中心に活動しています。会費は年間1000円です。

《設立趣旨》は下記のように入会案内書に謳っています。

「図書館は、市民が豊かな生活をするために欠くことの出来ない大切な存在である」と考えます。そのために、図書館について学び、図書館を広め、図書館を支える活動をする友の会を設立しました。私たちは、次のような図書館を目標とし、図書館や図書館協議会と協働して図書館サポーターとして活動していきます。」

- * 本と情報が豊富にある図書館
- * 人が集まる広場になる図書館
- * 過去から未来へ、地域を集める、世界を集める図書館
- * 困ったときに助けてくれる図書館
- * 専門性を持った経験豊かな職員による サービスをする図書館
- * つながる・分け合う・広がる図書館
- * 学校・子ども・子育てを支援する図書館
- * 情報公開され、市民の意見が反映される 図書館

(5) 静岡図書館友の会の具体的な活動内容

現在活動している中身はおおよそ2つの目標に分かれます。そのひとつは図書館との協働

事業です。まずは図書館の役割を広く知ってもらうためのセミナーと「図書館まつり」を挙げたいと思います。去年秋の図書館まつりは、市の美術館ともコラボし、美術館の絵本原画展にあわせて学芸員を招いて「ちひろ美術館」所蔵絵本の魅力を語っていただきました。また、折り紙教室、工作教室、お話会など子どもに関わる行事は当会メンバーが楽しくやらせていただき、子どもの笑顔に出会える幸せを感じました。

ちなみにこの原画展には当会としても毎週土曜日に展示絵本のお話を美術館内で協力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文化や子どもに関わることなら、できる範囲でどんな組織ともつながっていきたいという方針です。

図書館の支援活動は、まずは「しずとも基金」で、毎年図書館から申し出のあった貴重本を購入するために、2015年度までに累計で350万円余寄付しています。

昨年からは雑誌のスポンサー制度への協力も始め、子ども関連の雑誌3冊を年間合計18,000円を担当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この本の選び方に当会の「子どもを大切にしたい。子どもの読書活動を応援したい」という願いを反映させました。

2つめとして、図書館への提言・要望なども大事に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いつもアンテナを高くし、静岡市の図書館協議会は、メンバーの誰かが次かさず傍聴に行き、議員、教育委員会、協議会委員にはこまめに会報や情報を届けています。市長選などの時には公開質問状提出などを心掛けています。

図書館運営についての提言書の提出は、

静岡市には2011年春と2014年秋に、

静岡県あてに、2014年秋に、実施しました。

静岡県立図書館に関しては、行政関係者のご努力もあり、すぐに効果があって資料費1,150万円増と書庫整備費1,100万円が承認されました。

静岡市への提言書（2014年）の内容は下記のとおりです。

- 1 図書館機能を効果的に発揮できる直営体制の維持
- 2 10年以上司書としての経験を積み、高度化する情報社会に対応した専門性ある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正規職員を育成すること
- 3 非正規職員の官製ワーキングプア化を防ぎ、経験の継続やモチベーションの維持が可能になるよう、五年の雇い止めを廃止すること

静岡市の場合で言えば、民営化は免れたものの、正規職員の激減、職員の非常勤化、職員の5年の雇い止め等、新たな問題が生まれています。従って次の課題は職員の待遇改善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職員が働きがいのある職場であってこそ、サービスも発展するはずです。

そしてこれは、全国に共通する課題です。民営化によるビジネス目線で、図書館の基本と子どもへの思いやり、職員の待遇を軽視した民営のT S U T A Y A図書館モデルが日本に広がっている現実を見るにつけ、「図書館」について語るとき、わが自治体の問題としてだけでなく、日本全体の問題として捉えることが重要になってきました。身近な自分の生活に関わることで問題が分かりやすく見えてくるとしても、国の施策や流れが大きく作用していることを実感します。

(6)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のこと

最後に私たち静岡図書館友の会も所属している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略称「図友連」）についてご紹介し
ます。2004年4月に発足し、キャッチフレーズ「手をつなぎ図書館支える図友連」を合言葉にメーリングリストな
どで情報交換や行政への働き掛けなど多彩な活動をしています。私は名前だけの会員ですが、運営委員の皆さんは自
分の地域のことで国全体の両方を視野に入れて精力的に活動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現在、81の団体122の個人（2015年10月現在）で成り立っています。

先ずは、会員同士で熱い討論で練り上げた「私たちの図書館宣言」（2009年採択）を解説（2011年採択）をつけて
ご紹介します。

「私たちの図書館宣言」

1 知る自由と学ぶ権利を保障する図書館

私たちは、図書館のさまざまな資料・情報から、読書の喜びを得ると共に、自ら調べ、考え、判断して課題を解決
します。図書館の資料収集を制約したり、検閲したり、収集した資料を書架から撤去、廃棄することは、利用者の
判断の幅をせばめます。どんな事実や表現も、制限されることなく図書館に蓄積されていくことで、後世の人々
も、知る自由と学ぶ権利を保障されます。

2 いつでも、どこでも、誰でも、身近に無料で利用できる図書館

図書館は、赤ちゃんからお年寄りまで、図書館に足を運べない人も、通常の資料では利用できない人も、外国人
も、誰もがいつでも利用できる「本と情報のある広場」です。身近な図書館を「無料」で利用できることが、教育
・情報格差をなくし、住みよいまちづくりを応援します。

3 資料・情報が豊富に収集・整理・保存・提供されている図書館

資料・情報は幅広く豊富なほど役に立ちます。図書館には、世界を知る資料から地域や生活の最新情報まで、古
今東西の叢智が、体系的に分類・整理・保存されていることが大切です。図書館は、私たち一人一人の読書の喜び
のため、課題解決のためなど、さまざまな要望に応じて、より効果的・効率的に資料や情報を提供してくれるとこ
ろです。

4 司書職制度が確立され、経験を積んだ館長と職員がいる図書館

潤沢な資料と情報があつたとしても、必要な人に、必要とする時に手渡すことができれば意味がありません。社会が複雑化し情報過多であればあるほど、収集・整理・保存・提供には専門知識と経験が必要です。職務倫理を備え、実務経験を積み重ねた職員、館長のいる司書職制度が確立した図書館が公共サービスを支え、質を高めます。

5 利用者のプライバシーを守る図書館

私たちがいつ何を読み、どう利用したかはプライバシーの問題であり、図書館は、業務上知り得た秘密を外部に漏らさないという責務を負います。利用者の個人情報はもちろん、どのような種類の資料・情報もプライバシーを侵害されることなく安心して入手、利用できる図書館が、個人の尊厳に配慮した成熟社会へ導いてくれます。

6 情報公開と民意に基づく図書館協議会が機能する図書館

図書館協議会は、よりよい図書館運営のために、利用者の代表が館長の諮問に応じるとともに、館長に意見を述べる大切な機関です。協議会が効果的に機能するためには、正確で公正な情報公開がなくてはなりません。市民の意思を十分反映できるように、開かれた図書館協議会を設置することが重要です。

7 教育委員会の責任で設置し、直接、管理運営される図書館

「図書館」は、法令上「教育機関」です。生涯学習の拠点である図書館は、さまざまな介入や干渉に左右されてはなりません。首長部局から独立した教育委員会において、公の責任のもと、直接、管理運営することで、中立性と公平性、専門性も継続され、市民の声が届きやすくなります。

以上のように挙げられた図書館の理想像を目標にしての図友連の活動は、国会等の関係機関への働きかけをはじめ、各地で問題が起これと早めにキャッチして要望書を提出したり、面談したり意見交換するなど地方の会への支援まで幅広く展開しています。

また、「『私たちの図書館宣言』による市民の図書館評価」も2012年に策定されました。指定管理者制度問題の問題点に言及したパンフレットなども作成しています。

静岡図書館友の会は、図友連に加入することで横のつながりが出来、日本全体の図書館の課題が俯瞰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情報やヒントを共有し、自治体や立場を超えて活動することで視野も広がり、より大きな力になるのだと思っています。

私たちは、去年、市の美術館の絵本原画展でのお話会以外にも、科学館の子ども向け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幅広い情報から時代によって変化する「図書館のありよう」に関心をもちつつも、子どもや弱者の視点を基本に置く、地道で地域に根を張った活動を大切にしたいと思ったものでした。

「新しさ」に安易に目を奪われることなく、時流に簡単に流されないで、図書館の本来の役割を内外にきちんと伝え守ることが今こそ大事だと思います。

行革の時代の波に飲み込まれないよう、市民も職員も関係者がお互いの情報発信をこまめにし、スクラムを組み、広く地道に理解者を広げていくことが、「よりよい図書館」への最短で唯一の道と思います。

4 終わりに

最後に再び「子どもと本」の原点に戻りたいと思います。下記の言葉は、私の文庫にきた子どもたちが書いてくれた言葉です(パワーポイントで紹介)。私は基本的に「本を読めばどんな効果があるか」というような教育的な言い方は子どもにしません。子どものほうで全てわか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 ・「本は心の栄養」は、体が健康で病気にならないために食べ物としての栄養は欠かせませんが、心を豊かに成長させてくれるのは本であるという観点が、そのものずばりに読書の役割を伝えてくれています。
- ・「トモエ文庫でなかよくしよう」も味わい深い言葉といえましょう。本を読むことはきわめて個人的な行動ですが、本のあるところはひとのあつまる「広場」でもあります。本を介して多くの大人と子ども、あるいは子ども同士の会話が生まれるところです。
本の感想や情報を言い合う楽しさは、豊か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一つで、本を読む喜び、生きる喜びを共有できます。
- ・「絵本を読んで夢の国へ」も本でファンタジーに入る喜びを言っていると思います。子どもといえども、日常生活の中にたくさんの困難や悩みがあります。
厳しい現実からちょっと離れて本を読む時間があることは、いつとき困難を忘れる和みの時間になり、この豊かな時間を経験し心をリセットできるからこそ、厳しい難局にも立ち向かえるのでしょう。

私は、よく本を読むことを港に例えます。

厳しい航海を終えて港に戻った船は、燃料を補給し、壊れた場所を修理し休息して元気になり、再び荒海に航海する力を蓄えます。この生きぬく力を蓄える時間が読書の時間で、その港と言える場所が図書館だと思います。

児童文学者で「かつら文庫」創設者の石井桃子氏も、こういう言葉を残しています。

「子どもたちよ。子ども時代をしっかりとたのしんでください。

おとなになってから 老人になってから

あなたを支えてくれるのは子ども時代の「あなた」です。

マララさんはノーベル平和賞受賞のスピーチで「一人の子ども、一人の教師、一冊の本。そして一本のペン。それで世界を変えられます。教育こそがただ一つの解決策です」と言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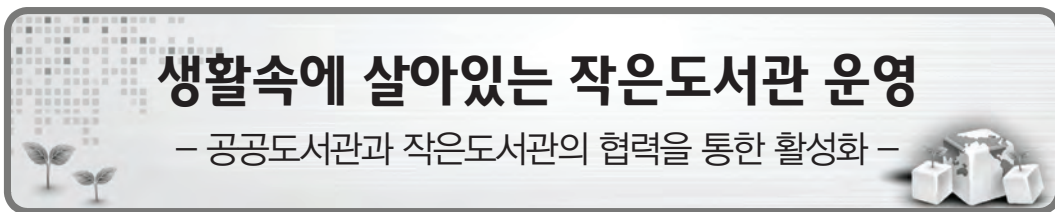
紛争も難民も多い現在の世界情勢の中で、ペンどころか武器を持たざるを得ない子どもたちのことにも思いを馳せながら、地域に根を張った文庫活動と、社会に視野を広げた図書館活動を微力ながら今後も続けて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

子どもたちの幸せを願う思いは私も皆さんも同じです。

「どの子にも充実した読書環境を！」

志を同じくする皆様のご活躍とご健康、韓国の図書館のご発展を心から願って、つたない話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ご清聴有難うございました。

[강연 및 분야별 사례발표]



생활속에 살아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

서진순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관장

1. 걸어서 10분마다 생활속의 작은도서관

‘어르신 세대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속 도서관의 역할의 중요함을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5개관, 전체 읍면마다 작은도서관 9개소를 조성해 분관 형태로 직영하고 있다. 생활속 도서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융복합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독서능력이기 때문에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와 민관이 함께 독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북스타트, 내 생애 첫책, 책놀이 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책 읽어주세요, 어르신 세대를 위한 ‘실버독서’와 인문독서아카데미 등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지자체 문화의 척도’ 이므로 지역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관내 전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분관체제로, 학교마을도서관은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 생생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살아있다

도서관은 지식의 생태계,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까지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구성하고 있다.

1) 상관 기찻길작은도서관

- ① 운영인력 : 운영자 1 , 토요일근무자 1, 장애인복지도우미 1명
- ② 사서자격증 : 1명 (※ 중앙도서관 직영관리, 담당사서 1명), 독서관련 자격증 : 1명
- ③ 운영시간 및 유/무료여부: 월~토(주6일), 09:00~18:00, 무료 운영
- ④ 책사랑 주부독서회
- ⑤ 2015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날 짜	참가자수	비 고
겨울독서교실	1/8~1/12	100	
독서토론교실	1~6월	90	
핸드퀼트놀이교실, 퀼트동아리 운영	3/11~12/23	760	
시네마 동아리	1~6월	120	
전통음식&전통장류	1/20~1/23	150	
NIE 교육	8/10,12	230	여름독서교실
역사복아트	8/11,17		
종이접기공예	8/14,17		
경제교육	8/13		
독서치료	8/10,12		
독서코칭	11/17,20	30	
인형극 공연 <황소가 된 돌쇠>	11/17	250	깔깔깔인형극단
인형극 공연 <까만 날개의 천사, 책 도둑>	12/18	250	꽃초롱

겨울독서교실	독서토론 교실	여름독서교실
		
전통 장류 체험	시네마 동아리	핸드퀼트교실
		



인형극 1

인형극 2

퀼트 동아리

학부모 독서코칭

독서신문 | (2015.8.14. 보도) 스포츠 경향 (2015.8.16. 보도)

독서신문

페이지 1/2

독서신문

[소문난이야기] [문화/사회]

이름 > 뉴스 > 뉴스 > 문화/사회

출판진흥원, 기찻길도서관 방문에 격려 및 도서 기증

계룡계룡어린이도서관에도 산간 어린이도서관 거점

2015년 8월 14일 (금) 09:06:16

본지는 기자: margeul@kyunghyang.com



▲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출판진흥원

[독서신문 편집자 기자] 한국출판진흥원(출판진흥원)은 8월 13일 기찻길도서관(전북 완주 상리면 소재)을 찾아가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도서 200여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모래놀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한 학생(8학년 2학년) 어린이는 "모래로 만든 놀이기구가 건물이 바깥에 세워지고 싶은 꿈을 이루게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 건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라며 책을 읽은 감상을 말했다.

이제 출판진흥원은 "기찻길도서관을 보니 책이 공룡처럼 유지하고 소용하는 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게 한 도서관 관계자와 완주군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도서관과 책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http://www.kyunghyang.com/news/articlePrint.html?idxno=55585>

2015-11-30

즐거움의 새이름 | 스포츠경향

페이지 1/1

[소문난이야기] [문화/사회]

출판진흥원, 기찻길도서관 도서 200여권 기증

한국출판진흥원(출판진흥원)은 전북 완주 상리면 소재 13일 기찻길도서관(전북 완주 상리면 소재)을 찾아가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도서 200여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제 출판진흥원은 "기찻길도서관을 보니 책이 공룡처럼 유지하고 소용하는 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게 한 도서관 관계자와 완주군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한국출판진흥원(출판진흥원) 소속 독서동아리 '책인력(Book in you)'는 전주시 조차동에 있는 "계룡계룡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고, 서울에서 7월에 도서관으로 온 것으로 산간 어린이도서관 구인해 기증하기도 했다.

김용환은 지난날 31일 전북혁신도시 마추를 다치고 8월부터 전북혁신도시 산청사에서 출판진흥원 견과 독서동아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양민을 기자: margeul@kyunghyang.com>

발행: 2015-08-16 17:33:53 | 수정:

http://sports.khan.co.kr/news/entry_print.html?artid=201508161733533

2015-11-30

2) 전북혁신도시 별마루작은도서관

- ① 운영인력 : 운영자 1, 장애인복지도우미 1, 토요일근무자 1
- ② 사서자격증 : 1명 (※ 중앙도서관 직영관리, 담당사서 1명), 독서관련 자격증 : 1명
- ③ 운영시간 및 유/무료여부: 월~토(주6일), 09:00~18:00, 무료 운영
- ④ 별책동인 주부독서회
- ⑤ 2015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날 짜	참가자수	비 고
Star Books	7/24~12/23	100	자원활동
맛있는 책읽기	7/31~8/21	31	
북아트 활용교육 특강	8/18,19	40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8/1~31	20	
별책동인 독서회	9/14~12/24	70	
스토리 클럽	10/5~11/30	45	
아가랑 책놀이(북스타트)	11/5~12/24	168	자원활동
기초 영어 회화	9/2~12/23	96	
오카리나 교실	8/4~12/22	210	
이노 사이언스 키드	7/15~11/18	320	
핸드S토리	10/28~12/18	144	
우쿨렐레교실	7/3~12/18	410	
손뜨개 교실	10/28~12/18	135	
창의 생활 과학 교실	11/23~12/21	98	
한여름 작은 영화관	7/31~8/5	180	
겨울방학 작은영화관	12/24,28~31	280	
겨울맞이 도서관 데코레이션 파티(종이눈꽃 공예)	12/9~11	18	재능기부
송년 포트락 파티	12/23	12	

스토리 클럽



기초 영어 회화



오카리나 교실



이노 사이언스 키드



starbooks



맛있는 책임기



북아트활용교육 특강



책 속 인물에게 손편지



별책동인 독서회



한여름작은영화관



농촌진흥청, 별마루 작은도서관에 도서 500권 기증

- 9일 개관식서 직원들 자발적 기증한 책 전달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농업과학도서관은 9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내 별마루 작은도서관(완주군 이서면) 개관식에서 도서 500여 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전달한 도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기념하고 지역 발전과 창의적 교류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농촌진흥청 심근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은 앞으로 지역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독서 생활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비롯해 문화 융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 작은도서관과 함께 만드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

북적북적 페스티벌은 완주군이 주관하고, 전체 읍면 도서관과 독서회가 협력,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5,000여명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민들의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전체 도서관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내는 북적북적 페스티벌은 북 콘서트, 휴먼라이브러리, 도서관별 전시 같은 공동행사에는 신청자를 한 도서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참여자가 분포할 수 있도록 유도해 크고 작은 프로그램마다 함께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의 체험부스는 독서회가 주도적으로 체험거리를 발굴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개막 퍼포먼스



개막 퍼포먼스



식전공연(이서혁신도시아파트 오카리나,우쿨렐레)



식전공연(늘푸른지역아동센터 밴드)

야외광장에서는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의 독서회별로 준비한 독특한 체험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삼례도서관 꿈달아의 ‘점자명함, 책갈피로 사랑을 전하세요.’, 고산도서관 책따세의 ‘책을 읽은 우산’, 배꽃뜰작은도서관 비채나누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별마루작은도서관 별책동인 ‘어린왕자 여우시계 만들기’, 둔산영어도서관 민들레 ‘스탬프 동화책 만들기’, 기차길작은도서관 책사랑 ‘조선의 법궁, 경복궁 북아트’, 중앙도서관 책너를 ‘책읽는 행복의 시작, 독서노트 만들기’, 비봉초학교마을도서관 아름드리 ‘이야기 가득한 주머니책 만들기’ 등 책과 도서관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독서회가 함께 만들었다.



북 콘서트(오성민 PD, 태원준 작가)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소개



휴먼 라이브러리 단체사진



휴먼라이브러리(완주경찰서장)



가족 인형극(1부:도서관에 가면, 2부:엄마 사랑해요)



작은도서관(구이모악, 화산골, 비봉초학교마을), 삼례도서관 꿈달아 '책갈피 만들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이 활성화 하는데는 도서관 기반 주부독서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완주군립 삼례도서관의 '꿈달아(꿈꾸는 달팽이 아줌마)나 고산도서관의 '책따서'처럼 서로 추천한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지만, 동아리만의 특별한 행사를 열기도 한다. '모악'은 시 동인지 「까치밥」발행, '민들레'는 역사문화기행과 '책읽어주세요'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비채나누'(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누리고)는 시낭송회와 북 콘서트를 연다. 2015년에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개관한 '별마루' 작은도서관에는 '별책동인' 독서회가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도서관 지도〉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구분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완주군 용진면 2일로 61	290.2652
	삼래도서관	완주군 삼래읍 삼봉로 215-2	290.2642
	고산도서관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290.2647
	둔산영도서관	완주군 봉동읍 둔산로 70 제2국민문화원	
작은도서관	모악작은도서관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762 구이국민문화센터 2층	223.4167
	배곡동작은도서관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55 이서국민문화센터 2층	222.1919
	기차길작은도서관	완주군 삼천면 삼천로 99 기차마을(배곡리) 2층	231.3200
	둔산작은도서관	완주군 봉동읍 둔산로 67 코아문화센터 2층	261.3811
	철북작은도서관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94 소양국민문화센터 1층	247.8886
	화산골작은도서관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630-74 화산국민문화소 2층	263.1199
	경천작은도서관	완주군 경천면 경천로 228-29 경천보건지소 내	
	대평리작은도서관	완주군 삼래읍 중촌길 52 대평리 주민소 2층	
	비룡학교마을도서관	완주군 비룡면 비룡소농길 40 비룡초등학교	
	운주학교마을도서관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107 운주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동양학교마을도서관	완주군 동양면 대덕로 1526 동양초등학교	

http://lib.wonju.go.kr

매년 도서관기반 독서회 & 동아리 연합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전체 독서회를 네트워킹해 각 독서회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도서관간의 협력과 운영의 활성화를 이끌게 되었다. 독서회의 역량 강화로 자발적인 자원봉사 체제와 건강한 시민사회 성장을 이끌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독서회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 되었다. 그 결과 군민의 30,000여명이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여 연간 100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12,000여명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독서회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프로그램 연계활동, 각종 행사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와 프로그램 수수료 후 관내에서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작은도서관은 공유, 재능나눔, 시민의 학교

상관면 기차길 작은도서관 유아 온돌공간 옆 벽면에 벽화를 그리며 밥장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장석원)은 기차길 작은도서관 벽화를 시작으로 소양면 철쭉 작은도서관, 봉동읍 보물섬 다문화 북카페, 화산면 화산골 작은도서관에 특색있고 멋진 벽화로 재능기부를 해 주었다. 매년 북페스티벌 포스터 일러스트를 재능나눔으로 그려주고 있다. 그 후로도 방송,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세상도 즐겁다 : 재능기부, 좋아하는 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에도 완주군의 인정과 사람들을 홍보해 주었다. 벽화 재능기부 등으로 건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밥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줄 수 있었던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내국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중앙도서관 로비에는 6m, 북카페에는 4.6m 대형벽화를 그렸고, 경천애인 작은도서관에도 어린이 친구들과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다. 앞으로도 완주군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밥장의 재능나눔은 작은도서관 마다 그려진 벽화, 북적북적 페스티벌 포스터, MBC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방송, KTV 정책방송, 국방TV 명사 특강, KBS 아름다운 사람들, EBS 세계테마기행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어 완주군의 모든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KBS ‘다빈치 노트’, EBS ‘책 읽는 라디오’ 등에 고정출연해 활발히 활동하며 책과 도서관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있다. ‘밤의 인문학’, ‘밥장, 몰스킨에 쓰고 그린다’, 개정판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이다’ 등의 꾸준한 집필에서 도서관에 작업한 현장도 소개해 책과 도서관에 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상관 기차길작은도서관



소양 철쭉작은도서관

일부러 찾아와 재능나눔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 또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책과 만남을 통해 봉사를 더하며 성장하고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류 반 디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아파트의 사전적 정의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아파트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아파트망(appartement)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망은 원래 궁전이나 성 따위의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거처를 말하는데, 대저택 안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십 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고, 안주인이 서너 명의 친구나 친척들을 초대하여 간단한 티파티를 여는 곳으로 음악과 춤이 곁들인 궁중의 모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전상인(2008)에 의하면 프랑스의 아파트망은 옛날 사대부의 당(堂)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결국 아파트는 “뭔가 떨어지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도시 폭력의 상징이 되고 도시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거형태라는 외국의 경험적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길혜연, 2007), 우리의 주거공간은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에 묻혀버리게 되었다. 한국의 현대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되어버린 아파트는 개인주의적 주거문화, 가능하면 공용면적을 줄여야 분양성이 높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건설업체, 복도형 보다는 보다 독립적이고 타인과의 대면 확률이 적은 계단실형이 선호되는 추세, 집안에서도 방방이 구분되고, 가뜩이나 바쁜 요새 개인생활에 가족생활이 자꾸 퇴화하기만 한다는 비판(김진애, 2002)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변순용(2008)에 의하면 아파트형 주거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공동체성의 약화와 익명성의 증가를 말할 수 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인간관계의 확장과 이에 근거한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아파트 단지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공동체성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다. 전상인(2008) 역시 아파트

동이나 단지를 단위로 하는 분과적 사회자본은 풍부하나 그것을 초월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총자본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앞서와 같이 '탓'을 이야기 한다. 가족 해체를 촉진하는 것도,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도 아파트의 탓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말을 하다 보니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인생의 대부분을 아파트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비인간적이라는 평가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로도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은 그러한가 말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의 특징을 정리해보아야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커뮤니티 공간

최근의 건설사들은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어놓고 있고, 소비자들도 과거에는 입지조건, 교통, 편의 등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였으나 최근에는 웰빙 문화와 함께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과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지연, 이연숙, 2012)

정원, 놀이터, 경로당, 분수시설, 산책로, 운동시설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 (독서실 기능을 하는 곳도 많다)은 아파트 단지 안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라는 개념은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공동의 시설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간을 공유공간이라고 한다. 공유공간은 단지 내의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단위주택에서 가지는 소유권 및 영역권을 주장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간이다.(이연숙,1995. 김진희,2001 재인용)

아파트라는 집단생활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안에 모여 산다는 의미에서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생활 환경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새로 이사해 온 주민들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는 외부에서 새로운 집단에 들어오면서 보다 쉽게 집단의 연대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파트 내의 다른 시설에 비해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의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일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공론화하기에 편하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단지 내 주민에게만 도서관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의 공동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입주민에게만 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관이 가져온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준해 단지 밖의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는 단지 내 공유 공간이지만, 보다 많은 이용자와 자료와 정보와 서비스를 나누겠다는 생각에서 아파트 단지를 넘어선 사회적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2. 인적자원

아파트에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단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인지 자원봉사자들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아파트 작은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 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일일 이용자 수도 적지 않다. 단지 안에 도서관에 있으니 오고가기도 매우 수월하다. 이러한 면들만 본다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사람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거나 이용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아파트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다. 여기에서의 이동은 일일 생활권 내의 이동이 아닌 주거지로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른바 이사철이 되면 아파트 곳곳에 사다리차들이 보인다.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곧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된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다른 유형의 작은도서관들에 비해 아파트 도서관의 제일 큰 특징이라 할 만큼 핵심운영자들의 변동이 잦다.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의 임기로 관장직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또는 6개월 단위로 관장직을 뽑기도 하고 혹은 관장 없이 업무영역별 대표만 뽑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간혹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특정인을 지목해서 관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랜덤으로 선출하기도 한다. 사람은 많으나 대표로 나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다.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나와 가족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주민 내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남들 하는 정도’만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특징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아파트 안에는 주민들의 대표회의기구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대표회에서 인정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모임에 의해 운영된다.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사립작은도서관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이 수월한 편이다. 운영비가 없어서 개인재산을 기탁하거나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아파트에는 다양한 대표들이 존재한다. 입주자 전체 대표회 이외에도 부녀회나 노인회도 있다. 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가장 상위의 조직은 입주자대표회이다. 노인정은 필수 조직으로 만들어 지지만 부녀회는 자생조직에 속한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 주민생활 주요 문제에 관한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파트마다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누가 조직에서 대표를 맡게 되느냐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라고 불리는 생활지원기관이 있다. 이 곳에는 아파트와 같은 생활공동체 운영 전문가와 전문 사무직과 기계설비시설 등의 숙련자가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4. 아파트 공동체의 가치

2000년을 전후하여 다소나마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시민운동 중 하나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결국 이 운동은 활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아파트 단지라는 존재가 갖는 특유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공간 환경을 꼽을 수 있다.(박인석, 2013. 정현목, 2015 재인용) 1998년 설립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와 2000년 16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전국아파트공동체운동네트워크’ 등이 언론에 부각되며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주목받던 시기, 공통된 시각은 “아파트가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를테면,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은 도시 공동체에서 보기 힘든 공동체 성원 간의 일정한 연대를 갖고 있다. 주민들 간의 일정한 유대의식을 갖고 도시공동체 운동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인 훈련을 쌓게 된다.” 등 아파트 단지가 지닌 집단적 생활조건에서 공

동체 형성의 맥아를 찾았다는 것이다.(정현목, 2015)

그러나 우리주변의 아파트 공동체는 ‘집값 상승 용’이라는 부끄러운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아파트 주민’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발전이 아파트의 붐과 함께 일어나 아파트는 곧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이라는 고정관념이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집은 물질적이면서도 또한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집은 가족 연대의 상징이자 상속재산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 주거 시설이며 공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공유공간은 예전의 마을 사랑방이나 골목 어귀처럼 주민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와 비슷하다. 그것은 대화와 소통, 품앗이와 협력 등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이 들어서는 방식은 예전과 같지 않다. 아파트의 공유공간은 다 같이 모이는 방식이 아닌 세대에 따라 서로 분리되고 격리 된 형태이다. 즉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유아들을 위한 육아시설처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보다 ‘공동’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다. 아파트도서관은 한국적 아파트 문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10).

아파트에 전통성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능적 의미의 전통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계기가 실현 될 수 있는 전통성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 계기의 실현이 전통적인 사회의 공동체성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공동체적 계기는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공동체성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변순용, 2011:129). 개별성과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성도 유지할 수 있는 조화로우미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구해가야겠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03, 27.]
V. Gelezeau,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김진애, 우리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포럼, 2002.
김진희, 아파트거주자의 근린관계 및 공유공간 요구도에 관한 연구, 2001.
류반디,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사례, 인천시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자료 중, 2012.
변순용, 현대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인간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 환경철학, 제11집, 2011.
이지연, 이연숙, 공공과 민간 주민공간의 최근 발달경향연구, 주거환경 10(3), 2012.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8.
정현목, 가치있는 아파트만들기:수도권 대단지의 사례를 통해 본 아파트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2015.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한국출판연구소, 2010.



종교기관 작은도서관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정 춘 석

종이비행기작은도서관 관장

1. 종교기관 도서관의 개념

1) 종교기관 도서관

예전에는 ‘도서관’하면 책 보는 곳,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즉, 도서관은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으로 또 그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종교기관이 도서관을 종교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에서 일고 있는 마을도서관 운동의 핵심은 걸어서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유리된 공간이 아닌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운동이다. 곧 도서관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한 장소를 점유하고, 단순히 책을 빌려 주거나 공부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소통의 중심장소로서 교육과 나눔, 문화와 휴식 등 지역시민들이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종교기관도서관은 종교기관의 문화 선교적 사역의 영역으로서 성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도사역으로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운동과 사회적 섬김의 측면에서 종교기관이 처한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역량을 지닌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공간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유통시켜야 한다.

2) 종교기관 도서관의 필요성

① 선교적인 측면

종교기관도서관은 대형 종교기관 중심보다는 개척이나 미자립 종교기관이 더 열심이다. 종교기관이 모임의 장소 이상을 넓혀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선교의 장을 펼치기 위함이다. 종교기관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대출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각종 문화를 접목함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기관에 접하도록 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 선교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한 배려와 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 좀 더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② 종교지도자의 연구 측면

종교지도자의 말씀 안에있는 기관은 성장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는 꾸준히 묵상과 연구,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지도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가 우선이고 그 후에 많은 서적을 통하여 준비하게 된다. 가까이책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③ 종교교육 측면

종교기관도서관은 교우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의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양의 폭을 넓히고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준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종교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종교기관 도서관의 기능

종교기관도서관은 종교 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종교기관도서관은 현대적인 종교의 의미, 기능,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활동방법 등을 파악하여 종교가 지향하는 활동을 보조하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보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 종교만, 옛것을 고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선택, 수집, 분석, 가공,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정보센터의 기능

종교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적자원인 정보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의 기능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이 있다. 지도자와 제자, 제직들을 위한 말씀연구, 교육, 상담, 봉사 등의 전문적인 자료가 있음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준비를 해 낼 수 있다.

③ 부서별 도서관의 기능

유아와 유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겸비하여 어린이의 종교적 이해 및 인성개발,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종교에 대한 지식습득, 인성개발, 자기개발, 독서습관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들을 위한 각종 유아교육과 정보 등을 준비하고 특수 분야의 이용자들을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공공도서관 기능

종교기관은 지역 사회 가운데 존재한다. 따로 외딴섬처럼 있어서는 아니 된다. 종교기관도서관을 통하여 그 장을 개방하여 공공 도서관의 기능이 수행 되어야 한다. 곧 비 종교인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문화센터 기능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문화시설이어야 한다. 종교기관도서관은 종교의 문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 선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료와 서비스,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활동이 계속 되도록 항상 열린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⑥ 소통의 기능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사서와 이용자들로 나누어진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어간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의 종교기관도서관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종교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려고 하면 각종 학원들과 마찰이 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종교기관도서관이 되면 다양한 학습이 전개될 수 있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원봉사와 강사 등 인적지원은 물론 물질 지원까지 가

능하다. 종교기관으로 도서관을 끌어 오려고 하지 말고 기관 밖으로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길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 후에 선교가 되고 교우가 되는 것이다. 좋은 일은 결코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당장 종교기관도서관을 개관하라.

2. 종교기관 도서관의 역할

1) 도서관의 일반적인 역할 수행

종교기관도서관의 일반적인 역할은 종교기관 자료의 수집과 보존, 기관자료의 생산과 제공, 기관교육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기능 등이다. 또한 교역자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연구와 말씀자료 제공, 교육과 상담, 봉사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성도들을 위한 영성개발, 문서선교, 인격수양, 상담치료에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료의 제공 뿐 아니라 수집, 정리, 보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종교기관 사료관의 역할 수행

종교기관도서관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역사적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곧 지도자의 저서, 테입, 비디오, 각종 행사 자료, 알림자료 등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제공 하여야 한다. 기관역사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관일지는 물론 어린이들의 교적부와 학적부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수많은 행사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몇 장 뿐 이라면 부끄러울 것이다. 기관은 서류뿐만 아니라 박물관적인 기능까지 그 기능을 넓혀 기관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 등까지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공도서관의 역할 수행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 공공 도서관도 단순히 책의 대출만이 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자율적 자기학습과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이 인성개발, 언어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인 자극을 주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케 하여 동네 사랑방 같은 새로운 문화적 창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학교도서관 역할 수행

종교기관도서관은 기관의 학교 학생들에게 종교적 지식습득, 인성개발, 독서습관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종교기관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인터넷과 게임, 심각한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진학을 위한 각종 상담은 물론 진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5) 선교적 문화 체험의 역할 수행

종교기관도서관은 종교기관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 사명을 잊고 사회사업적 도서관 사업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종교기관은 궁극적으로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이용자들이 종교기관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각종 사회사업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대부분의 종교기관도서관 운영 주체가 개척 또는 미자립 기관이기에 더더욱 좋은 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무 노골적인 선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 교우들만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3. 종교기관 도서관 프로그램

종교기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왜 도서관을 이용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대답도 많았다. 그리

고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서가 여가를 지내거나 주변시설이 없어서라는 것보다 더 많았다. 도서관은 장서로 말할 때가 지났다. 분위기와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종교기관 도서관의 활용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

왜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들을 더욱 많이 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많아야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기관도서관은 교우들 중 일부만이 사용하고 그 시간도 기관 모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찾아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독서라는 고독한 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습관을 길러주고 서민들에게는 도서관이 사회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도서관의 대외 홍보와 마케팅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종교기관도서관은 전도의 매체가 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많아짐으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쓰여야 할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다 보면 도서관 본래의 목적과 역할인 자료를 통한 서비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주의점

제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경비, 진행자, 시간, 공간이용, 홍보, 기획, 평가 등이다. 어느 프로그램이든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필요성이다. 즉 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찾아낸다는 것이다. 좋았던 프로그램, 정기적인 프로그램, 신선한 프로그램 등 모두를 찾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로그램이 타당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장소와 주체가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종교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은 걸러내야 한다. 세 번째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우리 도서관에서 가능한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웃 도서관에서는 가능했어도 우리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다른 도서관에서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은 우리 도서관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프로그램은 그 역사와 전통속에서 새롭게 변모되어 가기 때

문이다. 또한 옛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한다.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굳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된다.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종교기관 도서관 프로그램의 목적별 특성

종교기관도서관은 선교에 목적을 두지만 그 목적이 단기간 안에 이룬다는 생각보다 서서히 그리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지식 정보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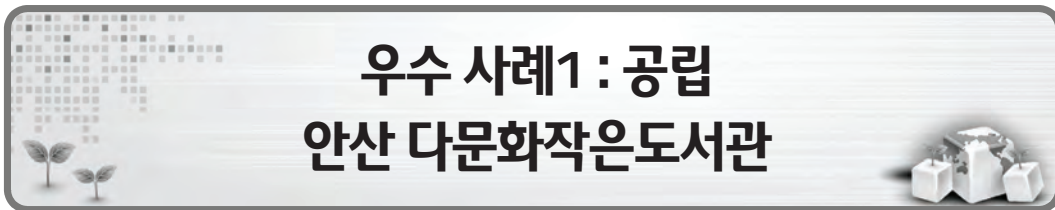
독서교실, 미디어교실, 독서회, 작가초청강연회 등

② 공동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전래 놀이교실, 풀꽃 나들이, 옛날이야기 듣기 등

③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실, 장애 어린이 독서교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우수 사례1 : 공립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

김 윤 영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대표

1. 설립 년 월 및 동기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2008년도 10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개관하였다. 그 후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해오다가 2014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이 위탁받아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설립배경은 이 도서관이 위치한 지리, 환경적 특징에 기인한다. 안산시의 전체 인구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753,604명이고 이 중 약 10%인 74,536명(2016년 2월 기준)이 외국인에 해당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말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유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원곡동 지역은 거주인 약 80%가 국외 이주민이고 이들이 주요 도서관의 이용자들이다. 따라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원곡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뿐 아니라 국외이주민들을 위한 곳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장서현황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서는 2016년 1월 29일 기준, 총 13,813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중 10,740권이 23개국의 외국원서들이다. 그 외 신문 및 잡지가 20종 비치되어 있다. 2015년 운영현황에 따르면, 회원수는 총 2,326명, 이용자수는 20,773명(1일 평균 70명), 대출자수는 3,543명(1일 평균 12명), 대출권수는 13,703권(1일 평균 46권) 그리고 2015년 한해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총 43종 205회 실행하여 7,011명이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3. 운영의 주안점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주민들의 대다수가 국외 이주민이라는 환경적 특징에 따라 안산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친근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려고 힘쓰고 있다. 예를 들면 안내문, 홍보문은 이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 혹은 기호로 표기하여 이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에게 한국생활 정착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모국어의 도서 및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셋째,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이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토록 한다. 이주민들이 글로벌 동아리, 세계명예사서로 조직,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모국어의 원서들을 구비하고 비치하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들 스스로 도서관의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감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민간교육시설, 정부기관, 보건소 등 여러 사회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들이 생활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있다.

4. 예산(년 합계) 및 자원조달방법

도서관의 전체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및 자원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안산시로부터 전체 운영예산, 1년 기준으로 약 90,000,000원(도서 구입비는 별도채정)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그러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첫째,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기증을 받는다.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20여개국어 넘는 국외원서를 제공하는데 예산과 구입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근무자가 파견되어 일하는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국외자료를 지원받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은 기대이상으로 컸다. 그 밖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책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외국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공하려는 방법도 고려하였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중국이주민들을 위해 중국문화원과 협력하여 그 기관으로부터 중국 발행신문 및 정기간행물, 잡지를 제공받아 이주민들을 위해 비치하였다. 둘째로,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 2년의 위탁운영기간동안 여성가족부, 경기도, 아름다운재단, 안산환경연합, 한국연구재단 등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예산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5. 운영 프로그램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일상 프로그램과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표로 정리하였다. 먼저 도서관 일상 프로그램은 다음<표1>과 같다. 일상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다.

〈표 1.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일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내 용
내가 우리도서관 역사	누구나	○ 도서관 릴레이 일기 쓰기
내가우리도서관 주인공	누구나	○ 도서관이용자들의 모습과 바람을 담은 글 전시
내가우리도서관 사서	각 나라별 / 명예사서	○ 각 나라별 명예사서가 수서와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참여
Book Face 릴레이	누구나	○ 책과 자신의 모습으로 새로운 책을 소개하고, 사진을 통해 나눔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특별교육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생활정착 및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이렇게 세가지를 주 목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다.

〈표 2.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특별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시	대 상	내 용
날개달린 도서관	1월 - 12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총16회)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인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지 및 노동자쉼터를 방문, 함께 책읽는 활동을 통해 잠재이용자 발 굴 및 도서관이용안내
다문화 북콘서트	7월 / 12월(2회)	다문화인 및 내국인	○ 각국의 다문화도서관 이용자가 함께 읽은 책에 대하 여 이야기하고, 책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 운영
글로벌독서지도 강사 양성과정	3월 - 11월 월4회 3시간(총20회)		○ 다문화독서지도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마술동화 구연 강사양성과정	3월 - 11월 월4회 3시간(총16회)		○ 마술동화구연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활동으로 꿈찾기여행	9월 - 10월 주1회 2시간(총6회)		○ 나만의 예술 작품 창작 ○ 전시연계
독서동아리 교육프로그램	1월 - 2월, 7월 - 8월 월2회 3시간(총8회)		○ 독서동아리 독서교육 프로그램
날개달린 그림책	연중 월4회 2시간(총30회)		○ 지역연계 기관 방문 그림책 강좌 및 함께 책읽기
지구별 열린텃밭	연중		○ 텃밭 가꾸기, 채소에게 책임어주기 릴레이
지구별 나눔장터	5월, 10월(2차)		○ 자신의 물품을 장터에서 매매하여 이웃과 물물 교환
크로스 미디어 라이브러리	7월 - 11월 (총 15회)		○ 다문화인과 내국인이 함께 영상제작을 하고 서 로 영상물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연계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안산작은도서관 협의회, 안산의제21 도서관특별분과, 안산시 문학관련 동호회,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감보디아 이주민을 위한 ‘지구인의 정류장,’JTS 안산다문화센터 등 여러 지역 다문화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토론회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

위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2015년에 실행한 네가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자한다. 이중 두 가지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수상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책3.0〉‘책읽어주는엄마’마술동화구연 강좌이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의 결혼이주여성 총 20여명이 마술을 활용한 동화구연 방법을 배우고 직접 지역교육기관에서 실습해보는 기회를 가졌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1)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dadada2661?Redirect=Log&logNo=220635831913>를 참조할 수 있다.

은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전액 지원받아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은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미술과 책을 통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가정 내 모자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화목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은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둘째,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아 운영되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최우수작은도서관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노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모여 영상 제작의 교육을 받고 서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봄으로써 다른 영역의 공동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작된 영상으로 크로스 영상제를 열어 작품을 관람, 감상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던 세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전하는데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미디어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데 있다.

셋째, ‘지구별 나눔장터’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더이상 쓸모없으나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물물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지역주민으로서 상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 가치를 배우고, 이웃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서만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사는데, 이러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도 무언가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별 열린텃밭’프로그램은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 아이템 공모전에서 굿아이디어상으로 수상되었는데, 이는 이주민의 특성이 반영되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활동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시로부터 텃밭을 제공받아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활동프로그램이다.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해 일상을 긴장과 심리적 위축으로 살아가는 캄보디아 이주민들에게 자신이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텃밭을 일구는 일을 찾아줌으로써 한국 생활의 정착 및 적응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의 가치는 도서관 실무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 및 실행이 중요함을 일깨워준 것이라 할 수 있다.

6. 비전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점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인구수 중 10%이상이 국외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거주민들의 80%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역이 그 이유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곳에서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의 타인과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야하는 것은 이미 숙명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 문제를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그 실험과 노력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실천은 지속될 것이나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더 큰 비전을 꿈꾼다. 1994년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한 미얀마 출신의 마웅저는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마을의 작은도서관을 이용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얀마 어린이, 청소년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는 단체인 '파비에'를 설립하여 자신의 모국인 미얀마의 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실패와 같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며 모국을 변화시키는 일을 꿈꾼다면 이는 더할나위 없는 가치있는 일이고, 이러한 작은 힘들을 길러내도록 하는 일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비전일 것이다.

7. 증빙자료(기사, 사진 등) 스캔 첨부

첨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활동사진, 수상내역 및 보도기사내용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 책읽어주는 엄마 마술동화구연강좌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 책읽어주는엄마 마술동화구연강좌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우수작은도서관으로 수상]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수상]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수상]	지구별 나눔장터

첨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활동사진, 수상내역 및 보도기사내용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 책임어주는 엄마 마술동화구연강좌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 책임어주는엄마 마술동화구연강좌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수상]
	[보도내용] 1. 내일신문 (2015년 6월 20일자) “안산지청 다문화작은도서관에 책 전달” 2. 아시아뉴스통신 (2015년 7월 2일자) “한양대,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지원공모 사업에 선정” 3. 한양대학교 인터넷 한양기사 (2015년 7월 3일자) “도서관, 다문화의 꽃을 피우다” 4. 인천일보 기사 (2015년 7월 9일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공모 사업” 5. 경인투데이뉴스 (2015년 7월 9일자)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 선정” 6. 코리아 다문화뉴스 기사(동영상) (2016년 3월7일자) “지역 이주민의 문화사랑방'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	
2015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수상		



우수 사례2 : 아파트 옹달샘 작은도서관



신 지 호

전주 옹달샘작은도서관 대표

1. 설립일 및 설립배경

2008년 전주시 인후동 1가 한신희플러스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아파트 관리동 2층에 빈공간이 있었다. 아파트 초대 자치회장이었던 나는 이 공간에 사립도서관을 설립하고자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도서관 준비위원들은 어린 아이들을 업고 걸리면서 길거리에서, 세대를 방문해 가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피력하며 한명 두명 설득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에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낭비라고 반대하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지만 관장님 이하 준비위원들은 결코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서명에 힘을 쏟아 부었다.

드디어 주민 찬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왔다. 총 1,236세대 중 893세대 72%의 찬성표를 얻는 쾌거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으며,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이 빈 공간에 서가와 많은 종류의 책, 책상 등 비품이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웃음이 채워 질 그날을 생각하며 주민들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 도서관은 2008.2.18. 사립문고로 등록하였으며, 2008.12.18.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립도서관으로써 문을 열게 되었다.

2. 주변여건

우리 도서관은 전주권 동부에 위치하여 전주·진안간의 관문으로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합된 대단위 주거 지역인데 비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인후시립도서관은 규모가 많이 협소하

여 당시 재건축으로 2개단지 2,785세대가 입주한 인원(약 9천명)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인근에 전라초, 북일초, 기린초, 동중, 유일여고, 전주생명과학고 등 6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지만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적인 여건이었다.

3. 설립목적

단지 내 도서 공간 및 문화정보제공을 통한 문화적 욕구 해소, 정서함양 및 교양 프로그램제공을 통한 올바른 도서정보제공, 도서관 관련 모임의 조직화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독서의식 함양을 목표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4. 도서관현황

우리 도서관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립도서관입니다. 현재 1,236세대 중 940세대가 회원세대로 등록이 되어있다. 아파트 도서관의 장점은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홍보와 회원모집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젊은 세대가 많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모집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또한 학생들이 인근 중고등학교에 다니므로 연중 학생 자원봉사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처음 2,000여권의 도서로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14,000여권으로 장서가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 95권의 대출권수를 기록하고 있다.(2015년 기준)

또한 15명의 도서관 운영위원을 조직하였으며(도서관장, 위원장, 총무 각 1인), 설립초기부터 사서를 채용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한 세대당 8권의 책을 2주간 대출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2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도서관 행사 참여 및 지원, 토요일 격주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5. 재정현황

설립초기 재정보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도서관장 및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100%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함(아래 표 참조)

○ 2014~2016년도 재정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2014년	2015년	2016년
인 건 비	16,000	16,000	19,300
운 영 비	6,431	6,346	9,600
책구입비	10,734	3,917	10,000
공모사업	11,500	11,200	5,500(심사중)

○ 지자체 공모사업비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사업내용	사업비
2014	•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우수상(1위)수상 - 도서관구입비 지원	6,500
	• 사립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우수도서관 선정 -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5,000
2015	• 전주시 교육지원청 주민참여제안사업 선정 - 제안명 : 두박두박 나에서 우리로 넓히는 따뜻한 동행 - 세부프로그램 (6개분야) → 우리동네 직업탐구/ 전주시 의화건강학/ 환경사랑 내가 먼저/ 지역명소탐방/ 궁궐기행 및 서울시청 투어/ 청소년 독서캠페인	6,600
	• 문화체육관광부주관 '도서관 책친구사업' 선정 - 4개 프로그램 : 책놀이, 수학여행, 책나누기, 동시모임	3,600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선정 - 선정 동아리 : 우리역사 바로알기(2009년~현재)	1,000

6. 운영의 주안점

첫째,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독서 동아리 조직으로 지역사회가 독서로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적 갈증해소에 일조하고자 하며, 작은 도서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어른과 학생이 언제든지 슬리퍼를 신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숙형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셋째, 우리 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사업계획 · 집행 ·

평가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발휘하여 선진적인 도서관을 만드는데 운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넷째,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고자 한다.

7.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1) 2015년

○ 정규 프로그램

- 부모독서모임(우리역사바로알기) : 매주 금요일 10시~12시
- 책 나누기 : 격주(짝수주) 목요일 10시 ~ 12시
- 책놀이 : 매주 수·금요일 4시 30분(하반기)
- 수학여행 : 매주 화·목요일 4시 30분 ~
- 마을모임 : 매월 첫째주 화요일 10시~ 12시
- 동시나누기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 단기 프로그램

- 토요영화상영, 1박2일 독서캠프, 아나바다 알뜰장터, 경제교육, 환경교육,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등

○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 4개사업 총 1,680명 참여
- 2015 주민제안사업 선정 <전주교육지원청> : 6개 사업 총 339명 참여

2) 2016년

○ 정규 프로그램 : 모든 프로그램이 현재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짐

- 부모독서모임(우리역사 바로알기) : 매주 금요일 10시~12시
- 책 나누기 : 격주 목요일 10시 ~ 12시
- 마을 모임 : 매월 첫째주 화요일 10시~ 12시
- 동시나누기 : 격주월요일 10시 ~12시

-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 매주 화요일 4시 30분 ~ 5시
- 토요영화상영 :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 공모사업

-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주최),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7회진행
-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주민제안 사업 공모 심사중
- 여름방학 독서교실 : 전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밖 동아리 지원 사업
-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사업 선정 <전주시립도서관>

○ 이벤트 및 특화사업

-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 진행
- 책이 익어가는 가을 : 독서의 계절 행사 진행
- ‘옛이야기 할머니’ : 재능기부를 통해 연내 운영(4회)
- 책과 만나는 아동요리
- 독서디베이트 특강
- 한세대 한책읽기 운동 시작

○ 도서관 동아리 : 동시나누기, 책나누기, 부모역사모임, 마을모임

○ 도서관 네트워크

: 전북작은도서관협의회, 전주시독서동아리연합회 회원 도서관으로 활동 중.

○ 월별 행사표

월	행사명	내용	대상
3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친구야, 동시랑 친구하지 않을까?	초등
4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도전, 나도 롤리외르(책보수공예)	어른, 자원봉사자
		이벤트 : 세계책의 날 행사	전체
5	물길&숲길 따라 도보여행	건지산/전주천 봄 생태체험	전체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내이름은 뽀뽀 롱스타킹(바느질 공예)	성인
	책과 만나는 아동요리	책으로 만드는 요리 교실 (토2회)	초등
6	스마트폰에서 탈출하라	스마트폰 바로알기 특강(3회)	단계별 진행
	한세대 한책 읽기 운동 시작	아파트 세대 상대로 희망자 선정후 시작	전 세대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시조창 실창(시조창)_	초등
7	안전한 먹거리 특강	의약품오남용, 불량식품 척결특강 및 캠페인(2회)	성인
	초등 독서동아리 회원모집	정기적인 모임 가능한 회원모집	초등 고학년
8	세계음식 이야기	여름방학 독서교실	초등
	여름방학 이벤트	내가 출석왕!	전체
	독서 디베이트 특강	여름방학 특강 (4회)	초등고학년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동화 창작, 문예창작	초등
	옛이야기 할머니	미취학 아동에 대한 그림책 읽기(4회)	~7세
9	안전한 먹거리 특강	건강한 밥상(잔칫국수)	성인
10	재능나눔 음악회 준비	인근 초중고, 입주민 대상 준비위 구성-10팀	전체
	책이 익는 계절 가을이벤트	독서의 계절 이벤트	전체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영화감상과 영화원리를 통한 영화읽기	초등
11	독서캠ป์, 재능나눔 음악회	도서관에서 1박 2일도, 음악회 관람	전체
	도서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그림자와 만나는 즐거움(그림자극)	초등
12	기적의 생명나눔 프로젝트	저개발국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3회)	전체
	중학생 독서동아리 회원모집	중학생 중심의 동아리 구성	중학생

8. 10주년 비전선포

2018년이면 우리 도서관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다음세대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왔고, 아파트 주민과의 화합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왔던 우리 도서관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선포한다.

첫째, 정회원 1,000세대 구축이다.

우리 도서관은 아파트 사립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세대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현재 1,236세대중 940세대를 회원세대로 확보중인데, 이중 휴먼세대가 여럿 있으며 그동안 전

출입 등으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회원의 재정비와 함께 1,000세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휴먼세대와 신규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만의 QR코드를 제작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비치하면 회원뿐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언제든지 도서관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지 홍보의 단계를 뛰어넘어 도서관 사업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도서관 1,000세대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시’ 한세대 한 책 읽기 운동 시작이다.

도서관의 본래 기능은 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이 정작 국민독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 작은 도서관은 주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어디서든 발길이 닿으면 독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의 제공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세대 한 책 읽기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독서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해 도서를 선정하고 희망세대원을 접수받아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미디어로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족이 회복되는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고 체험담 응모, 토론회 개최 및 시상과 격려를 통해 ‘독서로 소통’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낼 것이다.

셋째, 초중고등학생 대상 동아리 각 1개 이상 운영이다.

성인들도 바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학교수업, 방과후, 학원, 스포츠 등 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 대상 동아리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10주년을 준비하면서 학생 대상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한다.

동아리 운영 목적은 꾸준히 독서하는 학생들을 양성하여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잡아주고, 웅달샘 도서관의 전통을 이어나가 후배 양성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독서동아리를 통해 지역 사회 또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배출하여 책속에서 인물난다는 표본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근접한 지역주민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저희 작은 도서관은 33평 남짓한 공간에서 숨 가쁘게 9년을 달려왔다. 발 빠르게 움직인 9년의 시간동안 웅달샘 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중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고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한다.

자칫 교만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어 저희 도서관 관장님과 운영진들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
주민과 함께, 도서관답게,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 다음세대를 세우고 감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언론보도

일자	2016. 3. 12	방송국	전주MBC
기사명	사서가 있는 도서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사서가 있어야 하는 게 정답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최근 늘어난 작은 도서관은 사서를 구경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나선 주민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동화를 읽어줍니다. 2008년 문을 연 이 도서관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고 보기 드물게 사서를 고용했습니다.

최숙경(웅달샘 이용자)

‘혼자 오더라도 선생님이 책도 알아서 권해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혼자 낮시간에 오면 불안해하는데 선생님 계시니까 편안하고...’

전주의 작은 도서관은 104곳. 하지만 사서가 있는 곳은 20개에 불과합니다. 시가 전체 비용을 대는 공립 작은 도서관도 겨우 절반만 사서를 뒀고 나머지는 독서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박미경 사서(덕진 품에 작은 도서관)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이 먼저 오시고 자녀와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부족한 사서를 메우기 위해 순회사서제를 운영하지만 고작 두명 뿐이고 그나마 국비 지원 사업일 뿐입니다. 그나마 순회 사서 얼굴이라도 볼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고작 10곳 뿐입니다.

오길중 전주 완산도서관장 부한 부분은 꼭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정작 도서관에서 시민과 책을 연결해주는 사서 충원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고차원입니다

활동 사진 자료

2013년



단기프로그램-어린이 환경교육



단기프로그램-어린이 경제교육(만세동아리)



단기프로그램-중간소음교육



추억의 밀밭 밟기 체험

2014년



책놀이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동시모임 동아리



책나누기 동아리 활동



책나누기-청소년 모임

활동 사진 자료

2015년 도서관 책친구 등	
	
도서관 책친구-책놀이	도서관 책친구-책나누기(최명희 문학관에서)
	
도서관 책친구-수학여행	도서관 책친구 책나누기 -저자 초청강연
	
토요영화상영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인교실
	
토들러 미술수업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우수 사례3 : 종교 지혜의숲 작은도서관



문 세 이
지혜의 숲작은도서관 관장

1. 설립 년 월 및 동기

저희는 2006년 3월 27일 4,000권의 장서로 개관해 올 해 10주년이 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자리 잡은 신일교회부설 지혜의숲작은도서관이다.

개관 동기는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상 책과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히고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혜의 숲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해왔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2016년 3월 현재 10,300여권의 장서와 약 20여개의 프로그램과 동아리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루 3명 총18명의 엄마 자원활동가 들이 오전10시~오후6시까지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자원활동가는 모두 도서관 이용자들이며 근교 초등학교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독서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번은 도서관을 위한 회의를 한다.

3. 운영의 주안점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도서관 운영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아이들만 찾던 도서관에 단순히 책 빌리러 왔다가 책이 좋고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책

모임을 하고, ‘시나브로’라는 엄마 책 동아리가 탄생하게 된다. 그 소모임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나누며 동네 아줌마에서 책 놀이 선생님이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현재는 10명의 아줌마들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는 마을강사와 마을사서로 활동 하고 있다.

두 번째 운영의 변화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올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고민과 함께 시작된 공간개방

이용자가 적은 오전시간을 뜨개질, 리본, 바느질, 인형 만들기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재능을 발견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서관은 즐거운 곳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마을의 거점지가 되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혜의 숲 작은도서관으로 불리우게 된다. 이용자가 어린이로만 국한되었던 도서관의 인식이 이제는 누구나로 확대된 것이다.

도서관 운영에 가장 큰 주안점은 ‘누구나’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도서관이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는 도서관이다. 꿈꾸기엔 늦어버린 나이라고 생각했던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일손을 돕다가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반기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 더 큰 꿈을 꾸고 공부도 하며 사람들이 성장해 나아간다.

또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복사, 스캔, 출력 등을 무료 서비스 한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다 짬나는 시간에 들러 쉬어가기도 하고, 책을 보며 가기도 한다. 그렇게 지역의 사랑방 역할과 더불어 도서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조금은 아이러니 한 것은 저희가 교회부설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교인을 비교해 볼 때 7:3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교인보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예산(1년 합계) 및 자원 조달방법

우리 도서관의 1년 예산은 약 1600만원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은 1차

로 교회에서 약70%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20%는 시 지원금과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마을사업 등에 응모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서관 회원들에게 연 1만원의 연회비를 후원받아 운영된다.

5. 운영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통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5세~7세 책 놀이를 비롯해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여행과 역사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물론, 강사는 도서관에서 성장한 엄마 마을강사 선생님들이다. 그와 더불어 올해는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을 개설해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독서여행과 마찬가지로 작은 챕터의 영어동화를 읽는 수업으로 지겨운 단어 외우기나 파닉스를 벗어나 초등 아이들이 영어 동화책을 읽으므로 자존감도 향상되어 일반 영어수업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성인 독서동아리 “시나브로” 한 주에 선정한 책을 읽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며 독서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작년에는 5명의 굵직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그 무엇보다 올 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도.친.소(도서관 친구를 소개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 중에는 얼굴정도만 알고 친해질 계기가 없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원을 다녀온 6시에 같은 학년끼리만 도서관에 모여 신나게 논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그 부모들은 한견에서 아이들이 먹을 저녁끼리를 하며 엄마들끼리도 친해질 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엄마, 아이 많이들 기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도서관에선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책’이 본질임을 상기하고 도서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것에 기준을 두며 계획한다.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사들이 많아 인터뷰와 TV촬영들도 여러차례 있었다.

6. 비전

도서관에서 가장 든든한 책 모임 ‘시나브로’ 우리는 시나브로에서 함께 만났고, 이곳에서 함께 꿈을 꾸고, 또 이곳에서 함께 실천해 나간다. 이제는 책의 지식만을 깨달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지식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실천하며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길 원한다.

도서관에서 책모임을 시작한지 3년!

어느 날 “미스럼피우스”라는 동화책을 읽고 저희에게 큰 물음표 하나가 생겼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내린 저희들의 결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어떤 큰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고민을 시작하였다.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지역의 문제 함께 동참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함께 Green(그린)숲’이라는 주제로 환경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다.

18명의 자원 활동가들부터 일회용 종이컵에서 텀블러로 바꾸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 되는 쓰레기 자료를 모아 정확한 분리배출을 위한 매뉴얼 표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이번 10주년 행사 때도 환경도서관의 활동을 알리는 취지로 쓰레기 없는 행사를 진행했다.

1회성이 아닌 특성화된 환경도서관의 이이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시간이 흐른 후 지혜의 숲에 여러 사람들이 탐방 올 날을 기대한다.

저희도서관은 아날로그를 지향한다. 사람도 기계도 그렇다. 그래서 고장도 잘 나고 투닥투닥 갈등도 있다. 그렇게 고장 난 틈에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투닥투닥 갈등 속에서 화해의 방법을 찾아가며, 우리의 정은 더 깊어간다. 그렇게 쌓인 정이 서로의 눈빛을 읽고 위로하며, 내가 만든 반찬 맛보라며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들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다보면 미스럼피우스 책에 나오는 구절처럼 세상은 시나브로 아름다워져 갈 것을 믿는다.

빌게이츠를 키운 건 학교가 아닌 동네 도서관이었다는 말을 슬로건 삼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도서관은 기꺼이 마을이 될 것이다.

지혜의 숲은 우리 아이들과 자원활동가들이 계속 꿈을 꾸고 실천해 가겠다.

활동사진



이루리 그림작가 만남



이지민 작가 만남



이철환 작가 만남



환경도서관



여름방학 전래놀이



여름방학 책읽어주기

신일교회 도서관 '지혜의 숲' 올창

주교 특별활동 인기 여자 엄마들도 적극 동참, 지역 사랑방으로 우뚝



▲ 신일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들. (신일교회 제공)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진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많은 교회들이 원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도서관을 마련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늘 사람이 붙어있어야 하고 매번 새로운 책을 채워 넣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던 신일교회(이권희 목사) '지혜의 숲'이 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지역의 사랑방으로 우뚝 선 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제] 신일교회, 도서관 사역으로 지역 커뮤니티 역할

CBS 노컷뉴스 이사라 기자



[앵커]
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교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신일교회가 개소한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교회, <지혜의 숲> 도서관을 이사라 기자가 찾았습니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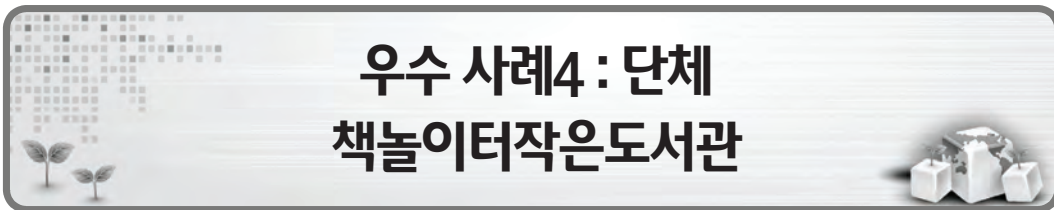
평일 이른 아침부터 교회로 모여든 지역 주민들. 삼삼오오 모여 책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안침 만들기 뜨개질을 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신일교회가 9년째 운영하는 <지혜의 숲> 도서관은 지역 내 사회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이권희 목사 / 신일교회

"어머니들이 함께 독서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지혜의 숲> 도서관은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일주일에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찾아옵니다.



우수 사례4 : 단체 책놀이터작은도서관

김 은 미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부관장

1. 설립 연월 및 동기

2005년 11월 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허름한 건물 2층에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당시 주교동 지역은 고양시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동네였고 공공도서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 지역 어린이들이 책만큼은 소외 받지 않고 누구나 와서 즐겁게 책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놀이터 문을 열었다.

누구나 - 돈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고, 우리 식구가 부족하다고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다.

즐겁게 - 억지로 책읽기나 공부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다함께 - 개인의 것이 아닌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함께 가꾸어나가는 곳이 되도록 할 것이다.

2. 작은도서관 현황

올해 11년째 한자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미숙 관장 이하 두 명의 지킴이가 교대로 책놀이터를 지키고 있다. 처음 2천여 권으로 시작한 장서가 지금은 1만 7천여 권에 이르며, 영유아 책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책, 비 도서까지 갖춰 놓고 있다. 특히 책놀이터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영유아와 어린이 책이며, 양질의 그림책을 1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의 활동도 알차다. 어린이(어린이 사서)자원 활동가를 비롯하여 책임어주는 청소년 자원활동가, 책놀이터의 그림자로 활동하고 있는 어른 자원활동가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도서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라고, 더불어 도서관도 성장해 가고 있다.

도서관 명칭이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놀이터’로, 지금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바뀐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 책놀이터는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출발해서, 청소년을 아우르고 어른들을 아우르고 동네를 아우르는 작은도서관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책과 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선정위원회’를 두어 양질의 책을 엄선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네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초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운영의 주안점

책놀이터는 수많은 책들을 연결고리로 마을 어린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이 편하게 찾는 동네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책이 있고, 책을 함께 읽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의 출발점은 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킴이 샘들이 ‘날마다 책읽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 읽어주는 의자’를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책 읽어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4. 운영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 영유아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하는 ‘책이랑 까꿍’

동네 가정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함께 하는 활동이다. 일주일에 한 번, 1년 동안 책놀이터에 와서 책을 읽고 활동을 함께 할 어린이집을 모집해서 활동 진행.

–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책 읽고 놀자!’

우리 동네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친구들이 2주에 한 번 책놀이터에 와서 책을 읽고 전래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

– 언니 오빠, 형 누나 책 읽어 주세요!

우리동네 청소년들이 책놀이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 책읽어주는 엄마

이용자 중 책읽어주는 엄마를 모집, 동네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활동.

– 어르신들에게 책읽어주기

청소년, 어른 자원 활동가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

– 빈둥빈둥 책읽기 수첩

날마다 30분 동안 책을 읽으면 도장을 찍어주는 활동.

– 바깥도서관

놀이터나 공원에 장소를 정해 놓고 책을 밖으로 갖고 나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

– 주제 책 전시

2주에 한 번 새로운 주제에 맞춰 주제 책 전시

– 책떠들떠들 라디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책을 소개하고 동네 소식을 전하는 파के스트 진행 예정.

〈문화 프로그램〉

– 동네 영화제

한 달에 한 번 엄선한 영화 상영.

– 까망이랑 요리를~

세 달에 한 번 자원활동가들이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요리 활동 진행.

–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일년에 한 번 여름 방학 동안 책놀이터에서 1박2일 진행.

– 마루잔치

일 년에 한 번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잔치.

– 책잔치

일 년에 한 번 동네사람들과 책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책잔치.

〈우리 동네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

– 이웃산타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외된 이웃 어린이에게 책과 선물을 전달하는 활동 진행.

5. 예산 및 자원조달방법

수입		지출	
정부(지자체)보조금	6,000,000원	인건비	12,000,000원
후원회원 후원금	12,000,000원	운영비	7,000,000원
단체 지원금	2,000,000원	사업비	1,000,000원
총계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6. 비전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10년은 동네 속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좋은 책과 문화,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회성 행사 중심이 아닌, 책을 중심에 둔 일상 활동들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운영하여 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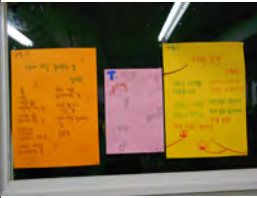
앞으로 10년 역시 책을 중심에 둔 일상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뭘할까?’가 아닌 ‘좋은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동네 작은도서관이 키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이 아이들의 고향이니깐.....

7.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사진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비 고	
까망이랑 요리!	초등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 〈땅 속 탐험 고구마를 찾아서〉 〈엄마에게 시 선물하기, 생일상 차려드리기〉		
아빠랑 놀자!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와 아빠	〈아빠와 떠나는 1박2일 여행 : 강화도 함허동천〉 〈아빠와 함께 썰매를 타고〉		
여름방학 함께 보내기	초등학생 이상	〈내 손으로 걱정인형 베개 만들기〉 - 작은 인형 만들기, 걱정인형 베개 만들기		
여름방학 함께 보내기	초등학생 이상	〈환경 제품 만들기〉 - 친환경 수세미 뜨기,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 친환경 모기 퇴치제 만들기, 우리 쌀로 떡만들기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초등학생 이상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여러활동하기 - 비빔밥 만들어 먹기, 책읽기, 바깥놀이, 독서 활동(꼬꼬닭 만들기), 영화보기, 편지쓰기와 잠자기, 기상, 아침식사, 독서활동(책 속 보물찾기), 놀기와 정리하기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비 고	
우리 동네 책잔치 〈책이랑 놀자〉	초등학생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곤충들〉 - 〈학교에서 만나는 곤충들〉 작가와 함께 하는 곤충체험		
	누구나	〈도서관에서 생길 수 있는 일〉 - 난타공연, 마당극, 도서관과 책을 주제로 한 책전시, 책놀이터 어제 오늘 내일, 바깥도서관, 아장아장 걸어가는 책세상, 여러 책놀이 마당		
	초등학생	〈우리가 만드는 그림 족자〉 - 〈신기한 그림 족자〉 읽고 그림족자 만들기		
책놀이터 마루잔치	숨씨 자랑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책놀이터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인형극, 미술, 댄스, 시낭송, 악기연주, 노래 등 장거나 숨씨를 자랑하는 활동		
이웃산타	신청은 누구나	직접 산타가 되어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몰래 전달하여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비고	
주제 책전시 / 주제 활동	누구나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책 전시와 관련 주제 활동〉		
		6월 : 평화 (평화책과 서랍장 전시, 평화책 이어달리기, 룡따 만들기, 재일조선학교 알기와 모금활동)		
		7월 : 여행 (아빠와 떠나는 1박2일 여행, 도서관에서 빈둥거리기 책속으로 여행떠나기)		
		8월 : 우주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여름방학 함께 보내기)		
		9월 : 열매 (까망이와 요리를 - 땅속 탐험 고구마를 찾아서, 동네영화제 -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10월 : 세계 여러나라 (책잔치 - 책이랑 놀자, 세계 그림책과 떠나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탐험)		
		11월 : 나 (아빠랑 놀자! - 아빠와 함께 썰매를 타고)		
		12월 : 꿈 (숨씨자랑 마루잔치, 이웃산타, 시와 노래가 있는 밤)		
		1월 : 새해 (책먹는 겨울방학)		
		2월 : 사랑 (학부모 예비학교)		
		〈2012년 3월부터 시주제 책전시, 매달 주제시 선정 책놀이터 층계에 부착 전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비 고	
동 아 리	어린이 노래단 시끌이들	어린이들이 직접 시를 쓰고 작사 작곡까지 하여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		
	누렁소	아빠모임		
	까망이	엄마모임		
	책마중	어른모임		
	볶음밥& 파스타	청소년		
	기타 동아리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어른		



우수 사례5 : 기관 환원어린이도서관



김 진 경
서울 환원어린이도서관 담당

1. 설립 년 월 및 동기

1) 준비단계 (~2003.12.29.)

아동생활시설(지온보육원) 내 도서관 운영

- 도서관의 기능 확대 및 전문적 운영의 필요성 인식
-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식
- 아산복지재단 기능보강 선정-“애들아! 우리 책 속의 보물을 찾아볼까?”
- 2003.12.29일 문고설립 및 시설허가(강서구청)

2) 진행단계 1(~2004)

- 중앙공동모금회 제안 기획사업 선정
- 생활시설기능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통합
- “책 읽는 아이들이 사는 마을”
-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 수행

3)진행단계 2(2004~2008)

- 프로그램의 정착 및 안정화
 - 특성화 프로그램: 독서여행을 떠나요, 병아리 소풍 오는 날
 - 지역아동복지센터 내 중추적 역할 수행
- (방과 후 교실, 아동가족 상담실,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

4) 진행단계 3(2008~현재)

- 바람직한 도서관 모델 만들기
- 지역 내 네트워크 활용(지역주민, 구립도서관, 복지관, 연계)
-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2. 작은도서관의 현황

- 시설규모/ 224㎡
- 인력/ 담당 사회복지사 1인 외 자원봉사자 연 70여명
- 이용현황/ 열람: 7,711명, 대출: 5,849권(2015년 기준)
- 소장자료/ 17,447권 (2015년 기준)
- 프로그램/ 독서여행을 떠나요
 병아리 소풍 오는 날
 아동교육프로그램(레고, 영어, 요리, 음악 등)
 독서강좌
 문화공연
- 운영시간/ 평 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3. 운영의 주안점

환원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정보와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 교육, 복지적 기능이 다양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 도서관은 주체인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같은 법인 내 위치한 지온보육원 아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반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환경의 아동에게 사회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연결통로로써 작용하고 있다.

본 도서관에서는 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독서 공간 제공 외에도 다양한 환경(시설 아동, 저소득·차상위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래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특성을 살려 일반 지역사회 아동 중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도서관 담당 사회복지사가 관내 지역아동복지센터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힘쓰고 있다.

4. 운영 프로그램

1) 열람 및 대출

- 대 상 : 강서구 지역주민 누구나(보육원 아동 포함)
- 운영기간 : 주 6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
- 등록인원 : 총 3,418명
- 효 과 : 지역 아동(보육원 아동포함) 및 주민을 위한 도서 및 정보 제공

2) 병아리 소풍 오는 날(도서관 견학)

- 프로그램 : 병아리 소풍 오는 날
- 대 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강서구 내 15개 기관)
- 기 간 : 2015년 3월~12월, 매주 화~목, 10:30~11:30
- 내 용 : 도서관이 한적한 오전시간을 활용. 강서구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유아에게 도서관 이용방법 및 독서기회를 제공
- 효 과 : 만 3~5세 유아의 독서활동 증진 및 도서관에 대한 친숙함 제공

3) 아동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아동교육프로그램
- 대 상 : 5~7세 미취학 아동
- 기 간 : 4월~12월(방학 제외,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
- 내 용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요리, 음악을 이용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 효 과 : 다양한 환경의 아동에게 여가시간 활용 및 독서프로그램 제공, 또래관계 및 사회성 증진

4) 독서여행을 떠나요

- 프로그램 : 독서여행을 떠나요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60명
- 기 간 : 연 2회, 여름, 겨울방학 3주간 진행
- 내 용 : 회마다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맞는 책을 스스로 독서하고 전문 강사에게 관련된 지식을 배우며 활동하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
- 효 과 : 독서의 중요성, 바람직한 독서습관 도움, 다양한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활동 진행: 사회성 증진,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

5) 독서의 달 프로그램(책과 친구하기)

- 프로그램 : 10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책과 친구하기
- 대 상 : 강서구 지역주민 누구나
- 기 간 : 9월~10월
- 내 용 : 도서관 신규회원 모집 및 독서프로그램, 인형극
- 효 과 :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다양한 독후활동 제공

6) 독서강좌

- 프로그램 : 책과 관련된 강좌, 작가초청회 등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성인, 아동 나누어 진행)
- 기 간 : 연 1~2회
- 내 용 : 독서 지도 방법 및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
- 효 과 : 효과적인 독서지도방법 제공

7) 문화공연

- 프로그램 : 문화공연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기 간 : 3월~12월(월1~2회)
- 내 용 : 인형극, 마술쇼, 연극 등. 아동가족을 위한 공연
- 효 과 :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주말을 활용한 가족의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5. 예산 및 자원조달방법

- 1) 서울시 보조금: 도서관 운영비 사용
- 2) 강서구 작은도서관 보조금: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
- 3) 도서관 이용자 실비 부담금: 개인 재료비 부담금
- 4) 지역주민 및 단체의 도서, 장난감 기증
- 5) 사회복지사 1인 인력으로 도서관 운영 어려움: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
(강서도서관, 기업, 학교, 노인종합복지관 구연동화 봉사자 및 개인봉사자)

6. 비전 등

- 1) 도서관 간 혹은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구축
- 2)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적 운영 유도
- 3) 아동전문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 4) 이용자의 특성,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7. 언론 자료

- 1) 강서구민 영상기자단-독서여행을 떠나요-“건축물로 배우는 이야기 세계사”
<https://youtu.be/IPC2rQH3iq81>
- 2) 독서여행을 떠나요-“내일은 발명왕” 참여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ayoung916/220246424428>
- 3) 강서구민 영상기자단-“퐁돼지 왕방귀 인형극”
<https://youtu.be/llrul4NFyhw>

8. 활동



1) 병아리 소풍 오는 날



2) 독서여행을 떠나요



3) 아동교육프로그램



4) 문화공연



[주제별 발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정 기 원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1994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법적용어로 생기며 독서실 개념의 ‘문고’가 생기게 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문고라는 단 구절만 되었다.

2009년 9월 26일 개정 시행됨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탄생했으며, 2012년 2월 17일 제정, 그해 8월 18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행된 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총 5,597관, 공립 1,363관, 사립 4,233관, 2015년 말 기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계나 도서관학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의 연구물은 가끔 나오나 법령에 관계된 내용은 없어 지역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시기에 ‘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주제 분임강의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1. 작은도서관의 법적 근거

1)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일부개정 2016. 02. 03.

(1) 작은도서관이란?

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서직원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 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시 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기본 장서(권)	연간증서(권)
공공도서관	2640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작은도서관	330이상	6 이상	1,000 이상	

비고: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제4조 제1항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1명을 더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풀이】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된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배치기준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권장사항으로 한정된 것은 아쉬움이 지적된다.

법제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폐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도서관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된다.

(2) 사용료 징수 근거

법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발급수수료
4. 강습 · 교육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풀이】 공공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은 무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외부 상업데이터베이스의 이용료,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의 대관료, 개인적 이용목적의 복사비용, 강습 및 교육 실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설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사교육시설과 개인독서시설 등의 영리사업을 사립공공도서관의 활동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순적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신규제정2012.02.17, 8.18 시행, 일부개정2016.02, 03.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풀이】이법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4월부터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위해 필자와 몇 분이 국회의원 회관을 돌며 노력한 결과 2012년 2월 17일 제정, 그해 8월 18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행된 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총 5,597관, 공립 1,363관, 사립 4,233관, 2015년 말 기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순회사서, 워크숍 등이 이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2. 주택법에 관련한 작은도서관 설치 법

「주택법」 법률 제14093호 일부개정 2016. 03. 22.

1) 공동주택

법 :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본조 신설 2013.6.17.]

2)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풀이】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은도서관에 비치되는 1,000권 이상의 도서에 대한 가격을 850만원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원래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은, 자료 1000권 이상, 건물 33㎡(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치하는 도서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의 질과 가격을 두고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준공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발하자, 건설교통부는 규정하고 고시하였다.

3. 건물 용도에 관련한 법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2016. 02. 03.

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10. 교육연구시설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4호 일부개정 2016. 0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1종 근린생활시설

바.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4.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도서관법」

법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107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5. 재정에 관련한 법

1) **법인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24호), 시행령(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 시행규칙(개정 2009.9.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법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 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지정 기부금”이라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시행규칙 : [시행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2016.3.7 일부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별표6-2 <개정 2016.3.7.>

번호	지정기부금 단체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72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협회

【풀이】 법인세법은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등록된 법인의 당해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의 부과 및 징수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문고,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협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법인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도서관법」 근거

법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 제13999호(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2. 03.

시행령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 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

회·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 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률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15호) / 시행령(개정 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 / 시행규칙(개정 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

법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서의 입장

시행령 : 제38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24호) / 시행령(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법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 한

시행령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풀이】이법은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화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의 승계를 말하고,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의 원칙에도 불과하고, 전사자나 공무수행 중 사망자 등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정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이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박물관과 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을 공공도서관에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09.12.31. 행정안전부령 제124호)

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주민편의 시설) 주민편의 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풀이】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과 함께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6. 북카페가 운영과 관련한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02. 04.

법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타법개정]

법 :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31.]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31.]

시행령 :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일부개정]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개정 2012.1.31.>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시행 규칙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독서문화예술과 관련한 법

1)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09.9.6., 법률 제9470호) 시행령(시행 2009.9.6., 대통령령 제21613호)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13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풀이】독서문화진흥법은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도서관법에서 폐기되는 독서진흥 관련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과 직장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0.6.18., 법률 제10108호,
시행령(시행2010.6.18., 대통령령 제22208호)

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시행령 [별표 1]

제 2 조 (문화시설의 종류) <개정 2008.2.29.>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3. 도서관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 고: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문고

【풀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공간설치, 전문예술인 육성, 문화의 날 행사지원, 문화예술 강좌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문화시설의 종류의 범위에서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문고'를 문화시설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9. 저작물 사용 및 복제에 관련 법

「저작권법」(시행 2010.2.1., 법률 제9785호), 시행령(시행 2010.2.1., 대통령령 제22003호)

1) 복사물

법 :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풀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과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상반되는 목적으로, 양자간의 균형과 절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창의적 지식생산 활동을 증진하려는 양면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은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통하여 사회적 지식유통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공공시설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고, 자체보존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하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도서 등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다만 복사·전송이 용이한 디지털자료의 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상세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디지털저작물의 경우는 도서관내 열람만이 허용되고, 도서관관 간 복제전송이 제한되며, 5년이 경과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연이나 영상물

법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시행령 :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풀이】 저작권의 권리제한은 사회적 공정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저작물의 공정 사용은 이법에서 정한 규정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이 법 제29조에 따라 저작권리 제한의 범위에서 합법적 도서관관련 주요 법령 13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강좌 운영에 관련한 법

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2008.3.28., 법률 제8989호)

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시행령 :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기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5.]

【풀이】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법에 의한 "학원"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연수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수강료 징수,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등의 인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정하여 게시하고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 및 게시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과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11. 공직선거와 선거법 관련한 법

1) 「공직선거법」(시행 2009.2.12, 법률 제9466호)

법 :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2) 정치인 작은도서관 금품에 지원에 관한 내용

작성자	정기원	+ 작성일자	2011.04.18
+ 제 목	(비공개) 도서관에 도서기증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공명선거를 위하여 늘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헌직 국회의원이나 의원 예비후보자가 저희 작은도서관협회나 작은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거나 물품을 기증하였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도서기증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요즘은 법이 더 강화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정기원		
+ 담당부서	법규안내센터	+ 전화번호	02-503-1790
+ 답변내용	귀 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이「도서관법」에서 정한 공공도서관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서 등을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증하는 도서 등에 자신의 소속정당명·직명·성명·기원문구 등을 게재하여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u>다만 기증받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등록규정 등에 따라 기증받은 책에 기증자를 표시하여 대출·열람토록 하는 것은 업무상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u> 법규안내센터(02-503-1790)		

12. 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령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풀이】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법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공고하는 공익사업지원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사립 작은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백을 매워주고 소외계층대상 문화·복지시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조금은 1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 까지 공익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선정되어 지원받는다.

참고 자료

도서관연구소(2010), 『우리나라 도서관관련 법령해설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령검색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식품위생법」

「공공기관 소방관리 안전에 관한 규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비영리단체지원법」

도서관으로 통하는 문화자원봉사 활동관리 도통문(圖通文)

허 태 범
홍천 진리도서관 관장

1. 자원봉사의 이해와 자원봉사 관리 채널

1) 자원봉사 이해

위키 백과는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제3조 1항)이다.

자원봉사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되었고, 자원봉사활동(Voluntarism)이란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자원봉사자(Volunteer)라고 한다.

2) 자원봉사의 특성

자원봉사활동은 말속에 담긴 개념 그대로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있다.

- ① 자발성 : 자신의 의사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활동하는 것
- ② 지속성 : 동정심에 의한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

- ③ 공익성 : 타인의 안녕과 복지,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④ 무보수성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음
- ⑤ 이타성 : 배려와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 번영을 위한다.

3)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채널

자원봉사는 정부가 국가경영에 중요한 목적이 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부부처에서는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옛날 자원봉사는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종교적 사랑의 실천을 넘어 자기개발과 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필수과목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정부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채널은 관리하는 부처에 따라 독특성을 가진다.

관리 시스템	정부 소관부처	사이트 주 소	비 고
문화체육자원봉사	문화체육관광부	csv.culture.go.kr	20세 이상
1365 자원봉사	행정자치부	1365.go.kr	일반 긴급구호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보건복지부	vms.or.kr/user	사회복지 기관
두불 청소년 자원봉사	여성가족부	dovol.youth.go.kr	청소년 활동
농촌재능 나눔	농축산식품부	smilebank.kr	농촌 재능기부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할 것은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써 문화자원봉사를 이끄는 문화자원봉사 활동처가 되어 문화자원봉사 활동역량을 키우고, 활동하므로 지역 사회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2.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이해와 문화자원봉사 활동

1) 문화자원봉사의 이해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예술적, 인문학적 공감에 있는 문화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에게 문화감수성을 증진시켜 주어 스스로 삶의 기획력을 높여주

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창의성과 활력을 주고 삶을 지지하는 문화공동체를 가꾸도록 한다.

문화자원봉사가 가지는 세 가지 특성은 감수성 창의성 전문성으로 문화적 감수성은 세상과의 공감능력을 높이며, 문화적 창의성은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문화전문성은 일상을 뛰어넘는 기획능력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문화자원봉사와 일반 자원봉사를 굳이 왜 구별하는가요? 문화자원봉사는 일반자원봉사에 포함되어 일반 자원봉사의 시민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공유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이 장차 만들어 낼 사회적 변화에 집중한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화적 내용을 만들어 간다. (문화자원봉사활동 관리자 매뉴얼)

〈자원봉사와 문화 자원봉사의 구별〉



출처 : 《문화자원봉사 활동매뉴얼 관리자용》 2014

2) 문화자원봉사의 이해

구분	문화자원봉사	일반자원봉사
공통점	공동체적 가치와 건강한 시민사회 지향	
차이점	1. 문화적 공감을 통한 돌봄 2. 감수성, 창의성, 전문성의 순환과정 3.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4. 활동의 결과로서 문화감수성의 공유	1. 결핍과 요구에 대한 도움과 돌봄 2. 문제인식→실행→해결의 진행과정 3.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성 실현 4. 활동의 결과로서 도움과 보람
강조점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는 시민성

체육자원봉사는 체육을 매개로 봉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입니다. 건강하고

명량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체육자원봉사는 보다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가꾸도록 도와준다. 체육 자원봉사는 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며, 공동체적인 체육자원봉사를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스포츠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한다.



출처: 문화체육자원봉사 홈페이지

3) 문화자원봉사의 활동현장

문화예술 현장은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공연장, 전시관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이나 공간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의 생활 문화 공간을 의미한다. 바로 문화자원 봉사 활동은 일상의 현장에서 문화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자원봉사 활동 관리 매뉴얼)

문화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에 문화시설과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문화자원봉사 활동현장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공간		시 설	비 고
문화 시설	공연시설	문화예술회관, 회관, 공연장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생활시설	문화원, 문화의집, 여성회관, 복지관, 복지시설	
	특수시설	문학관, 국악원	
	보존시설	궁, 능, 사적지.	
	도서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자료관	
지역사회		지역축제, 행사, 문화공동체 사업.	
기관		학교, 교도소,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① 공간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유산시설, 자료관·기념관, 전시·체험관,

생활문화시설, 여가·레저·수련시설, 축제·행사장, 문화예술단체, 주민공동시설 및 마을 공동체, 사회복지·의료시설 및 단체, 교육시설 및 단체 등

② 분야별 - 인문정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문화, 문화유산, 생활문화, 축제·행사, 문화 산업, 관광·레저, 생태과학 등

③ 기능별 - 공연·전시, 강연·강습·교육, 창작·제작, 기획·연출, 사무관리·행정, 홍보, 진행 및 운영, 시설유지 및 관리, 해설, 안내·질서 및 편의서비스, 통·번역, 자료정리 및 기록, 조사·연구, 멘토링·컨설팅, 인솔 및 돌봄 등이다.

4) 문화체육자원봉사 관리 운영체계



출처 : 《문화자원봉사 활동매뉴얼 관리자용》 2014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자원봉사 관리는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로 구별되어 문화 분야는 2015년 3월 1일 부터 한국문화원협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은 소속된 시군구의 문화원에 속하여 문화자원봉사 활동처로 문화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은 인증처가 되는 시군구 문화원에서 인증하게 된다.

3.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자원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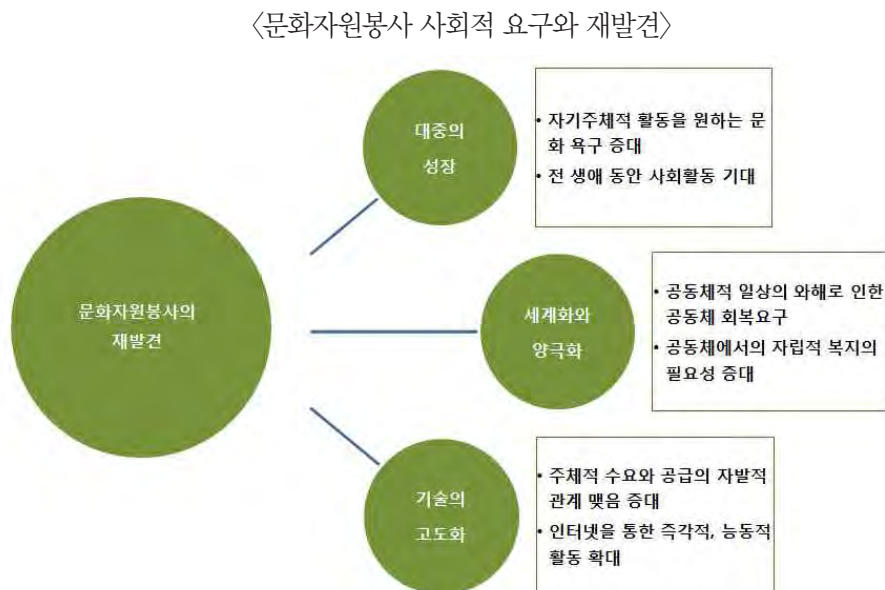
1)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자원봉사의 필요성

도서관은 전국에 가장 많이 있는 문화시설이며, 문화적 원형이 보유된 곳이다. 도서관은 책을 통해 혹은 책을 넘어 문화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길로서 도서관에서의 문화자원봉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민생활 속에 깊숙이 관여하는 작은 도서관은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적절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자원봉사자를 개발하여 문화자원봉사 동아리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문화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례로 진리도서관에서는 2015년 독서지도사과정을 개설하여 16명이 수료하였고, 문화자원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요양원에 매주 독서활동 자원봉사를 2년차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문화자원봉사활성화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동아리 활동지원을 받아 복지시설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자원봉사 활동매뉴얼 관리자용》 2014

2) 작은도서관 문화자원봉사의 관리 매뉴얼

문화자원봉사는 작은도서관이 독립적으로 활동과 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문화체육자원봉사로 들어가지 않고, 예전의 행자부 1365 자원봉사나, 보건복지부 vms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시스템과 채널 연계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해주므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지 않고 일회성 봉사활동이 되게 하는 경우이다.

문화자원봉사는 작은도서관이나 봉사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동아리로 관리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활동가가 되고,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을 지라도 지역사회에 문화적 큰 행사나 시설 기관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작은도서관 문화자원봉사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본다면

- ① 문화자원봉사 활동처 등록 : 문화체육자원봉사 홈페이지나 문화원을 통해 활동처 등록
- ② 문화자원봉사 모집 : 교육과정이나 광고를 통하여 문화자원봉사자를 모집
- ③ 문화자원봉사자 가입 : 자원자로 하여금 홈페이지에서 문화자원봉사자로 가입하게 한다.
- ④ 문화자원봉사 단체 등록 : 가입한 회원들로 문화자원봉사 단체등록을 한다.
- ⑤ 문화자원봉사 실천 : 동아리 회원들로 하여금 독서봉사활동을 실천한다.
- ⑥ 문화원에 봉사활동 인증처리 : 활동사항을 인증처인 문화원에 통보하여 처리합니다.

3) 작은도서관 문화자원봉사 활동자료

자원봉사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국가경영에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으로 정부부처에서는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옛날 자원봉사는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종교적 사랑의 실천을 넘어 자기개발과 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자원봉사 홍보 포스터를 도서관 알림판에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부탁한다.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문화체육자원봉사 교육에 참가하여 문화자원봉사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맺는 말

문화체육자원봉사는 다른 자원봉사에 비하여 국민들에게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서관이 해야 할 소중한 일이다. 도서관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해야만 할 일이라고 확신하여 물질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개인적으로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지식정보 전달, 평생학습, 독서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행복지수 높이기, 청소년 활동, 수입창출, 문화 창조,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봉사 등등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한다. 문화자원봉사가 기이하다



〈 현대인의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국제사회 유엔이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2001~2015년까지 15년간 새천년 개발목표(MDGS) 8개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였고, 2차로 2016~2030년까지 금년부터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 17개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보는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삶이다. 도서관의 운영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까? 저는 그 해답은 바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은도서관 사역을 값지게 실천하시는 아주 귀하신 여러분!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고 자료

문화체육자원봉사 관리자 매뉴얼

최혜자의 6인, (요약본) 문화자원봉사 활동 개발 연구 문화예술위원회, 2014



리더스클럽 독서토론은 이렇게

유길문

리더스클럽 회장, 706회 토론

1. 책에 대하여

책을 왜 읽는가? 독서의 목적은 저자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도구인 글을 자료로 저자의 생각을 발견하는데 몰두해야지, 그 도구인 책에 몰두되어서는 안된다. 창의적으로 독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깊이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메모다.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도 맞지만,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가장 불행한 독자는 인쇄된 것 지식 밖에는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색하지 못하는 독서가는 오히려 무지한 농부보다 못하다.

2. 독서토론의 기본이론 / 개념

독서토론이란, 구성원이 동일한 도서를 읽고 문제를 제기하여 여러 사람이 논의하는 것을 뜻하며, 다시 말해서 독서 활동에 독자의 주관적인 이해보다는 여러 사람과의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갖게 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독서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 인간 개인의 생각의 교정의 효과

⇒ 상상력과 지적인 능력의 발달로 사고의 창조성

독서토론은, 독서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판단에 따른 주관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통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창조적 사고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활동이다.

■ 독서토론과 일반 토론과의 차이점

기본적인 독서토론은 구성원들에게 선정된 도서를 공지하거나, 독서자료를 제공하여 각자의 감상(느낌)을 생각하게 하고, 진행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읽기를 통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미 형성된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고, 경쟁적 의사교환을 하면서 상호의견에 대해 방어하면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토론과 차이가 있다.

⇒ 독서토론은 논점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발전시키고 검토하는 대화를 하며, 그 제안은 다양한 이해, 사실, 제언, 의견, 관점, 경험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은 그 논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검토되며 그 중심에는 독서토론 진행자가 있게 된다.

독서토론은 집단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선정된 도서를 통하여 독서의 과정에서 얻었던 개인적 정보(경험을 포함)와 사전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교환, 검토함으로써 논점이 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평가 판단, 그리고 결정,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독서토론 진행자의 역할

1) 긍정적, 효과적 분위기의 리드자 역할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원중에서 신규회원 소극적인 회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배려로 감싸주어야 한다.

2) 회원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돕는 역할

다양한 토론주제발표, 생각공유, 정보, 의견교환 등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경험, 지식 등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며,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같이 참여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 주어야 한다.

3) 경청자

독서토론을 처음 접하거나, 신입회원에게는 독서토론의 과정자체가 낯설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연히 진행자의 영향은 대단히 클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의 상호간의 신뢰의 바탕 위에서 독서토론시간동안 긍정적이고 상호존경, 신뢰의 분위기가 넘치도록 진행자는 차분하게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고, 토론시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차분하게 주제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4) 독서가

독서토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진행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선정도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독서토론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진행자는 독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평소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독서를 통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

4. 독서토론 진행자의 자세(태도)

독서토론 진행자는 독서토론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선정도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자들이 개인적의견과 질문에 대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독서토론 진행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 ⇒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이해 (쓰기, 읽기, 말하기)
- ⇒ 독서토론 진행 및 주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능력
- ⇒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정
- ⇒ 창의성

4. 독서토론진행을 위한 추천도서

독서토론 진행자는 구체적인 독서법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독서정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진행을 위한 토론주제선정과, 제한된 시간에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행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먼저 진행자 스스로가 자기개발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도서를 읽고, 정리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바, 끊임없는 독서에 대한 열정과 삶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5. 독서노트 작성방법

- 책 구입일과 어디서 구입했는지 명기하라
- 혹 선물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어디서 선물을 받았는지 기록하라
- 책을 구입하게 된 동기를 적어라!
- 혹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구입하게 되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지, 왜 추천을 했는 지 기록하라
- 도서명과 저자 및 출판사를 적어라
- 언제 읽었는지 읽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라
- 책을 읽은 전체 느낌을 적어라!
- 책을 읽고난 뒤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라
- 저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보라
- 책을 읽고 난 뒤, 인상깊은 구절이나 사례가 있으면 적어 보라
- 책을 읽고 난 뒤에,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라

6. 독서토론 주제 및 질문 선정방법과 질문법

책을 본다는 것은 단지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전체 세계를 보는 것이다. 책에는 저자가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있고, 독서토론 진행자는 그 핵심을 기반으

로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참여한 다양한 구성원들과 그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 만큼 다시 알아진다고 한다. 일종의 연쇄반응인 것이다. 책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주제에 맞게 다양한 질문을 준비한다는 것은 독서토론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임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독서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이토다카시는 그의 저서「능력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세가지 능력을 설명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핵심을 훑쳐 기술을 터득하는 ‘훑쳐내기(훑치기)능력’, 이것과 관계 있는 ‘정리능력’, 그리고 요약하고 질문할 수 있는 ‘논평 능력’이다 이 세 가지는 현대의 사회에서도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평소에도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배울 수 있다.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그만큼 학습의 양은 줄어들 것이다.

효과적인 주제를 찾고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에 대하여 평소에도 끊임없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책의 주제를 찾는 방법

- 책의 제목이나, 서문이나 에필로그
- 책을 읽고나서 스스로 한 단어나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적어 본다
-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점을 생각하면서 독서하기
- 다양한 독서리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책을 읽으면서 던져야할 기본적인 질문과 기록해야 할 것들

- 책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것
- 책을 읽은 전체적인 느낌
-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 문장
- 책을 통하여 내가 적용하거나 실천 할 점
- 기타. 내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

※ 독서토론진행자는 책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참여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원할 한 진행을 이끌고 책에서 느꼈던 감동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서토론 주제의 선정

- 독서의 과정에서 의문이 되는 것 → 의문점
-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
- 토론을 위한 질문

■ 질문의 형식과 내용

- 독서토론을 위한 질문은 가능한 긍정적이고, 답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어야 한다
- 미리 계획하고,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한다
- 질문의 다양성 (사실, 정보, 참여질문)

7. 독서토론 진행을 위한 진행스킬 – 적극적 경청, 적절한 질문과 반응

1) 적극적 경청

- ㉠ 비판적, 태도는 버리고 관용과 이해, 받아들이는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라.
- ㉡ 무턱대고 모든 일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때로는 곤란하다.
(자기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생각에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 ㉢ 지극히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적절히 진행자 자신의 이해상황을 되풀이해서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질문

- ㉠ 전원대상 질문 (예 ;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지명질문(위촉되었거나 소극적인 회원에게 사용)
(예 ; 000선생님! 지금 나온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릴레이질문(진행자의 의견이나 해답을 요구하기 좋아하는 회이 있을 경우)
(예 ; A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〇〇〇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㉔ 반대질문(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진행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요구하는 경우)
(예 ; 000선생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볼 것

- 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② 주제만을 너무 집착하여 회원의 생각이나 경험을 털어놓을 기회가 적지는 않았는가?
- ③ 누군가가 토론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는가?
- ④ 회원들이 상호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 ⑤ 토론요약을 적당히 얼버무리지는 않았는가?

4) 그 밖의 토론 SKILL (예)

- ①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② 회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 ③ 토의 중 의견대립이 생긴 경우 잠시 방치하다가, 곧 시선을 보내어 조정하거나 참여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쟁점이 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한다.
- ④ 내성적인 참여자에게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참여를 유도한 후 곧이어 어째서라고 질문을 진전시킨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다른 참여자의 공감을 확인시켜 주고 격려를 해준다.

5) 독서토론 진행자의 유의할 점

- 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몸짓, 표정 하나하나에 품위를 유지한다.
- ② 발표하는 회원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고 관심 있게 들어준다.
- ③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진지하고 따뜻하게 코멘트한다.
(진지하지 못하고 서둘러 하는 행동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
- ④ 그날의 주된 주제를 항상 기억하고 전체프로그램의 흐름에 적응한다.
- ⑤ 모든 회원들에게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된다.
- ⑥ 회원의 개인상황이나 독서토론시의 이야기를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 거리로 제공하면 안 된다.

8. 독서토론 분위기 활성화

독서토론분위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해하는 분위기, 신뢰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진행자는 절대로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된다.)

- ① 다른 사람과 의견이 조금 다를지라도 스스로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참여자 한사람의 비판적이거나 자기 의견만의 고집은 참여자 모두를 방관자로 만들거나 무관심자로 만든다.
- ② 진행자는 상담자가 되거나 충고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보다 낫다. 진행자는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 ③ 주제가 빗나갔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토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혜롭게 대처한다. 그러나 토의가 의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끔 유도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론이나 요약은 그룹전체에 의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 ④ 진행자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독서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마음과 영혼에 평온을 유지하고, 어떤 일에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 ⑤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등의 대답을 하도록 리드한다.
- ⑥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조원은 그들 자신의 수준에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조장은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대화를 이끌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⑦ 개인적인 감정이 토의과정이나 공유과정에서 서로 교차할 때는 잘 중재를 하고 전체 토의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한다.

※ 독서토론 진행안 작성 (예시)

NO	구분	내 용	작성 지침 기본요소	비 고
1	선정도서 진행관련	-선정도서 1회독이상 -기본개요 숙지 -진행안의 틀 작성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것? -선정도서에 대한 목적의식 - 3~4개의 중점요소 파악 - 선정도서의 개별적용 요소 - 선정도서의 단체적용 요소 - 기타 동일주제의 서적 참조	
2	토론 & 발표 (120분)	-05분 : 오프닝 및 진행방침 -15분 : Good News -10분 : 전체서평 -60분 : 세부발표 & 토론 -10분 : 독서프리젠테이션 -15분 : 금일 독서토론 전체평 -05분 : 클로징멘트 및 마무리	- 진행자 사전에 준비 - 다수일 경우 조별로 유도 - 간략하게 3~4줄, 1분이내로 - 토론질문 사전에 준비, 공지 - 준비된 회원이 발표 - 1분 이내로 회원전체 참여 - 사전준비 + 개인적 전체평	
3	시간관리	-시작시간, 종료시간 -항목별 예상시간 -특별 Care 대상자 파악	-생방송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시간계획이 효과적임 -참여자들 개인차 충분히 고려	
4	- 독서프리젠테이션의 경우,모임전에선정된회원이진행하며,준비되지않았을 경우,진행에 포함시키거나, 운영진과 협의하여 진행자가 준비 - 선정도서와 관련하여 개별발표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회원의 경우에는 10분 이내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행자가 협조하며, 개별 발표를 준비한 회원은, 독서토론 시작 전 반드시 진행자에게 알려줄 것.			

* 독서토론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진행자 고유의 권한이나, 효율적인 진행안 작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더스클럽의 진행을 표준으로 진행안을 작성한 것임.

독서토론 진행자 착안점 & 체크리스트

－ 목 적 : 독서토론 진행자를 위한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진행

구분	내 용	착안점 및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독서 토론 사전 점검	1) 기본사항	진행자는 선정도서를 1회독이상 독서토론 시간에 늦지 않도록 준비한다
	2) 독서토론 진행안 점검	독서토론 진행을 위한 진행안을 나름대로 준비한다 － 리더스클럽 독서토론 표준 진행안 참조
	3) 발표와 토론 점검	발표주제 및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선정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한다 － 독서토론 2일전 까지는 공지할 수 있도록 － 선정도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주제별, 소재목별토론)
	4) 사전점검 마무리	1) 독서토론 일정 및 진행안을 숙지하였는가? 2) 선정도서에 대한 핵심과 진행자의 관점을 정리하였는가? 3) 토론주제 및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였는가?
진행 도중 점검 사항	1) 철저한 시간관리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토론시 한두 사람에게만 편중되지 않게 한다 한 주제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한다
	2)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형식적이거나, 참여가 없는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 진행자는 시종일관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임을 잊지말라
	3) 명확한 목적인식	진행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것을 3~4항목으로 정리하라 참여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진행자 위주의 말과 관점으로만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진행시 미비점 및 보완점 집중분석	자기분석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다 － 최초 진행안과 실제 진행시의 차이점, 애로점, 보완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사례

장 동 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장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위해 2008년 4월에 일찍이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은 폭넓은 프로그램 운영과 편리한 접근성, 담이 없는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 저변활동에 기여가 크다. 앞으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및 예술의 생활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표 1 〉 연도별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공립	894	888	1,302
사립	3,057	3,798	3,932
전체	3,951	4,686	5,234

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립 및 조례 제정에 따른 발의 배경과 과정

〈 표 2 〉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과정

①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 작은도서관 관계자(지역의원, 작은도서관 회원 등)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발족

② 소관부서와 소통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작은도서관 공감대 형성

- 작은도서관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 마련

③ 조례 제정(안) 제시

- 독서운동에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과 작은도서관 회원들이 도서관 정책 담당공무원과 입법을 위한 지방 자치의회와의 공동면담으로 조례 발의

배 경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조례 추진 배경

- 제주도의원 공약으로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제주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2007년 기존의 새마을문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지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마저 외면당하고 있었다. 도서관 설립도 중요하지만 시설에만 국한되어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운영조건이 절실하게 요구되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과 정

1) 작은도서관 인식 변화 시급 - 토론회 개최로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제정의 의지를 모으다

-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에 맞춰 타 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추

진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내 관계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민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 · 방안의 부재로 설득과 이해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 타 지역 작은도서관 견학 - 작은도서관 및 조례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다

- 전국의 우수사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작은도서관의 장 · 단점을 검토하고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관계부처 설득과 협의 도출 - 조례를 제정하다

- 지역주민들과 소관부서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립욕구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며 입법을 위한 관계기관 면담을 시도하고 입법 발의를 촉구하였다.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심 있는 지역의원이나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 절충을 통해 입법 발의를 가시화하였다.

대 안

○ 조례제정과 작은도서관 개관과 운영의 어려움 및 대안

- 기존의 작은도서관(문고)의 경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주체의 의지 상실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외면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족을 가속화시켰다.

관계기관 및 부처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지속적인 행 · 재정지원과 함께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올바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도서관에 적합한 운영마인드를 가진 운영주체의 발굴에 힘써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발의방법

(지방자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제22조 조례)
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제66조 의안의 발의)
3.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연서 청구(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과 조성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2008-04-02 조례 제 355 호)」를 일찍이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제도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과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불가피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고, 제주자치도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3. 건물면적이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표 3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문체부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작은도서관 현황 /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합 계	2007~ 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 관 수		23	9	2	4	3	－	2	2	1
소 요 사업비	계	2,234	913	156	400	265	－	200	200	100
	국비	1,563	639	109	280	185	－	140	140	70
	도비	671	274	47	120	80	－	60	60	30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새마을문고 수는 158개관임. (2014년 8월 기준)

21개소의 작은도서관 중 2개소 작은도서관을 제외 한 나머지 19개소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조성되었다.

제주도에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신규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범위에 따라 개소가 결정되며 그 선정기준은 공공 및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하며, 인구 분포 및 지리적 연건 등을 고려하여 미설치지역을 우선으로 신축조성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은 운영비 지원 지속성 담보를 고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2년마다 운영자 공개 입찰 지정)에 대해서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 각각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시내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사립 작은도서관은 일괄적으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1개소의 작은도서관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조성될 예정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조례 - 제6조(도지사의 책무) 》

-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④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표 4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현황

연 도 별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	공립작은도서관(3개소)		비 고
		2개소(각각)	1개소	
2009년	-	5,000만원	-	
2010년	800만원	5,500만원	-	
2011년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12년	1,2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13년	1,5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14년	1,5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15년	1,9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16년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지역사회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작은도서관협회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가 조직되어 문체부 승인·조성된 작은도서관 등 21개관을 회원으로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회원도서관의 교육과 홍보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순회사서 사업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표 5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비고
I	협회 조직관리	○ 정기총회(년 1회) ○ 운영위원회(년 4회 이상) ○ 사서간담회(년 5회 이상)	
II	교육지원사업	○ 작은도서관학교 ○ 워크숍 운영 ○ 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 순회사서 운영	
III	프로그램 지원사업	○ 찾아가는 독서문화학교 ○ 그림책 원화 순회 전시	
IV	독서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책잔치 개최 ○ 작은도서관 홍보 전시회	
V	출판·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작은도서관 소식지 발행 ○ 자체평가회 개최	

작은도서관은 독서 생활을 주도하는 독서기획의 제공과 함께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도록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내 작은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사업과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동아리 지원프로그램까지 폭넓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책과 도서관에 친숙함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서귀포시 소재 공립) 현황

① 일반현황

- 개관일 : 2012년 7월 27일
- 운영요일 : 화요일 ~ 일요일 (휴관일 : 월요일, 국경일)
- 운영시간 : 오후 1시 ~ 8시 (토·일요일은 오전 10시 ~ 오후 6시)

②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현황

〈 표 6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현황

주요사업	사업내용	비고
I 독서문화행사 사업	- 책 문화 행사 - 우리 마을 도서관축제 - 도서관 음식문화축제 - 작은도서관 책잔치 - 현장체험학습 - 작가와의 만남 - 양영길 시인과 함께하는 시 세상 - 겨울방학 도서관학교 - 전통문화 그림책 원화 전시 - 꿈쟁이 작은발표회 - 꿈다락 작품전시회	
II 독서교육 지원사업	- 자기주도 책 놀이 - 동화구연 - 책으로 말해요 - 오늘부터 나도 어린이 작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책이랑 놀이랑 - 책과 함께 하는 버그박사	
III 평생교육 지원사업	- 인물로 보는 한국사 - 보드게임으로 놀자! - 스트레칭 요가 - 신나는 요리과학 - 전통문화 체험학습 - 고추장만들기 5월 가정의 달 특별체험프로그램 - 어린이 다문화 체험학습 - 영어뮤지컬 - 창의 수학 - 역사의 보물을 찾아라! - 와글와글 과학교실 - 나만의 쿠키만들기 - 꿈쟁이 가족역할극 - 꿈쟁이 영화관	

2) 제주특별자치도 금능꿈차롱 작은도서관(제주시 소재 사립) 현황

① 일반현황

- 개 관 일 : 2009년 12월 23일
- 운영요일 : 토요일 ~ 목요일 (휴관일 : 금요일, 설, 추석)
- 운영시간 : 오후 4시 ~ 9시

②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현황

〈표 7〉 금능꿈차롱 작은도서관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현황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비고
I 독서문화행사사업	•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 꿈차롱 파자마파티 • 작은도서관 책잔치 • 작은도서관 겨울이야기(개관행사)	
II 독서교육 지원사업	• 문딱 책놀이 • 책놀이 지도사 2급 과정 • 제주 인문학 강좌 • 어린이 시조교실 • 성인 시 창작교실 • 어린이 동화교실 • 스토리텔링교실 • 아트로드 도서관 문학길	
III 평생교육 지원사업	• 별별미술학교 • 제주말로 7라보는 제주이야기 • 아트로드 생태미술길 • 꿈차롱 해적단의 보물지도 • 전설따라 찾아가는 제주환경여행 • 바다기후교실 • 수학교실	
IV 출판·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꿈꾸는 기자단 • 그림책 발간 (제주말로 7라보는 제주 이야기)	

□ 나오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에서는 제주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서관 설립, 운영의 원칙과 도서관 정책과 제도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 체계를 다지고자 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에 정부와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확충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고 있지만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대회 설문 조사

참여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대회를 개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 성심 성의껏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을 제출하셔야 선물을 드립니다.)

▶ 해당 되는 곳에 “V” 나 기록하여 주세요.

1. 어느 광역시도에서 오셨나요?

2. 귀하의 직책은?
① 운영자(관장) ② 유급직원(실무) ③ 순회사서 ④ 공무원 ⑤ 기타
3. 귀하가 소속한 도서관은?
① 공립(운영비 지원) ② 사립 ③ 담당공무원
4. 작은도서관 운동에 관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① 1년 이내 ② 2, 3년 ③ 4, 5년 ④ 6년 이상
5.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점수를 준다면?
① 95~85점 ② 84~65점 ③ 46~64점 ④ 45~25점 ⑤ 시작단계
6. 작은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신 참석하신 경험은?
① 처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⑤ 작년 참석
7. 이번 전국 대회는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중간 정도 ④ 불만족
8. 대회에서 도움을 얻었다면 어느 면에서 도움을 받았나요?

9. 다음 전국대회에 바라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10. 주최/주관측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간단히 기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준비팀

